

2017 ANNUALLY 제33호

속초문화

Sokcho Culture Journal



©박동국



대한민국 행복꿈틀

행복꿈틀은 농업인과 국민의 꿈을 키우는 틀이 되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H농협의 약속입니다

신나라! 땀 흘린 농업인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틀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틀

힘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누구나, 어디서나 스마트한 금융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지 부 장 **김 영 만**

농정단장 **김 민 철**





소초문화

2017 • 제33호

Sokcho-Culture Journal



CONTENTS

- 005 권두시 **꽃** - 김향숙
- 006 권두회
증고우선화 - 이춘실
명언가구 - 최양규
- 008 **발간사** - 김계남(속초문화원장)
- 009 **회원모집** - 속초문화원 회원모집
- 011 **속초문화원 365**
- 012 2017 효행청소년 시상
- 01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 014 제25기 향토문화학교
- 016 2017 강원문화대축전
2017 강원어르신문화대축전
- 017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속초8경 안내봉사'
- 018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 019 속초사자놀이 전수 및 공연
- 020 2017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사업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 022 속초문화원 문화예술 동아리
- 023 2017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 024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 025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시군구지원센터운영
- 026 2017 문화유적답사
- 027 제52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 설악산 소나무 당제
- 028 제2회 실향민문화축제 '함상위령제'
- 029 2017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레벨업 프로젝트>
- 030 문화올림픽 콘텐츠 사업
- 031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032 향토사안내서
- 033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G-100일 올림픽페스티벌
- 034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속초문화



題字 **혜풍 김광희**

- 현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
- 아세안캘리그래피협회 이사
- 한국미협속초지부 명예회장
- 대한민국현대서예문인화협회 이사
- 혜풍문자조형연구소장

강원도 속초시 밤골3길 30-1 혜풍서법연구소

M. 010-3447-2996

E-mail. kw2996@hanmail.net



036 2017 장릉사진공모전 수상작 시상전시

- 037 - 금상 임승자
- 038 - 금상 오병옥
- 039 - 은상 이만호
- 040 - 은상 이건춘
- 041 - 동상 이애자
- 042 - 동상 조경용
- 043 - 동상 최미자
- 044 - 동상 한종섭

045 기획 “도시재생”

- 046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속초시 지원방향 - 추용욱
- 051 도시재생, 문화재생 그리고 창의적 재생 - 염기명
- 058 문화로 채우고, 도시를 걸어라 - 편집부

063 기획 “문화예술 현장”

- 064 우리 고장 역사 바로알기 - 이춘복
- 068 속초는 뿌리가 없는 도시일까? - 정상철
- 076 강춘화 여사와 속초의 수산업 - 장재환

080 기획 “기억+기록”

- 아동선시(禪詩) 박용열 시인의 <삶과 문학>
- 082 승려와 의사 그리고 시인이 함께 가는 길 - 이상국
- 090 동과 선의 완숙한 극치, 고요 - 이동순

099 “특집”

- 100 자료를 통해 본 김용식 - 김만중

116 2017 속초문화예술 해적이

- 130 제29회 속초시문화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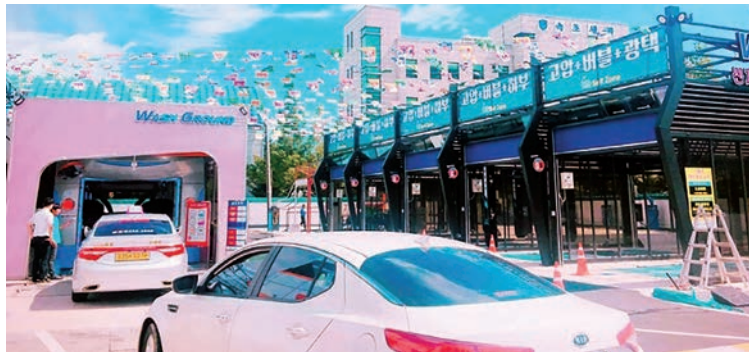
표지작품 박동국

(우)속초시 번영로 155 (영랑동)
TEL.(033) 632-1231, 639-2439
FAX.(033) 632-1241
E-mail. sc2439@kccf.or.kr
퍼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김 계 남
편집인 : 김 인 섭
발행일 : 2017. 12. 4.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WASH GROUND

고품격 셀프주유소 & 신개념 세차 복합타운



- 최고급 신형 터널식세차기
- 국내 최고 타이어 휠 브러쉬 세차
- 신개념 자동 셀프세차기 (1톤 화물탑차 가능)
- 회원제도운영
 - 선불충전카드(RF카드) 무인화 시스템 완비
 - 선불충전카드(RF카드) 발급시 20% 추가적립
- 프리미엄 브랜드 세차용품점 & 고객 휴게공간 완비



속초중앙새마을금고 주유사업소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32 (아남프라자 앞)
☎ 033) 635-1100~1

풀꽃

점찍은 듯
작은 생명도 가슴이 뛰는구나
하얀 꽃잎 비장하게 열어
파란하늘도 담고
서늘바람도 안아보고

제 키만큼의 세상
향대로 채워가며
한나절 온 생애를 누리는
웃음과 노래

자전거 탄 사람 하나
동그란 바람으로 지나가고
풀꽃 흔들리며
저녁이 오네



김향숙

2003년 시현실 등단
시집 <따뜻한 간격>
한국문인협회 회원, 속초문협 지부장,
설악문우회, 고성문학 동인

看盡百花正可愛
縱橫芳草踏烟霞
一樹寒梅將不得
其如滿地風雪何

錄葛海先生詩
桃院李春實

贈古友禪話(증고우선화)

어여쁜 온갖 꽃을 모두 보았고
안개 속 꽃다운 풀 두루 누볐네
그러나 매화만은 못 만났는데
눈바람 이러하니 어쩔 좋으랴



桃院 이춘실

•님의침묵서예대전 입상

壽以喜山千載秀福如
滄海萬年清

丙申夏月
高峰崔陽圭



名言佳句(명언가구)

수는 봄산과 같이 천년이나
빠어나게 오래 살고
복은 푸른바다와 같이
만년이나 맑게 산다

高峰 崔양규

- 님의침묵서예대전 초대작가
-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 동아미술대전 입선
- 동해무릉서예대전 입선
- 대한민국아카데미 미술대전 초대작가



속초의 문화경쟁력을 위한 지역문화 가치창조

무술년 '황금 개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문화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보이거나 체감할 수 없지만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일상 속에 묻혀진 삶의 여유와 가치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속초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으며 도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가치는 속초의 삶과 역사를 간직한 '속초다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속초에는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서고속철 확정과 고속도로의 확대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속초시 설립 이후 최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속초다운 정체성의 확립과 시민의 정주권 만족을 위한 고유의 가치 개발일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외 위성도시로 전락하지 않고 오랫동안 속초에서 살아 온 분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문화기획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도시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초인문학', '속초학' 등의 이름으로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삼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이나 '향토사 연구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공간의 공유를 통한 문화소통, 기억과 기록의 장소성을 통한 문화재생이 속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문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속초문화』 33호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진행한 문화원 사업의 결과물과 함께 지역의 문화행사, 기록적 가치가 있는 제언 등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창간한다는 마음으로 리뉴얼 수준의 편집작업을 하였다는 점도 밝힙니다.

앞으로도 속초문화원은 직원들의 맘을 마음껏 삼아 속초의 문화정체성과 주민 삶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속초문화가 더욱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문화원장 김 계 남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향토사안내서, 속초문화지 등 속초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DVD, 도서, 음반,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회비 : 연 5만원

문의 : TEL 632-1231 / FAX 632-1241 / www.sokcho-culture.com



NH 속초농협

진심을 팔다 안심을 살다 

속초농협은 우리지역 향토기업으로써,
농업인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속초농협하나로마트 직원 일동 -



속초농협하나로마트 엑스포점 033)630-1500~1501
중앙시장점 033)633-1508

속초문화원 365



- 효행청소년 시상
- 청소년문화예술교육
- 제26기 향토문화학교
- 강원문화대축전 외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도문농요 보전 전승
- 속초사자놀이 전수 및 공연
-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문화예술동아리
- 학교문화예술교육
- 도시변천사기록사업
- 문화체육자원봉사매칭시스템
- 문화유적답사
- 설악제례
- 함상위령제

- 지역콘텐츠개발지원사업
- 문화올림픽콘텐츠사업
- 강원민속예술제
- 향토사안내서 발간
- 속초문화원 가족동정
- 올림픽페스티벌

2017 효행청소년 시상

본원이 매년 진행하는 효행청소년 시상은 관내 16개 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효행이라는 단어의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세태이기에 이번 시상을 통해 잠시나마 효행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 우리 청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 2017 효행청소년 수상자

번호	학교명	학년반	성명
1	속초초등학교	6-2	김준형
2	영랑초등학교	6-1	안혁진
3	중앙초등학교	6-2	전승민
4	중앙초등학교	6-친절반	권태원
5	교동초등학교	6-7	방준석
6	대포초등학교	6-1	이시현
7	온정초등학교	6-1	김민형
8	조양초등학교	6-1	성유빈
9	설악초등학교	6-초롱꽃반	박성윤
10	청대초등학교	6-5	최소희
11	소야초등학교	6-1	신유림
12	청봉초등학교	6-1	이강산
13	속초중학교	3-3	박동이
14	설악중학교	3-3	김대한
15	속초여자중학교	3-3	박민지
16	설악여자중학교	3-6	진예빈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올해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향토사와 여름방학 예술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향토사 강좌는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지역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과 속초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름방학문화프로그램으로는 속초문화원 대표 문화예술강좌로 자리잡은 ‘영화야 놀자’, 올해 처음 실시한 ‘고전문학으로 그리는 빨주노초파남보’를 기획하여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 향토사 강좌

향유기관	향유인원	진행강사	회차	비고
다솜아동센터	140명	2명	20회	
하나로아동센터	160명	2명	20회	
속초여자고등학교	50명	1명	13회	

• 여름방학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향유인원	진행강사	비고
여름방학문화강좌 ‘영화야 놀자’	8월7일 ~ 8월18일 09:30 ~ 12 :00	문화사랑방	20명	2명	
고전문학으로 그리는 빨주노초파남보	8월7일 ~ 8월18일 13:30 ~ 15:30	문화사랑방	15명	2명	



제25기 향토문화학교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는 지역의 전통 있는 평생교육강좌로 올해 25기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강좌는 3월 8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고전무용, 노래교실, 민요교실, 서예교실, 장구교실, 사물중급, 사물고급, 통소교실, 한지공예 등 9개 강좌가 11월까지 진행되었고, 11월 22일 ~ 24일 3일간 향토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졌다.

■ 입교식

- 일 시 : 2017년 3월 8일 11:00
- 장 소 : 속초시문화원 문화사랑방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등 60명
- 주요내용 : 속초문화원 주요사업 안내, 문화학교 현황보고, 강사소개





• 문화학교 일정

강좌명	요일	교육시간	교육장소	향유인원	강사
고전무용	목	13:00~15:00	문화사랑방	9명	김민희
노래교실	화·금	13:00~15:00	문화사랑방	46명	최봉하
민요교실	수·금	13:00~16:00	갯마당연습실	27명	김헌섭
서예교실	화·금	10:00~12:00	문화사랑방	15명	이덕우
장구교실	월·목	13:00~15:00	갯마당연습실	11명	임효건
사물중급	월·목	10:00~13:00	갯마당연습실	17명	임효건
사물고급	목	10:00~12:00	갯마당연습실	8명	임효건
통소교실	화	15:00~17:00	문화사랑방	4명	김태희
한지공예	수	09:30~12:30	문화사랑방	18명	이진향

■ 수료식 및 전시, 발표회

- 일 시 : 2017년 11월 22일 ~ 24일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및 내외빈 등 130명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제1전시실
- 내 용 : 수료식 및 발표회 11월 22일 11시 / 노래교실, 고전무용, 장구교실, 민요교실
- 전시회 : 11월 22일 ~ 24일 / 한지공예, 서예 작품전시

2017 강원문화대축전

- 행사명 : 2017 강원문화대축전
- 일 시 : 2017. 12. 13
- 장 소 : 태백 문화예술회관

강원문화의 전통과 미래를 이끌어 가는 문화원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강원문화대축전이 12월 13일 태백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강원도 18개 시군 문화원이 공연과 전시 등 1년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밖에 문화예술 유공자 발표,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속초문화원에서는 민요반 회원들이 공연을 펼쳐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속초문화원 이영순 부원장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임희영 강사가 각각 강원도지사와 강원도문화원연합회 표창을 받았다.



2017 강원 어르신 문화대축전

- 행사명 : 2017 강원어르신문화대축전
- 일 시 : 2017. 10. 17.
- 장 소 : 홍천 문화예술회관

‘2017년 강원 어르신 문화 대축전’이 10월 17일 홍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18개 문화원에서 공연 16개팀과 전시·체험 9개팀 800여 명이 참가해 지난 1년 동안 도내문화학교에서 갈고닦은 기량과 솜씨를 뽐내는 기회를 가졌다. 속초문화원은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사업으로 육성된 실향민문화공연단 ‘돈돌라리요’가 함경도 민요와 무용을 선보여 ‘재능상’을 수상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일정 소득을 제공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속초8경 안내봉사’ 사업을 2009년부터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관광안내봉사교육을 받은 후 속초8경 등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거점에서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엑스포공원, 속초시립박물관, 학무정 등 5개 관광지에서 활동을 하였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속초8경 안내봉사’



- 사업명 : 201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속초8경 안내봉사’
- 사업일시 : 2017년 3월 ~ 11월(9개월)
- 해설장소 :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엑스포공원, 속초시립박물관, 학무정
- 참가자 : 20명
- 내용 : 어르신 안내봉사자 양성 및 근무활동 지원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속초문화원은 속초 유일의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상도문 마을주민 위주로 구성된 보존회는 연간 5회 공연연습과 다양한 전승교육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공연도 활발하게 하였다. 붉은대게 축제와 제52회 설악문화제 행사 초청공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마을 논에서 모심기 소리 공연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은 올해로 설립 3년차로, 도문농요 연습 및 공연 등 체계적인 전승활동 뿐만 아니라 2017 생생문화제 및 각종 공연연습 장소대관 등 지역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017 속초도문농요 공연활동

회차	일시	장소	내용	관객
1회	2월18일	붉은대게 축제 행사장 (이마트 앞 광장)	붉은대게 축제 공연	300명
2회	7월15일	상도문 마을 논	무형문화재 공개공연	100명
3회	10월15일	설악문화제 행사장	제51회 설악문화제 초청공연	300명
4회	12월04일	속초고등학교 체육관	무형문화재 공개공연	250명



지역의 대표 실향민 문화콘텐츠인 속초사자놀음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지역예술인,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연단은 정월대보름맞이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총 9회 공연을 하였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2회 공연연습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속초시 번영회 청년봉사단과 함께 통일전망대 초청공연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속초사자놀음 전수 및 공연

-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연습
 - 일 시 : 3월 ~ 11월 총 22회
 - 장 소 : 속초문화원
 - 참가자 : 북청사자놀음보존회 40명

•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

날짜	행사명	행사장소	비고
2월 10일	정월대보름맞이 지신밟기	청호동 일대	
2월 11일	정월대보름맞이 지신밟기	속초수산물관광시장	
4월 8일	제31회 황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황성군 정금민속관	
9월 16일	함남도민회 큰잔치 초청공연	엑스포공원 운동장	
9월 25일	속초시립박물관 공연	속초시립박물관	
10월 14일	설악문화제 공연	설악문화제 행사장	
10월 18일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청호동 갯배 아트플랫폼	
11월 4일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청호동 갯배 아트플랫폼	
11월 18일	번영회 청년 봉사단과 함께하는 통일전망대 초청공연	통일전망대	



2017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사업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올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실향민문화공연단 돈돌라리요>와 <설악문화나눔친구들>을 하나의 봉사단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공연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특히 어르신들의 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에 힘을 써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생적인 활동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까리따스요양원, 성암노인복지센터, 하나로아동센터, 다솜아동센터, 예은요양원 등의 봉사활동 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속초축제위원회, 속초시립박물관, 런갯마당과 협력하여 공연활동을 하였다. 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은 총 38회 운영하였다. 봉사단의 자체워크숍을 통해 기량을 발전시키고, 봉사향유처의 수요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봉사공간을 확보하였다.

- 봉사단 구성 : 40명(돈돌라리요 28명, 설악문화나눔친구들 12명)
-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공연단 육성교육(30회)
 - 일시 : 4월~11월 매주 수요일 13:00~16:00
 - 장소 : 문화사랑방 외
 - 대상 : 공연단원 28명
 - 내용 : 실향민 문화 공연 및 봉사활동 콘텐츠 제작
 - 봉사단 워크숍(8회)
 - 일시 : 4월~11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10:00~13:00
 - 장소 : 문화사랑방 외
 - 대상 : 봉사단원 및 공연단원 15명
 - 내용 : 찾아가는 봉사활동 진행 협의 및 봉사기술 습득 등
- 자체 봉사 및 공연 활동 (54회)
 - 대상 :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지역행사 등
 - 봉사 횟수 : 2017년 4월~11월 117회

구분	대상	비고
지역아동센터	하나로아동센터, 다솜아동센터	월 2회
노인복지관	까리따스 요양원, 성암노인복지관, 예은요양원, 정요양원	월 1회
지역행사	실향민문화축제, 함경남도 도민한마당 큰잔치, 지역브랜드상설공연(런갯마당 협력), 속초시립박물관 매마수 공연 등	



속초문화원 문화예술 동아리

속초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의 근원인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사물 중급반과 고급반의 활약이 돋보였다. 중급반은 9월 20일 개최한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여 내년도 대회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또한, 장애인 일일차집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사물 고급반은 지역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설악문화제 기간 중 개최한 설악제례 영신제, 송신제 때 공연을 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정선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한 2017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식전공연 및 길놀이 초청공연을 하였다. 이 밖에 민요반은 강원문화대축전에서 공연을 하는 등 향토문화학교 동아리의 활약이 돋보인 한 해였다.



속초문화원은 초등학교 대상 전통문화교육사업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주관하였다. 본 사업은 ‘청호초-북청사자놀이’, ‘온정초-속초도리원농악’, ‘설악초-속초도문농요’ 등의 지역문화자원과 ‘대포초-국악관현악단’, ‘청봉초-창극’, ‘속초초-취타대’같은 다양한 국악 장르를 관내 6개 초등학교 및 ‘청소년풍물동아리-뉘누리’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과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2017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 국악심화교육
• 교육기간 : 2017. 3 ~ 12

학교명	담당교사	강좌명	지도강사	인원	교육내용	비고
청호초등학교	김도연	북청사자놀이	김척익	25	사물	
			임희영		민요	
			임효건		통소	
속초초등학교	이춘동	취타대	최재학	30	대취타편성과 용고 나각, 나발교육	
			임희영		태평소	
청봉초등학교	전미옥	창극	김헌섭 임희영	25	민요	
온정초등학교	정승학	도리원 농악	임효건 박준영	38	도리원농악 전반, 소고 및 상모	
설악초등학교	서영선	속초도문농요	김부영 유인혜	25	도문농요 및 농사품이	
대포초등학교	김영지	국악관현악	박치영 권진주	51	국악관현악 편성 및 악기교육	



대포초등학교



대포초등학교 공연모습



속초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공연모습



청봉초등학교



청봉초등학교 공연모습



온정초등학교



설악초등학교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속초의 역사적 변천과 시민의 삶, 그 공간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사진, 영상, 구술, 자료집, 전시 등으로 구현하여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자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을 시작하였다. 올해는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의 지속적인 활동의 틀을 만들기 위해 '기억을 잇다, 미래를 상상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사진 아카이브, 근대역사의 문화자원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전시회 등 지역변천사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

- 기 간 : 2017. 2 ~ 12
- 참가자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위원 15명, 시민위원 26명, 사진작가, 화가 등 지역예술인 다수

■ 내 용

- 예술아카이브 : 사진, 어반스케치
- 도시변천사 발굴 및 기록 : 속초 신흥사 약사 외
- 도시변천사 자료집 발간 : 속초 수산업
- 전문가 포럼
 - 1차(4. 28) : 문화콘텐츠로서의 설악산 변천과정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
 - 2차(11.13) :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속초시 추진 방향(추용욱 강원연구원)
- 장릉사진 공모전
 - 참가자 : 37명 작품 : 164점
- 시민위원 양성 및 활동
 - 시민위원 : 26명 모집/ 시민위원 양성교육 3회 실시
 - 문화탐방 : 마포문화비축기지, 서울로 7017
- 도시변천사 전시회
 - 기자 동문성의 오래된 필름(1965~1975)
 - / 갯배아트플랫폼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은 지역문화봉사의 활동 거점 및 시민들의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축한 봉사자와 활동처 간 온라인 매칭시스템 운영 사업이다. 속초문화원은 시 지원센터로 2014년 10월부터 임명되어 활동처, 활동가, 회원등록, 문화자원봉사 매칭 등 시스템운영과 문화자원봉사 다양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시군구지원센터운영

문화품앗이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봉사참여하기 | 문화품앗이e소개 | 자원봉사이야기 | 알림마당

봉사관동네역 확인서비스

봉사 참여하기

· 봉사자 모집공고

· 봉사자 검색

· 활동처 검색

· 이용안내

나의 맞춤 활동처

회원가입을 하시면 조건에 맞는 활동처를 맞춤형 드립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봉사자 모집공고

HOME · 활동하기 · 봉사자 모집공고

모집기간 2017.11.01 ~ 2017.11.02

미감 속초8경 안내봉사

· 구분	문화
· 활동영역	생활문화 / 안내·안내 및 편의서비스
· 활동처명	강원속초문화원
· 활동기간/시간	2017.11.03 ~ 2017.11.25 [정기] 10:00 ~ 16:00
· 모집인원	21 / 20명
· 봉사내용	속초 관내 문화거점에서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 봉사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일시 : 11월 03일, 4일, 5일, 10일, 11일, 12일, 17일, 18일, 24일, 25일 10:00~16:00 장소 : 영랑호범바위, 설초호(상동팔), 학무정, 속초시립박물관, 영금정, 설초호정자
· 첨부파일	
· 상해보험	없음
· 기타	

담당자 정보 | 신청자 (21명)



2017 문화유적답사

속초문화원 문화가족들의 문화정체성을 일깨우고 문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외지역 문화유적답사를 올해 두 차례 진행하였다. 1차 답사는 6월 9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장소인 강릉, 평창 일대를 탐방했다. 2차 답사는 6월 20~21일 포항등대박물관 및 부산 일대를 탐방하였다.

회차	일시	장소	참가인원
1차	6월 09일	강릉 평창 일대	30명
2차	6월 20일~21일	포항등대박물관 및 부산 일대	40명



설악문화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며, 속초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인 설악제례를 올해도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진행하였다. 9월 23일 9시 설악산신제(설악산 소공원 특설제단)를 시작으로 10월14일 10시 영신제, 15일 오후 4시 송신제(설악문화제 행사장)를 진행하였다.

올해 제례는 입지조건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악제례의 의미를 더욱 크게 알렸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끊겼던 설악산 소나무 당제를 처음 재현하기도 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당선된 이 행사는 설악산 주민들과 함께 속초제례위원이 협력하여 설악동과 속초시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제52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 설악산 소나무 당제

제례명	일시	시간	장소
설악산신제	9월 23일	9:00~10:00	설악산 소공원 특설제단
영신(산신합동)제	10월 14일	10:00~11:00	설악문화제 행사장
송신(산신합동)제	10월 15일	16:00~17:00	설악문화제 행사장



제2회 실향민문화축제 ‘함상위령제’

속초문화원은 2017 실향민 문화축제 부대행사의 하나로 6월 24일 속초 앞바다 해경 경비함에서 함상 위령제를 진행하였다.

함상위령제는 6.25전쟁 당시 배를 타고 남하하던 중 목숨을 잃은 실향민의 넋을 위로하고 남아 있는 실향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실향민 1세대 100여명이 참석했다.

■ 제2회 실향민문화축제 ‘함상위령제’

- 일 시 : 2017. 6. 24 10:00~10:30
- 장 소 : 속초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전용부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속초문화원의 ‘어촌체험마을을 VR(가상현실)·AR(증강현실)로 탐험하는 게임마을로 레벨업’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2억5400만원을 지원받아 총 3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 7월말 프로젝트 완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기존 콘텐츠와 VR·AR 등을 융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최초의 게임마을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위해 VR콘텐츠 개발업체인 (주)와바다다(대표 이광표)와 AR콘텐츠 개발업체인 퍼즐스페이스(주)(대표 신지섭)가 속초문화원과 컨소시엄을 맺어 진행한다.

2017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레벨업 프로젝트〉



문화올림픽 콘텐츠 사업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올림픽 콘텐츠'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문화콘텐츠 개발로 실향민 음식 개발 및 전시를 '갯배예술제' 기간에 개최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크루 양성을 위해 일반시민들이 스포츠댄스와 어반스케이치, 노래를 배워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댄스와 노래반은 런갯마당의 '갯배' 상설공연에서 공연을 하는 등의 활약을 펼쳤다. 이 밖에 속초연극협회의 연극 <전명출명전>을 대학로에서 공연하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을 함께 했다.



9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평창군 용평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 민속단은 속초도리원농악으로 참가하였다.

지난 예술축제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한 속초도리원농악은 속초 유일의 농악대로 백여 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소야전을 감고 도는 소야평야 농토를 경작한 농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농악이라 할 수 있다.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를 통해 속초도리원농악은 공연 관계자 및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행사명 :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전
- 일 시 : 2017. 9. 7~8
- 장 소 : 영월군공설운동장
- 참가자 : 공연단 57명, 공연지원 3명



향토사안내서

■ 문화콘텐츠로 바라 본 속초 _ 청호동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이상국 외 / 200p

- 1장. 문학으로 돌아본 청호동
 1. 시 : 이상국 외
 2. 희곡 :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반)
 3. 희곡 : 붉은 훈장(최재도)

2장. 작품 해설

1. 떠도는 섬을 위한 노래 - 이상국
2. 지역문인의 시 작품에 나타난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 - 김종헌
3. 망향의 기착지 '청호동', 실향의 종착지 '속초항' - 최재도
4. 썩.오닐.이반의 바다 - 김한

청호동은 일명 아바이마을로 불리면서 속초의 생활문화 상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전쟁 후 고향없는 아바이들의 임시거처이자 집단 생활문화를 전승하면서 갯배와 식혜, 북청사자놀이 등 현재 속초의 대표 문화를 잉태한 상징공간이다. 이러한 청호동의 삶과 문화를 가장 먼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문화로 표현한 이들이 예술가이다. 이 책은 기존 발표작품 중 청호동 소개의 시와 희곡을 집대성하고, 그 작품의 의미를 해설한 책이다. 청호동 주민의 삶과 아픔, 역사의 상처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은 작품을 통해 청호동의 문화적 깊이를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다.



10월 28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G-100일 올림픽 페스티벌>을 엑스포 상징탑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속초문화원의 주관 아래 속초예총, 속초민예총, 속초축제위원회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합심하여 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채로운 사업을 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G-100일 올림픽 페스티벌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28일 14:00
- 사업장소 : 엑스포 상징탑 광장
- 참가자 : 돈돌라리오 공연단 및 응원단 40명
- 사업내용
 - 체험행사 : 올림픽 주제의 음식과 체험(마스 코트 스탬프, 빵 만들기, 나무시계 및 나무목걸이 만들기, 마스코트 주먹밥 만들기), 움직이는 조각상, 미니올림픽(바구니컬링, 김연아포즈, 오륜기투호) 진행
 - 공연행사 : 주민화합속초예술(스텔라루체, 어필, 어린이집연합회, 두두몽컬쳐, 속초시립풍물단, 런갯마당, 신천무용단, 돈돌라리 무용단 외), 성공기원 축하무대(태진아, 휘성, 박미경, 악단광칠, K-Jazz)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허우린 감사

허우린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12년간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로 지난 1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허우린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속초시선관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1일 임기 3년의 선관위원으로 재위촉됐다.



■ 탁명원 이사

탁명원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이 주최한 제5회 퇴직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탁 이사는 이번 공모전에 지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담은 '수지침으로 자원봉사'를 응모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 이영순 부원장

이영순 부원장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물론 지난 2013년부터 속초문화원 이사로 재임하면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속초문화원 발전에 기여하여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했다.



■ 임희영 회원

임희영 회원이 속초문화원 사물놀이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이자 속초의 대표 전통문화인 속초사자놀이음 통소 담당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강원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 주동진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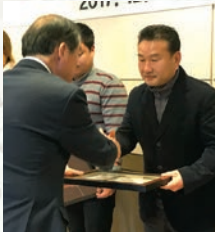
속초시립풍물단 단원이자 속초사자놀이음 보존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주동진 회원이 2017 문화예술부문 속초시문화상을 수상했다. 주동진 회원은 실향민 2세대로 속초사자놀이음에서 꺾쇠를 담당하며 구수한 함경도 사투리를 선보이고 있다.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장용근 이사

속초문화원 이사이자 속초축제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 분야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장용근 이사가 지난 12월 28일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 최용석 이사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물론 속초문화원이사로 재임하면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해온 최용석 이사가 속초시장 상을 수상했다. 최용석 이사는 지난 12월 7일 속초시립박물관에 광개토태왕릉비 탁본자료 기증을 주도하여 역사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 속초문화원 - 사물중급반

향토문화학교 사물중급반이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동상 수상은 최근 5년간 출전 성적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어 모두 즐거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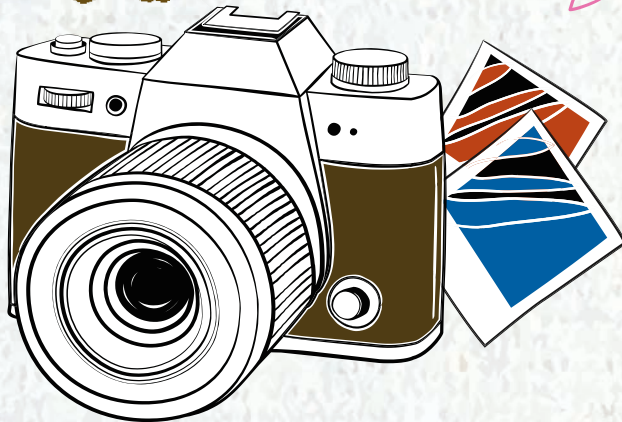
■ 윤장원 자문위원

윤장원 자문위원이 강원도 호남향우회 연합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윤장원 회장은 영북지구 향우회장과 강원대 경영대학원 속초총동문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7

장릉사진공모전 수상작 지상전시



2년 만에 다시 시작한 장릉사진공모전에 37분이 총 153점의 작품을 보내주셨다. 사진의 촬영 시기는 194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다양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즐거운 한때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진 출품을 위해 오랜만에 열어본 장릉 속 사진에서 지나온 시절을 추억할 수 있게 되어 행복했다는 출품인의 글도 있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출품했으리라 생각한다.

1차 예심으로 32작품을 선정하였고, 2차 본선에서 총 7점의 작품을 가려야 했다. 하지만 특별히 돋보이는 사진보다 한 장 한 장 저마다의 의미가 있었기에 곤혹스러웠다는 점을 밝힌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 수상작은 선정하지 않고, 금상 2점, 동상 4점으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입선도 당초 15점에서 출품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사위원 총평 -



요리학원 졸업식 (1959년) 임 송 자

출품인에 의하면 1959년도 지금의 대승당 약국자리에서 몇 개월 정도 운영하던 요리학원의 졸업식 사진이라고 한다. (사진 오른쪽 아이가 출품인) 졸업식답게 단정한 한복을 입은 모습과 다양한 요리를 전시하듯 사진을 찍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1959년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속초가 도시로 정착되기 시작한 즈음이다. 이 사진은 그 시절 속초시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출품인 임송자님은 이 작품 외에 총 37작품을 제출하였는데 50~60년대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사진으로 그 자체의 완성도도 높았다. 본선에 오른 출품인의 작품 중 이 사진은 시기와 이야기성, 가치성에서 고루 인정을 받았다.



오씨네 약방 가족사진 (1942) 오 병 옥

황해도 해주 오씨 일가의 가족사진으로 1942년 작이다. 사진 왼쪽의 정장을 입은 분이 출판인의 아버지이고 그 옆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어머니이다. 출판인의 가족은 할아버지가 황해도 해주에서 약방을 운영하다 강원도로 넘어와 대포에 자리잡으며 약방을 운영했다고 한다. 1940년대 사진으로는 처음으로 3대가 함께 있는 모습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소풍가던 날 (1972년) 이 민 호

초등학교 입학 후 첫 소풍을 영랑호로 갔다. 누나 손에 이끌려 기념사진을 찍다보니 가운데 주인공의 얼굴이 어색하다. 영랑호 소풍의 추억은 동시대 속초사람들 모두 공유하는 추억이다. 장릉사진 공모전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출품하는 속초의 장소가 영랑호이다. 이 사진은 그 중 선착장과 피라솔, 목선이 함께 사진에 찍혀 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는 점이 돋보였다.



와! 명태다 (1981년) 이 건 춘

지금은 사라진 명태는 속초와 가장 밀접한 생선이다. 사진 속 주인공은 갯배를 타고 청호동 명태잡이 어선의 출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나들이 옷과 수북이 쌓인 명태의 모습이 이질적이면서도 친근하다. 심사위원들은 그 모습에 점수를 주었다.



수업을 끝내고 친구들과 (1967년) 이 애 자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방과 후에 영랑호를 찾아 배를 타고 저마다 폼을 잡고 찍은 사진. 이 사진의 특이한 점은 보통의 나룻배가 아니라 갯배처럼 생긴 배의 모습이다. 심사위원에 따르면 이 배는 잠깐 사용되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부모님 결혼식 (1956년) 조경용

1956년 피난을 내려온 부모님이 청호동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찍은 기념사진.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만들어가던 실향민의 모습이다.



스케이트를 타고 (1973년) 최 미 자

영랑호가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던 겨울의 어느 날. 지금의 동진오피스텔 옆 공터의 모습으로 멀리 공동주택과 낮은 구릉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부둣가 옆에서 (1967년) 한 종 섭

청학동 부둣가 HID 옆에서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멀리 청호동이 보이고 철조망의 모습이 군사기지였음을 보여준다.

기획

“도시재생”

추용욱

-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속초시 지원방향

염기명

- 도시재생, 문화재생 그리고 창의적 재생

편집부

- 문화로 채우고, 도시를 걸어라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속초시 추진방향

추 용 옥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1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경제적인 재활성화를 해서 사회를 통합시키자는 것이 재생의 큰 관점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제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법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 체계에서 법이 가지고 있는 권리, 제어 수단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필요하다. 법이 만들어질 때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3년 6월에 제정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사업을 할 때 예산 수립과 대상지 선정, 추진 절차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됐고 시행령과 기타 지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지게 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국가가 재생의 기본 방침을 정하다보니, 지자체나 광역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이 어땀어땀한 사업을 한다 정도만 알고 있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략계획에 대해 승인하는 그런 역할만 가지고 있었다. 근데 뉴딜과 함께 약간씩 변경이 되었다.

어쨌든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

립한다. 쉽게 말하면 전략계획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기본 방향에 대한 구상을 하는 거다. 만약 속초시라면 청호동, 영랑호 이런 쪽에 우리 재생사업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기본 구상을 하는 거다. 활성화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들을 더 수립하는 거다. 청초호 해수욕장 앞에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자,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분을 개선해서 활용해 보자는 일시적인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재생사업이 시작된다. 기존에는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이렇게 2가지가 있었다. 경제기반형은 사업비가 약 250억 사업기간 5년 정도, 인구가 50만 이상이어서 강원도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근린재생의 경우에는 일반형과 소규모형이 나뉘어 있었다. 속초가 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에 일반지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선정되었다. 전국적으로는 공식적으로 46개의 사업 대상이 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13곳, 2016년에는 도시재생 일반사업이라고 해서 33곳 해서 총 46개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도시재생 강원도 선정을 위한 1차 평가가 끝나고 현장 평가 진행중이다. 올해는 70개소가 선정되는데 광역도에서 4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중 강원도 지분은 3곳 그리고 전국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받아들 수 있는 개소수가 2곳 정도 해서 올해 잘하면 5곳 정도 예상한다.

뉴딜 사업 전에도 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었다. 태백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느끼는 바가 있었다. 주민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하는데 3년 정도 지나야 재생사업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순천은 2011년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주민 모임을 가졌다. 주거환경개발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민참여가 활발해진 점이 인상 깊었다. 문화원, 사회단체, 언론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의견이 나오면서 엑스포, 순천만 사업, 국가정원 같은 사업이 같이 상승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대한 전략계획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 자체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한 아이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북 군산은 근대 역사의 시설을 잘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주민조직의 자발적 움직임과 교육이 중요했다. 도시재생 주민학교, 대학원 이런 형태의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 주민에게 전문가 분들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13개 선도지역 중 용역사의 힘을 빌지 않고 제안서를 쓴 곳이 군산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속초가 아쉬워서다. 2013년 속초도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서를 보니 개념에 대한 이해나 재생사업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지 않았다. 재개발, 재건축 또는 양적개발 대도시형개발, 편리한 개발 이런 위주로 사업을 하던 관성이 남아있었다. 재생사업에서 요구하는 낙후되고 쇠퇴한 곳의 재창조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그러나 아이템은 괜찮았기에 계속 추진할거라 생각했지만 올해도 제안서가 오지 않았다.

2

올해부터 뉴딜사업이 시작되었다. 처음 1년에 10조씩 해서 500조 엄청난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아직 안된다. 올해는 1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4월에 공약 사업 TFT 만들고, 핵심사업에 대한 선정 절차를 발표하고 의견수렴 이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11월 23일 2차평가, 12월 13일 최종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처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나왔을 때 기존 뉴딜사업을 조금 변경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다. 도시재생의 15개 모델사업을 만들고 지역에서 이 사업 테두리와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자유스럽고 창의적으로 개발해오자는 사향이였다. 저는 이것이 좋았다. 재생사업이 판에 박힌 유형에 따라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유연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고민이 되었다. 문제는 법이기 때문이다. 뉴딜사업을 어느 법에 맞출 것인가의 고민이다.

지금은 5가지 사업유형이 나왔다. 주거정비부터 일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이 네 가지 사업의 유형은 도시재생 특별법으로 지원받는다.

다. 그리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균형발전 핵심법으로 1차적으로 올해까지는 이렇게 받고 내년부터 특별법상으로 지원받는다. 경제기반형을 비롯해 중심 시가지형이나 일반근린형 모두 면적이 작아졌고 인구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지금 경제기반형으로 7개 지역이 사업을 하고 있다. 경제기반형은 광역도 중심으로 인구가 적어도 60, 7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하고 있다. 그런 도시는 사람도 많고 인구도 풍부한테 경제기반형 사업을 하면 더 잘 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젠트리피케이션, 님비현상 등의 원인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나누기 시작했다. 올해는 크게 다섯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의 15가지 아이템을 다시 57개의 단위 사업으로 나눴다는 점이다. 단위 사업으로 다시 나눈 것을 각각 사업에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침을 제안한 것이다.

자료를 보면 전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문재인 정부가 28일 발표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5대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전체 500곳의 50% 이상)	주거 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신설	신설	규모 축소	규모 축소	규모 축소
면적 5만㎡ 이하	5만~10만㎡	10만~15만㎡(기존 50만㎡)	20만㎡(기존 88만㎡)	50만㎡(기존 400만㎡)
대상 지역 기반 시설은 양호한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 지역	주요 뉴타운 해제지 지역	골목 상권과 주거지 혼재 지역	구도심 중심 상업 지역	역세권·산업단지· 항만 등이 있는 지역
주요 내용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 밀착형 공동 시설 설치	도로 정비와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노인 또는 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제공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	복합 지식산업 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한 개발 등

※5만㎡는 약 1000가구가 거주하는 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의 70%를 광역도가 선정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를 이뤘다. 평가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타당성은 물론 동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과 국정과제인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활성화 등도 평가의 대상이다. 이러한 사업제안이 들어간 것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깊이가 부족한 점도 사실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지역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 공무원들이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시지만 텍스트로 치시기에는 힘든 점이 있어서 전문기관, 전문업체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지역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부족하다.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알고 사업의 전체 구상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거버넌스의 구축

이다. 지자체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는데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단체장 직속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환경/문화/복지/산업/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현장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계획수립과 주민의견 조정, 전문가 육성, 마을기업 창업, 주민참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지원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주민 및 상인협의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민관협의체 운영 등 주민과 전문가, 행정의 거버넌스를 위한 과정 자체를 중요시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방지방협약을 맺는 사례도 있다. 상가 소유자들이 최소 20년, 최장 50년 이렇게 적극적인 임대 계약을 맺어 상인들이 내몰리지 않게 하는 자치구도 있다.

3

튼금없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이 있어야 하고 문화적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아닌 이상 역사적인 기록이나 머릿속의 잔상, 추억 이런 것을 건드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의 매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보통 디자인 이야기를 하면 광고물이나 건물 등의 디자인을 생각할 수 있는 있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 행동 이런 것이 모두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건설과 개발의 성장주도 시대에서 재생과 창조가 성장을 지원하는 시대로 오면서 디자인과 문화적 재생이 중요해졌다.

디자인과 지역의 문화가 결합된 재생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이게 속초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사례를 통해 지역을 새롭게 상상할 수는 있을 것이다. 먼저 영국의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는 주거공간과 연계한 건축설계로 성공한 사례이다. 유희지로 방치된 지역을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친환경 주거단지로 만들었다. 특히,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 설계과정부터 주민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다양한 소득층의 입주민을 적절히 섞으면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네덜란드의 <오티로 전원마을>의 경우 ‘고흐’의 그림을 집집마다 전시하면서 지역정체성과 이미지를 확실하게 제시했다. <마르크탈 로테르담>은 말발굽 모양의 거대한 터널형태 재래 시장인데 시장과 레저, 주거, 편의 등 상이한

기능들이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공공복합 빌딩이다. 스페인의 <메트로폴 파라솔>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그늘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디자인과 건축이 접목된 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속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실향민 문화 등의 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변화의 과정에서 정체성이나 매력성을 상실하고 있기도 하다. 도시재생 사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적 재생의 방향을 찾기 바란다.

* 위 원고는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전문가 포럼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문화재생 그리고 창의적 재생

염기명 (도시문화공작소 오리진 대표)

1. 도시재생의 이해

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최근 신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 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

도시재생뉴딜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사업비를 타내기

위해 약간의 과열 현상을 빚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조차 도시재생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맹점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적 측면 등 종합적인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가, 지방정부, 건설사, 전문가가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주민 참여사업이다.

도시재개발	도시 재생
토지 건물 소유자 중심 (개발이익의 관심)	주체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자력기반 확보 및 지역활성화에 관심)
수익성 있는 토지	대상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의 자원이 필요한 쇠퇴지역
물리적 환경 정비 (주택 또는 기반 시설)	방식 종합적 기능 개선 및 활성화 (사회, 경제, 문화, 물리환경 등)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 정비 ▷건축물 리모델링 ▷첨단산업단지 조성 ▷역사적 경관 보전·복원 등 다양한 방법이 이에 포함된다. 도시재생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영국으로 런던의 도클랜드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사업은 도시재생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6~2007년부터 도심재생을 위한 조치로 전국 주요도시에 41개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 종로구·중구 세운상가, 대전 동구 대전역세권, 대구 동구 동대구역세권, 부산 영도구 영도 제1지구 등 7개를 시범 지구로 선정했다. 이들 시범 지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회복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2. 추진배경

도시재생이란 과거의 토지건물 소유자 중심의 재개발 형태가 아니라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개발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던 것이다.

이것은 개발 이익 중심에서 지역 공동체에게 자력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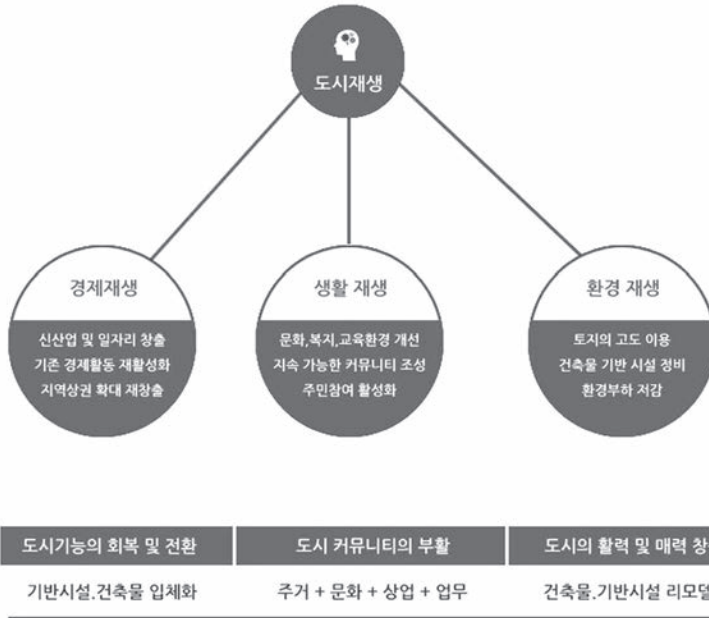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역량 강화 및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등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 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후도시 → 건축물 노후화 기반시설 노후 → 지역경제 침체 → 지역 슬럼화 →

낙후도시



3. 정책방향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우리 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주거정비 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 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 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엔지니어링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표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5대 유형이다.

정부가 예시한 5대 유형을 기반으로 속초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장황설을 늘어놓는 것보다 용이할 것 같아 몇 지역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4. 속초시 도시재생 정책 방안

1. 우리 동네 살리기

금호동, 동명동 등 주민 공동 시설, 마을 주차장, 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국공유지 활용, 유희부지 매입 등을 통해 생활 편의 시설을 공급한다.

(예) <일본 고베 노후주택지 개선사업>

노후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전면철거가 아닌 생활 환경 정비, 담장 허물기, 마을 소공원 만들기, 마을 공공 주차장 만들기, 마을 내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만들기 등으로 주민들 간 소통과 유대 강화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마을 주민공동체 자존감을 회복 시켰다.



2. 주거 정비 지원형

조양동 새마을, 영랑동 등 주거지 노후화가 심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원활한 주택 개량을 위해

골목 정비 등 소규모 주택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편의 시설의 공급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한다.

(예) <일본 도쿄 가쿠라자카 거리>

가쿠라자카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인들은 가쿠라자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풍광을 지키는 데서부터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를 시작했다. 골목길을 에도 시대의 모습대로 보존하는 한편 전통 가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자본의 개발 압력에 대항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물의 신축을 막지 않았다. 가로외 풍광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축 건물의 높이를 31m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상인들 간 합의를 통해 제안된 가쿠라자카 마을 만들기 협정은 신



주쿠구의 지구계획에 포함돼 이제는 어느 정도 강제성도 띠게 됐다. 가쿠라자카의 마을 만들기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3. 일반 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예) <헝가리 카사르나 카를린>

1840년 프라하 방위군이 썼던 병영이 올해 프라하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여름 쉼터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사무실로 쓰였고 1969년 소련 침공 이후엔 반소련 라디오 방송기지로 쓰인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건물이다. 1990년 이후 방치되었던 이 건물은 올 여름 프라하시민들에 공개되었다. 과거 연병장이었던 공간에 작은 바와 푸드 트럭을 설치하고 비치체어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여지고 두 개의 커다란 모래판을 마련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밤마다 대형 스크린에선 영화가 상영된다. 평소에는 맥주 한잔을 즐기며 햇볕아래 한가로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에서 주말엔 무료 요가 클래스를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다목적 문화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예) <체코의 MEET FACTORY>

meat factory 정육점, 축산 공장이 아닌 meet factory 만남의 공장, 광장을 의미한다.

체코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 작가 데이빗 체르니(David Cerny)가 설립한 종합 아트 센터인 이곳은 1920년대 유리공장에서 다시 194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체코자동차 슈코다의 디젤 엔진 공장으로서 쓰였다.

그랬던 이곳이 2007년부터 갤러리, 공연장, 신진 아티스트를 위한 레지던스, 바 등이 들어섰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연중 내내 진행되는 복합 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독특히 해내고 있다.

프라하 외곽 고속도로와 철로 사이 교묘한 공간에 위치한 이곳은 여행자 난이도 상에 속하나 특유의 전위적 분위기에 힘입어 많은 프라하 시민들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4.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 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기능의 회복과 역사, 문화,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주요 단위 사업으로 빈 점포 활용사업, 특화가로 사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 문화 역사자원 발굴, 집객 시설 조성 사업 등으로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과 주민들이 공공 거점 시설 건립, 운영 등 재생사업의 참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 <테이트모던 미술관>

1981년 문을 닫은뱅크사이드 발전소를 개조하여 만든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2000년 5월 개관 이후 20세기 이후의 현대 미술품만을 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물 외벽은 벽돌로 된 직육면체이며, 모두 7층이다. 건물 한가운데 원래 발전소용으로 사용하던 높이 99m의 굴뚝이 솟아 있는데, 반투명 패널을 사용하여



밤이면 등대처럼 빛을 내도록 개조해 템즈 강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고 쓸모없는 곳을 개조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도시재생’의 효시라 불리기도 한 이 미술관은 뉴욕의 MoMA와 더불어 현대미술의 중심이 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기타) <필자의 개인적 제안>

1) 구 속초수협 미술관 및 복합예술관 설립, 수변 공원 조성, 칠성조선소까지 이어지는 호변 산책로 및 카페거리 조성(도시재생 뉴딜 중심시가지사업)

2) 외용치에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코워킹 플레이스 건립, 조양동 새마을에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내·외국인 임대주택 단지 건설(도시재생 뉴딜 일반 근린형)

5. 문화재생, 창조적 재생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 당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미술관 건축을 반대했다.

지역민들은 문화적 의의에 포함된 경제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술 단체들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밀려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자 곳



곳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스페인의 다른 도시들은 빌바오를 가르켜 ‘바보도시’라고 부를 정도였지만 빌바오시는 처음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미술관 건립을 진행했다. 미술관 건립에는 당초 예산의 1400%에 달하는 건축 비용이 들었다. 총 투자액 1억3천2백22만 유로 중 미술관 건립과 미술관 주변 조정비용으로 8천4백14만 유로가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중 1천2백2십만 유로는 수 집품들이 빌바오를 통해 순회될 수 있도록 재단에 기부됐다. 그러자 지역민들의 예상과 달리 빌바오 미술관은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였고 관광도시, 문화도시의 명성도 다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개관 첫 해 동안에만 40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다음 해에는 약 4500개의 회사가 생겨났다. 결국 빌바오시의 계획은 문화에 투자하는 것이 과거 산업혁명에서 얻었던 만큼의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예시가 된다.

성공한 창조적 도시에는 세가지 공통점이 있다. 상상력, 창조적 생산 시스템 그리고 리더십이 그것이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지역의 운명적 진로를 따르지 않고 개방된 시각과 도전의식, 전략적 사고, 명확한 장기목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성을 활용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능력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어떠한 프로젝트에 임할 때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인다.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한다. 이미 위의 기술된 많은 예시에는 예술가와 문화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선 문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문화를 알아야 경제적 고부가 가치를 창조

할 수 있고 문화의 경쟁력이 도시 성장을 좌우한다. 우리 속초시는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전국 제1의 관광도시가 되었다. 모두에게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관광주민을 위한 인프라만 지나치게 신경쓰다보니 정작 정주주민의 삶의 질에는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도 내에서 미술관 하나 없는 유일한 도시이며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창조도시란 브랜드를 얻을 수 없다.

이제 우리 도시도 여러 창조도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시 재생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1. 본문의 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참고하였음.
2. 세계의 도시재생 사례는 인터넷 정보를 참조하였음.

문화로 채우고, 도시를 걸어라

- '문화비축기지', '서울로 7017' 탐방기

편집부

도시재생 열풍이 거세다. 도시재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간적, 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속초문화원은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추용욱/강원연구원 연구위원)를 초청하여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속초시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펼쳤다. 향토사 연구소 위원과 문화예술계,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월 16일에는 향토사 연

구위원 등 20명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했다.

석유 대신 문화를 비축하라 <마포 문화비축기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 매봉산에 위치한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석유비축기지가 있던 곳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개선한 시설이다. 1973년 석유과동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정부는 당시 서울시민의 한달 사용량 석유를 5개의 탱크에 채웠다. 22년간 철통보안 속에서 비상 석유를 보관했던 기지는 한일월드컵을 앞둔 2000년 안정상의 이유로 폐쇄되었다. 2013

년 석유비축기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였고, 이후 국제현상 공모 당선작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바탕으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설계자문위원회와 시민 기획단인 탐험단을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설계과정에 반영하여 2015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새로운 도시재생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 때문에 문화비축기지는 을씨년스 러웠다. 하지만 주말이면 입소문때문인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한다. 주차를 한 후 입구에 있는 안내동에 들러 전체 구조를 파악한 후 둘러보면 좋다. 각각의 공간은 T0부터 T6까지 이름을 물려받았다. 기존의 5개 탱크는 공연장, 전시장으로 탈바꿈하였고 새롭게 신축한 1개의 탱크는 커뮤니티센터로, 임시 주차장이던 넓은 야외공간은 문화마당으로 바뀌었다.

가장 작은 탱크였던 T1은 전시와 워크숍을 할 수 있는 파빌리온으로 조성하였다. 밤에는 별을 관찰할 수도 있다고 한다. 방문당시는 <미래기지>라는 주제의 전시가 열렸다. 입구에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원형극장같은 공간이 나온다. T2라고 불리는 이곳은 휴게쉼터이자 공연장으로 사용한

다. 그 옆에는 T3가 있다. 5개의 탱크 가운데 유일하게 탱크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곳이다. 과거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하다보면 세계적인 유적지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T4는 복합문화공간으로 15m 높이의 기존 탱크를 그대로 살린 복합문화공간이다. 전시와 퍼포먼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T5는 1970년대 석유비축기지 시절부터 문화비축기지까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새로 지은 T6은 T1과 T2를 해체하며 나온 철관을 재활용해 외관에 부착한 신축 건물로 강의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한다.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지는 경사로는 전시, 아카이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간 전체를 둘러보고 나온 후 주차장 입구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을 발견했다. 마포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이라고 한다. 아직 제대로 입점되



<문화비축기지>는 과거의 산업유산과 새로운 건축양식의 조화를 통해 시민중심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어 운영되지는 못하지만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며 다양한 실험을 추진한다고 한다. 문화비축기지는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을 연결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다.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를 나와 30분 정도 이동하여 〈문화역 서울 284〉로 갔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에 세워진 철도역사로 서울을 대표하는 철도역이었다. 지난 2003년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면서 사용이 중지되었고 2011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개방되었다. 이곳에서 열리는 전시는 대부분 무료이다. 방문 당시는 새공공디자인에 관한 전시 ‘안녕, 낯선 사람’이 개최되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표현한 전시는 일반인에게 어려운 접근이었지만 문화향유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문화역 서울을 빠져나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서울로 7017〉이다. 국내 최초의 고가 보행로로 2017년 5월 20일 첫선을 보인 공간이다.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은 서울역 고가가 만들어진 1970년도와 보행길로 탈바꿈한 2017년, 고가와 이어지는 17개의 길을 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는 2015년 서울역 고가를 전면 폐쇄한 뒤 2년간 공사를 진행했다.



〈문화역 서울 284〉의 외관.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시민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만드는 기획은 도시재생의 기본인 듯 싶다. 이곳에서는 연중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1970년 개통된 서울역 고가는 2013년 재난위험등급 최하점인 D등급을 받아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원화 계획을 들고 나오면서 공중정원으로 거듭났다. 이후 2015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네덜란드의 건축가 위니마스가 설계자로 선정돼 공사가 진행됐다. 서울로 7017에는 관광안내소 및 카페부터 목련무대, 달팽이극장, 장미무대, 방방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쉬고 거닐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645개의 원형화분에 총 228종의 24,085주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한 아름다운 공중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전에 서울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도보관광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서울로 7017과 함께 서울역 일대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관광명소를 서울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으며 탐방하는 체험도 이용할 수 있다.



11월의 '서울로'는 화려한 꽃이 지고, 무성한 나뭇잎도 모두 떨어져 서늘한 모습이 강했다. 하지만 빌딩 숲과 송례문 등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며 걷는 재미는 서울에서 느껴보지 못한 경험이었다. 화단 곳곳에 새겨진 '문구'는 단순한 도보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체험과 의미

를 담으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서울로 잇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중림동과 만리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중림만리축제'를 개최했다. 사라질 수도 있었던 고가도로가 시민을 위한 보행도로로 바뀌고, 그 주변의 마을공간에서 지역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주민 참여 축제가 펼쳐지는 것이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낡은 공간의 리모델링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공간창출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주민 중심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획이었다.



〈서울로 7017〉은 친환경 보행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645개의 원형화분에 총 228종 24,085주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였다. 또한, 장미무대, 방방놀이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전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했다.

속초문화원의 주요사업

• 향토문화 연구 및 활동기능 강화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
- 향토사연구소의 활발한 활동 및 기능 확대

• 사회 교육 사업

- 실질적인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육 기회 마련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속초의 뿌리 교육 정착

• 정보화 세대의 흐름에 부합된 문화 DB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지털화 변환
-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DB 연계 구축

• 속초시의 종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정립

- 속초시 각종 행사에 속초 전통문화 공연 기획
- 다양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실버문화종합기관 구축

• 속초의 문화 재조명

- 속초시사 홈페이지 체계적 관리
- 속초북청사자놀이 전승 및 보존
- 속초도농문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체계적 전승
- 실향민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존 및 전승
-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기억+기록”

도시변천사

이춘복

— 우리 고장 역사 바로 알기

정상철

— 속초는 뿌리가 없는 도시일까?

장재환

— 강춘화 여사와 속초의 수산업



우리 고장 역사 바로 알기

이 춘 북 (설악신문사 이사)

금장대(金將臺)와 영랑정(永郎亭)

영랑호의 남쪽에 커다란 바위 여러 개가 엉켜 있는 곳이 있다.

그 바위를 범바위라 부른다. 범바위는 영랑호 건너편에서 바라보면 흡사 범의 얼굴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범바위 바로 동쪽에 금장대란 정자각이 있었다. 6.25 전쟁 때 이 지방의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11사단장 김병휘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각이다.

6각형의 정자각으로 ‘금장대’란 이름은 김병휘 장군의 이름에서 가져 온 것이라고 『속초시지』 1251쪽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 금장대는 세월이 흐르면서 잘 관리가 되지 않아, 1963년 필자가 속초고 2학년 시절 찍은 사진을 확인해 보니 정자각의 기와들이 일부 훼손되고 정자각 난간도 부식돼 떨어져도 보수되지 않고 있었다. 금장대 뒤의 커다란 바위에는 여러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네 글자가 있다. 남북통일(南北統一)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금장대 건립 당시에 새겨진 것이라 생각되며, 금장대 건립 당시가 군정시대였으니 남북통일의 염원이 컸던 시대상황을 엿볼 수 있다

6.25 전쟁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정자각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세월이 가면서 퇴락돼 철거를

하게 되었다. 철거된 이후 전쟁의 아픈 역사가 있는 금장대를 복원하고 다음과 같은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조선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영랑호에 옛 정자 터가 있는데 여기가 영랑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라는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永郎湖 在都南五十里 周三十里 汀回渚曲 巖石奇怪 湖東小峰 半入湖心 有古亭基 是永朗仙徒 遊賞之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5 杆城 山川條>

(영랑호 재도남오십리 주삼십리 정회저곡 암석기괴 호동소봉 반입호심 유고정기 시영랑선도 유상지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 산천조>

이를 근거로 하여 속초시에서는 영랑호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옛 금장대 터에 전통양식의 정자 복원을 결정 2005년 9월 5일 착공하여 2005년 11월 25일 신축 준공하였고 정자각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하여 역사적 근거가 확실하고 지역성이 가미된 ‘영랑정(永郎亭)’으로 명명하였다.

2005년 12월 14일 속초시장

위의 안내판에 기록한 역사적으로 확실한 근거로 제시한 원전을 해석해 보면 ‘영랑호는 간성에서 오십 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호수둘레가 30리가 되며 돌아가는 호숫가 강둑이 굽어진 곳에 기암괴석이 있는 호수의 동쪽 작은 봉이 호수에 반쯤 잠긴 그곳에 예전에 정자각 터가 있었는데 영랑 등 화랑도들이 노니며 즐기던 곳이다’란 내용

이다.

위에 제시한 원전 해석을 살펴보면 영랑정이 있어야 할 곳은 범바위가 있는 곳이 아닌 현재 ‘통천군순국동지충혼비’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원전의 호동소봉(湖東小峰)의 해석에서 영랑호의 동쪽과 남쪽을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범바위는 영랑호의 남쪽이라는 것이다. 『속초시지』에도 범바위는 영랑호 남쪽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반입호심(半入湖心)이라는 기록이다. 기암기석이 호수에 반이 들어가는 지형은 ‘통천군순국동지충혼비’와 이형근 덕정비가 있는 곳이다. 이는 1970년에 필자가 촬영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혼비와 덕정비 뒤에 바위들이 늘어서 호수에 일부가 잠겨 있다. 지금은 호수둘레길을 정비하면서 모두 매립돼 확인이 불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영랑호 지형을 호수둘레길 조성 전 사진들을 관찰해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필자가 소장한 사진이나 속초시가 소장한 사진을 살펴보면, 영랑호 둘레길이 정비되기 전에는 ‘통천군순국동지충혼비’가 있는 곳은 기암들이 있었으며, 지금의 의료원과 보광사 사이 기암들 사이로 넘어 다닐 만큼의 높은 지대가 있었다. 원전의 호동소봉(湖東小峰)은 이걸 두고 표현한 것이다. 이곳은 영랑호수가 불어나면 일부가 잠기고 갈수기에는 바위가 들어나는 곳이다.

이런 영랑호의 지형을 상세히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호동소봉(湖東小峰) 반입호심(半入湖心)은 당시의 영랑호 지형 표현 기록으로 정확하였다.



永郎湖畔 (靈禱台)

영랑호의 지형에 대한 증대하고 확실한 근거의 원전을 찾아내었으면서도 퇴락한 금장대를 복원하려고 관여한 분들이 영랑호의 본래의 상세한 지형에 대하여 간과한 실수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해석으로 ‘금장대’가 ‘영랑정’으로 된 부분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즉, 영랑호 동쪽에 있어야 할 ‘영랑정’이 호수의 남쪽인 범바위에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올바른 속초역사 기록을 위하여 독자 여러분이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설악산 비선대 앞 미륵봉과 장군봉

설악산 외설악에서 가장 산행하기가 편한 곳이 비선대다. 비선대는 아마도 설악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곳일 것이다.

비선대는 가기가 편하다. 천천히 구두를 신고도 갈 수 있는 곳이다. 맑고 마르지 않는 물줄기와 넓은 바위 그리고 우뚝 솟은 바위봉우리가 있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비선대 넓은 바위 위에는 한문으로 비선대라고

각인된 글씨가 있다.

이 글씨를 쓴 이를 양양군과 고성군은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양양읍지』에는 당시 양양현감이었던 윤순의 필체라 하였고, 고성군 『수성의 맥』(고성군문화원 발행)에서는 설악산의 비선대, 대송폭포의 구천은하, 무릉계의 무릉중대, '두타산 원천석동천' 등이 양사언의 필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바위에 각인된 비선대 글씨가 많은 풍우와 사람들의 발길로 많이 엷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비선대에서 북쪽으로 올라다 보면 높은 봉우리가 있다. 그 봉우리를 예전에는 미륵봉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문헌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럼 문헌 속의 글을 보자.

'비선대 앞에 높이 솟아있는 돌 봉우리가 있다. 이 봉우리를 '미륵봉'이라 한다. '미륵봉' 중간 허리에 큰 석굴이 있다. 이를 금강굴이라 한다.'(1982년 5월 1일 속초시 발행 『설악의 뿌리』 125 쪽 7줄)

속초문화원 발행 『속초문화』 제3호(1987년 1월 10일 발행 66쪽)에는 '비선대 앞에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가 있다. 이 봉우리를 '미륵봉'이라 한다.'(당시 신흥사 주지 김해법)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 '미륵봉'이 '미륵봉, 일명 장군봉'이라 기록된 것은 1991년 10월 1일 발행한 『속초시지』 1275쪽 설악산 봉(峰)에 대한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시작된 것 같다. '미륵봉': 비선대 바로 북쪽에 높이 솟은 큰 돌산. 마치 미륵불처럼 우뚝 솟아 있다고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짐. 또는 장군의 형상이라 하여 '장군봉'이라고도 한다. 중턱에 금강굴이 뚫려져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명칭의 오류를 범하고 만 것이다. 처음에 기술된 것이

불교 용어여서인지는 몰라도 당초에 그렇게 붙여지고 속초시 발행의 1982년 『설악의 뿌리』 책자에서도 이미 미륵봉이었고, 1987년 발행의 『속초문화』 제3호에서도 미륵봉으로만 기술되어 있었다면 『속초시지』에서도 그렇게 기술되어야 함에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왜곡 기술함으로 인하여 명칭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고장이 옛날부터 임꺽정 같은 인물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태어난 고장이라서 그런 분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면, 미륵봉으로 붙여지기 전에 장군봉이라 먼저 붙였을 것이다

계조암에서 원효, 의상 같은 분들이 이미 당시에 수도하였고 금강굴에도 수도하였을 것이라면 아마 당시부터 미륵봉으로 붙여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어쨌든 이미 속초시에서 발행한 『설악의 뿌리』에 미륵봉만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미륵봉만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비선대 앞 높은 봉우리를 '미륵봉 일명 장군봉'이라 함은 속초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설악의 뿌리』와 『속초문화』 제3호의 내용을 부정하게 만들기에 더욱 더 그 모순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바로 잡아 후세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설악산 여러 곳의 이름 가운데 불교 용어의 명칭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당초 설악산 등산로를 개척할 당시의 많은 분들이 금강산을 다녔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차용하여 붙여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일례를 든다면 오행성에 근거한 토왕성폭포, 천당폭포, 문주담, 천불동계곡, 미륵봉, 달마봉 등등이 바로 불교의 용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시에 이름 붙여진 것은 이미 기록으로 문서화되었다면 아무렇게 자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선대의 '미륵봉 일명 장군봉'은 당초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륵봉'만으로 기록,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1958년 가을 속초국민학교 수학여행 때 비선대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1990년 전까지 비선대를 찾고 금강굴을 찾았을 때도 미륵봉으로만 알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문헌에 기록된 것을 어느 누가 왜 또 다른 이름을 첨가하였는가. 그것을 밝힐 자료가 없다면 본래의 이름으로 변경해 후세에 바른 역사로 남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 작명할 때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일명이라는 말로 명칭을 혼용한다면 천불동계곡의 아름다운 폭포인 천당폭포를 극락폭포라 하면 안 되는가 하였을 때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는가. 미륵봉뿐만 아니라 미륵봉과 함께하는 두 봉우리도 그 이름이 들쭉날쭉이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장군봉-형제봉-적벽으로 되었다가 장군봉-형제봉-선녀봉으로 안내판이 변화되어 왔다. 왜 형제봉이며 적벽이 돼서 선녀봉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

비선대 앞 높이 솟은 봉, 세봉을 이름 붙인다면 '미륵봉-선녀봉-형제봉'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유는 미륵봉은 이미 이야기 했고, 선녀봉은 가운데 바위 형상을 보면 가운데에 마고선녀 같은 분의 상반신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형제봉은 그동안 적벽, 선녀봉으로 불리었기에 두 봉이 겹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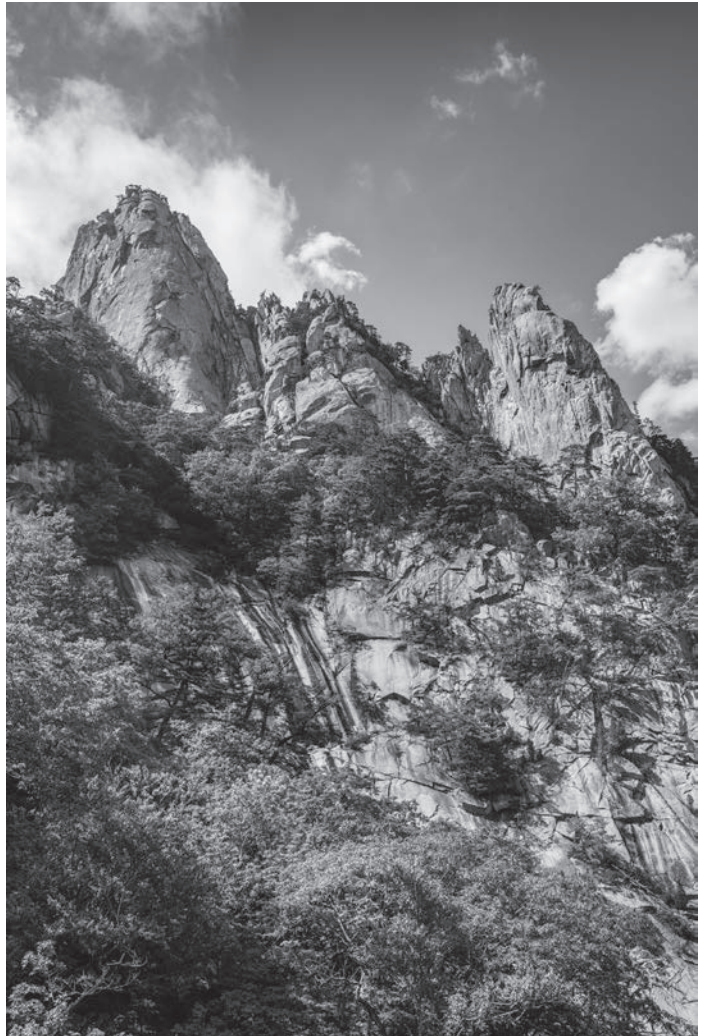


사진 속초사진작가협회 ©최희재

것 같아서 그렇게 붙여 보았다.

이미 붙여진 이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된다. 역사는 오늘의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오는 후세들의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를 남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힘 있는 자의 주장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미륵봉, 일명 장군봉'이 아니라 당초의 '미륵봉'으로만 기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속초는 뿌리가 없는 도시일까?

정 상 철 (속초문화원부설 속초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I. 속초는...

흔히들 속초(束草)는 뿌리가 없는 도시이며, 옛날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의 한 리(里, 속초리)에 불과했으며, 뿌리가 없다보니 전통문화가 없다고 한다. 지명(地名)만으로는 이런 이야기나 나올 만도 하다. 그저 속초하면 '실향민도시', '관광도시', '어업도시'라는 단어가 대표명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적 개념으로는 속초는 양양도호부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 지역 전체(1914년 이후 도천면으로 통합됨)를 아우르는 도시의 이름이다. 양양 고을의 하나의 리(里)에 불과했던 '속초리'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시절 속초항 개발과 활발한 수산업의 영향으로 빠르게 인구가 유입되어 당시 도천면의 대표 동네였던 '대포리'를 제치고 '속초리'의 '속초'가 이 지역의 대표명이 되었던 것이다.

1871년에 편찬된 『관동읍지(關東邑誌)』에 의하면 도문면, 소천면의 인구는 모두 1,207명인데 1925년 『국세조사보고(國稅調查報告)』에는 6,219명으로 1935년에는 8,967명으로 늘어났고, 1937년 속초항 개발 이후 1945년에는 12,450명으로 약 70여 년 전보다 약 10배가 넘게 늘어나게 되었다.

1958년 속초는 오징어와 명태 어획으로 인해 부산 다음으로 전국 2위의 어획고를 올리면

서 전국의 어부들이 속초로 몰려들어 1958년 31,435명, 1963년에 50,703명, 1973년에 74,484명으로 2000년 90,201명으로 인구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에 의해 시(市)로 승격되었으며, 1973년에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沙津里)가, 1983년에는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上福二里) 일부가 각각 속초시로 편입되어 현재의 속초시가 되었다.

II. 옛날 속초는...

우리나라 사학계가 문헌고증(文獻考證)을 통한 실증사학(實證史學)이다 보니 각종 문헌이 부족한 지역, 특히 속초로서는 발굴된 각종 유물을 통해 그 역사를 기늩해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속초시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선 그 옛날 양양군 도천면과 소천면 지역의 각 시대별로 전반적인 역사의 흔적을 통해 개략적이거나 알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1. 신석기시대 ~ 철기시대

우선 속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이다. 청호동 00아파트 건설부지 발굴조사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층과 철기시대~삼국시대 주거지를 발굴하는데, 약 15,000년~10,000년 전 사이에 해당하는 후기구석기시



1992년 조양동 선사유적지 발굴 당시 모습



선형동부(부채꼴청동도끼)

대 유물 5,000여 점이 출토되었으며, 그 문화층은 고속버스터미널 앞 7번국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포동 외옹치에 00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신석기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기원전 5,500년경으로 추정되는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양양 오산리 유적(사적 제394호)', '고성 문암리 유적(사적 제426호)'과 유사한 문화상을 지닌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다음 청동기시대의 거주흔적은 조양동 선사유적지(기원전 7-8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부채꼴 모양의 '청동도끼'는 '선형동부(扇形銅斧)'라 불리는데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예가 없어 이 지역 선사 문화 연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3호 집자리에서 출토된 '굽손잡이 그릇'은 우리나라 동북지방의 신석기시대 말기 유적인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에서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말과 청동기시대 초기에 있어서 동북지방과 강원 영동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에 수많은 선사유적이 있지만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

나 아니냐에 따라 국가사적(國家史蹟)으로 지정되는데, 조양동 선사유적은 '국가사적 제376호(1992.10.10)'로 지정되었다.

조양동 청대리, 장사동에서도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 구석기 유물이 출토된 청호동 00아파트 건설부지에서도 철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어 속초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 남북국시대(구.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기 '도문면'의 '도문(道門)'에 대한 명명설화(命名說話)가 있는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던 중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하여 지팡이를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도를 깨달아 이때부터 이곳을 도가 통하는 문이 열린 곳이라 해 '도문(道門)'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만큼 설악산을 위시한 이 지역이 불교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 자장율사(590년~658년)는 현재의 켄싱턴호텔 자리에 '향성사

(香城寺)를 창건하였다. 하지만 신라 효소왕 7년(698)에 모두 불타 버려, 효소왕 10년(701)에 의상대사가 능인암(현재의 내원암) 자리에 절을 다시 짓고 이름을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다. 선정사는 조선 인조 20년(1642)에 또다시 화재가 나서 완전히 소실되는데 이에 인조 22년(1644)에 영서(靈瑞), 혜원(惠元), 연옥(蓮玉) 등이 선정사 아래쪽에 절을 짓기 시작하여 1649년에 완성, 이름을 '신흥사(神興寺)'라 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지금은 '신흥사(新興寺)'이다.

또한 신라 화랑 중 '영랑(永郎)'이 우리 지역을 거쳐 금강산수행을 가다가 한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수일간 머물렀던 계기로 '영랑호(永郎湖)'라 이름 지어진 영랑호는 각 왕조를 거쳐 안축(고려), 정철(이하 조선), 허목, 송시열, 김창흡, 김시습, 채제공 등 유명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비들이 다녀가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3.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동명동에서 1113년(숙종6년) 전후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성터[일명 속초리 성지(東草里 城址)]가 발견되었고, 교동택지개발 시(1984년) 만천동의 한 고분에서 청자그릇(청자상감우점문완)과 청동 수저가 출토되었는데, 유물의 수준으로 보아 이 고분을 통해 이 지역의 세력가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충선왕 1년(1309)에 제작된 [삼일포매향비(三日浦埋香碑) 비문에는 '미륵이 하생(下生, 불보살이 천상계로부터 하계(下界)로 태어남)'을 위해 양양 덕산망(德山望, 지금의 외옹치)에 향나무 200그루를 심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노학동 무당골에는 고려 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학동 3층 석탑'이 있는데 1층 탑신에 '사방불(탑 4면에 새겨진 부처)'이 있다. 영동지방의 석탑 중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된 탑은 노학동 3층 석탑과 함께 양양 진전사지(陳田寺址) 삼층석탑, 강릉시립박물관 석탑재(石塔材)뿐이며 그 희귀성으로 인해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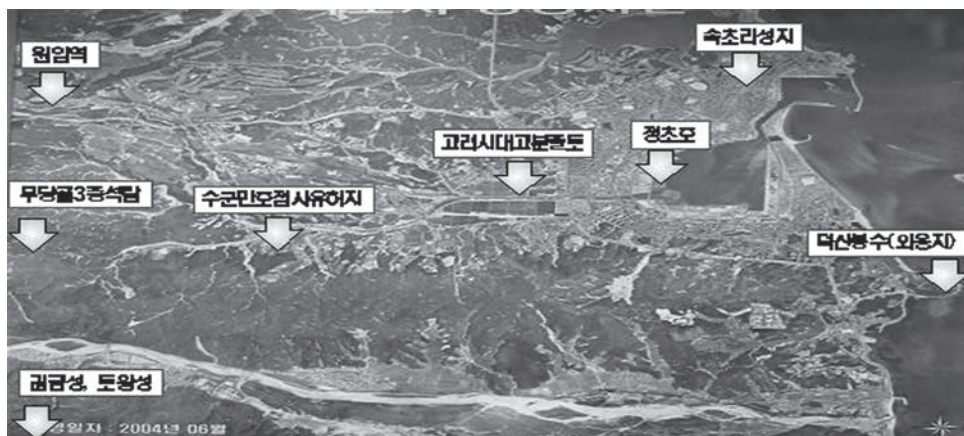
4.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 속초(東草)라는 지명이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 태종 6년 이전에 이 지역에 '속초포(東草浦)'라는 '수군만호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 정4품 만호가 다스리는 수군기지)'가 설치되어 '속초리 성지'와의 관련성과 더불어 외옹치에 설치된 덕산봉수(德山烽燧)와 함께 속초가 중요한 군사기지였음을 알 수 있다.

1675년 5월 25일 예송(禮訟)논쟁 책임으로 함경도 덕원(德源)으로 유배갔던 우암 송시열의 유배행렬은 장기(長鬚)로 이배되는 과정에서 장사동 고개를 넘어 영랑호 근처에 다다른다. 영랑호(永郎湖)의 경치에 매료되어, 근처 바위에 글자를 새기는데 영랑호(永郎湖)라 썼다. 이는 이후에 비를 피하기 위해 들린 물치촌(勿淄村)의 한 양인집의 기둥에 쓰여진 '물치주시(勿淄柱詩 - 우암을 조롱한 글, 인생무상)' 일화와도 연관된다. 이 이야기는 우암의 시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에도 전해진다.

이후 송시열 선생을 숭배한 물재(勿齋) 유희일(柳晦一)이 내물치리에 은둔하면서 생활하였으며, 양양유림은 '향현사(鄉賢祠)'라는 향사(鄉祠)를 지어 그를 추모하고 제사 지냈다.

1869년 동학의 제2교주 최시형은 양양에서 2년간 체류하면서 정력적으로 포교하였다. 그러



속초 문화유적 분포

나 양양지역에서 동학이 큰 세력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양양은 보수적인 곳이었고 당시 유림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동학전쟁 시 양양에서는 도문면 출신 이석범·이국범 형제가 민병(民兵)을 조직하여 흥천 내면 방면의 동학군을 공격하였다.

5.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시대 양양군의 3·1만세운동(1919년)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운동이었다. 당시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은 4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전개되었다.

만세운동 거사 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유학계의 거사 계획은 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의 이석범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석범은 보수 유학계의 지도자로 당시 중도문리에 '쌍천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이석범은 고종 황제의 인산에 참례하고 돌아오면서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동생 이국범, 아들 이능렬(李能烈, 재범)과 함께 쌍천학교 졸업생들을 시켜서 만세운동을 거행하게 하였다.

도천면 논산리에서도 약간의 시위가 있었다. 4월 4일부터 계속 만세 시위가 일어나 논산리에서도 시위에 대한 대의명분론(大義名分論)이 일어났다. 온 천지가 만세 시위에 참가하는 형편이어서 당시의 구장 김주철(金周哲)은 뜻있는 주민들과 함께 집집이 한 사람씩 동원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있던 대포리를 목적지로 하여 큰 길로 나아갔다. 큰길인 부월리를 거쳐 대포리로 가기 위해 부월리에 이르렀을 때 이미 도천면 사무소 회계서기 김우규(金宇圭)가 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김우규의 강력한 만류로 대포리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모두 해산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함에 따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에 인접한 '속초리'가 점점 커져서 1937년 7월에는 도천면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동시에 면(面)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뀌어, '속초'는 동리(洞里) 이름이면서 또한 면(面)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확대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10월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속초읍'이 되었다.

6. 광복이후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미·소 양군은 북위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였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속초 지역은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갔다.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간 속초지역은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무상몰수(無償沒收) 무상분배(無償分背)의 토지개혁을 위시한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반공(反共)인사들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반공 계몽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 ‘90인 사건’,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갈 전투’ 등 공산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무장활동을 벌였다.

III. 그런데 속초사람들이...

유물이야 운 좋게 출토되면 세상에 빛을 보는 것이지만,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속초지역에 세거하는 성씨의 족보자료를 보면 최초 1500여 년경부터 여러 성씨들이 이 지역에 세거하며 살았는데, 상도문리에는 해주오씨, 밀양박씨, 강릉박씨, 강릉김씨, 경주김씨, 함평이씨 등이, 하도문에는 연일정씨, 경주이씨 등이, 부월리에는 경주이씨, 제주고씨 등이, 논산리에는 진양진씨 등이, 청대리에는 단양장씨 등이, 노리에는 전주이씨, 연안차씨, 초계정씨, 진주강씨 등이 세습해 살아온 걸로 나타났다. 물론 일반 양인(良人)들도 성(姓)을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은 곧 양반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어느 지역이던 간에 한 지역에는 양반, 중인, 양인, 노비가 공존해 왔다. 평등의 시

대인 지금 너와 나의 조상의 신분이 무엇이었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4대 신분의 사람 모두가 이 지역의 역사를 가진 원주민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속초지역 원주민들의 한 맺힌 역사는 일제강점기, 인공치하(인공 : 인민공화국의 약자)를 거치면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우여곡절’이란 시대와 사상이 바뀌면서 ‘일부 지주(일부 양반과 일부 부자 양인)와 보통사람(일부 양인과 일부 소작농) 등 사이에서의 권력의 쟁탈’을 의미한다. 다만, 속초지역을 이끈 주도세력들의 이야기지 모든 속초주민이 쟁탈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속초지역 내의 몇 안 되는 지주(地主)들 중 일부가 면협위원(面協委員), 애국반(愛國班),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 등의 친일단체(親日團體)의 주체가 되어 일제와 동조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려왔다. 또한 속초에서는 유일하게 마을 전체가 일제에 동조한 곳도 있었는데, 동아일보 1937.09.14일자 기사에 따르면 ‘모리(某里) 부인회에서 일본의 태평양전쟁 준비 중인 1937년 09월에 자기 동네 남자들이 현금 하겠다고 노동하는 것을 보고 생산된 감자를 갈아 속초시장에 내다팔아 일본군의 중일전쟁 승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현금을 하였다고 하는데...’ 말이 좋아 마을 전체이지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친일과는 반대로 좌우연합 사회운동단체인 신간회(新幹會) 양양지회(襄陽支會)를 결성하여 기회주의 배격, 농민 의식개혁, 항일운동 진상규명 등을 통해 일제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양양지역 남쪽 현북면 기사문리 인근에 38선이 그어지면서 속초지역은 북조선의 인민정부에 예속되게 되었다. ‘호산 청



1950년대 속초 아바이마을 전경

년회', '양양 신청년동맹' 등의 조직단체가 결성되어 양양지역의 사회주의 전파에 적극적 활동을 보였다.

또 하나가 농민조합운동이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북한사회에는 적대적인 주민들이 양산되었는데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붉은 패'와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흰 패'이다. '흰 패'는 주로 지역의 유지들이었는데 이들은 서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물과 기름'처럼 대립하고 있었다. 모든 재산이 국유화되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미명하에 일부 농민과 소작농들이 주를 이룬 적색동맹(赤色同盟) 등의 '친인공 단체'가 주된 세력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동조하여 속초를 지배 하였던 일부 세력들은 숙청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타 지방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 이론가였던 양양 조산리 출신인 최용달(崔容達)은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에 참여하여 광복이 되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1948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기초하였을 정도로 양양지역의 사회주의 노선은 일제강점기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6.25) 발발 이후 1951년 7월부터 속초는 남한의 영토로 수복(收復)되어 미군 주도의 군정(軍政)이 실시되었다. 당시 인민위원장, 적색세포위원장, 농민동맹위원장 등 친인공 단체의 주역들은 북으로 도망가거나, 숙청당하고 6.25 전쟁기간 중 북조선의 위협을 피해 탈출한 조선민주당(朝鮮民主黨-1945년 11월 북한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우익정당), 청우당(靑友黨-천도교도로 이루어진 종교정당, 지금도 존재하며 현재는 북한 노동당의 우당역할을 함) 등의 반공인사나 주민들, 특히 함경도출신 위주의 피난민들이 청호동(靑湖洞) 지역에 일정한 집단 거주공간을 형성하면서, 무주공산(無主空山) 상태인 속초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남한과는 달리 중공업·수산업 등이 발달했던 북한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은 당시의 지식을 활용하여 속초의 중요산업, 행정, 교육, 상업 등 다방면에서 속초지역의 중심축이 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속초읍사무소의 직원, 사환 등이 되어 행정에 합류하고, 교사가 되어 교육계에 투신하고, 속초치안대에 합류하여 경찰력의 주축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속초는

현재 신탄민마을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신탄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미군정 시절이다. 당시 속초 주변에는 군수부대, 미군부대 및 한국군 부대 등 많은 부대들이 창설되었는데, 많은 노무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무 일을 지원하거나, 어업에 종사했거나 함경도 해안 지형에 익숙하기에 첩보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이세진(한국외대 교수, 도문동 출신)은 「1930~1950년대 수복지구 마을의 국민화 과정(속초시 A리·양양군 B리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석사논문(한국외대)을 발표했다.

IV. 속초의 전통은...

강원도 농산노동요로서 김매기 소리는 춘천, 삼척, 양양, 속초 일대에 전승되는데 그중 하나가 '도문 메나리농요'이다. 도문동과 노학동 지역은 도문평야와 소학평야가 있어 농업이 주를 이루는 마을이다. 추석 때가 되면 배나무골(지금의 노학동 도리원)에서는 '풍년놀이', '도리원 농악'과 만천동에서는 '광대놀이'를 하면서 달맞이를 하고 놀았다고 한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어망추나 뼈낚시, 묶음식 낚시, 창끝 등으로 미루어볼 때 속초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활발한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노동집약적 어업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산 노동요'이다. 장사동이나 대포동에는 '다리어', '에라솔 가래라솔', '베끼어라보자' 등의 노동요 후렴구가 아직까지 전승된다.

겨울에 청초호가 얼게 되면 그것을 보고 새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 있다. '용갈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청초호

는 바다와 연결되어 호수 밑에 사는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을 보고 물의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용이 얼음을 남쪽으로 갈아 놓거나 북판만 갈면 이듬해는 풍년, 북으로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면 평년작이라고 점친다. 이러한 용경풍속은 조선시대 읍지나 『동국세시기』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청초호는 지역 원주민들이 '논뒤희'라 불렀는데, '논뒤희'는 '논산리(論山里)'를 뜻하므로 '논산리 앞의 호수'라는 뜻이다. 전하는 말로는 조선 숙종 때부터 이 고을로 오는 수령을 위해 주민들이 경축행사로 논뒤희에 꽃배를 띄우고 놀았다고 하는데 '낙화유(落火遊)'라 부르는 불꽃놀이가 행해졌다고 한다.

대포동 외옹치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을 숭배와 함께 마을 입구에 세우는 '장승 세우기'와 성황제인 용신제(龍神祭)로 구성되어 부락제(部落祭)의 고유한 모습을 전승시킨 '외옹치 고틀이'라는 전통 민속행사가 있다.

그 밖에 '나룻배 싸움놀이'(지금의 청호동 갯배 나루는 30m뿐이 안 되지만 옛날의 만천동 나루는 북으로 영랑호, 남으로 청대리 싸릿재(싸리재)를 이어 도문동으로 연결되었으며, 동쪽으로는 대포동에 이르렀다.), '든대질 놀이'(배를 진수할 때 부르는 집단노동요), '좁생이 보기'(2월 6일에 좁생이라는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칩. 『열양세시기(沔陽歲時記)』에도 기록되어 있음) 등 수많은 전통과 세시풍속이 존재하는 고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 지역의 전통, 원주민의 전통은 현대식 놀이, 세대의 변화 등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옛 전통은 사라지고 지금은 피난민들이 가져온 '북청사자놀이'가 속초의 대표 전통문화가 되어버렸다.

V. 지금의 속초를 위해서...

풍문에 의하면 속초인구의 출신도별 구성 비율을 보면 전라도 30%, 경상도 30%. 충청도 20%, 이북출신 10%, 원주민은 10%라고 한다. 현재인구 8만 3천명 중 10%인 8,300명만이 속초 원주민이라는 얘기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이 지역의 전통을 원주민들의 후손들조차 생소한데,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아예 그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이다. 10명 중 9명이 모여 속초가 뿌리가 없거나 전통문화가 없는 도시로 얘기한다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다.

속초의 원주민과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분리,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 곳은 다를지라도 지금은 속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엄연한 속초시민이 아닌가?

‘복청사자놀음’을 제치고 ‘도문 메나리놀이’, ‘배나무골 풍년놀이’, ‘만천동 광대놀이’를 속초시의 전통문화로 되살리자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속초의 대표적 관광상품이 아닌가?

일제강점기 시절의 속초 주도세력의 교체! 인공치하 시절의 주도세력의 교체! 미군정 시기의 주도세력의 교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마을은 ‘쉬! 쉬!’하는 경우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가족사일 수도 있다. 1981년 연좌제(緣坐制,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2000년대까지 만해도 강제납북된 사람의 친인척은 공직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포동에 모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장교로 나갔었고, 그의 동생은 동해 어로한계선에서 명태를 잡다가 납북



되어 귀환된 후, 무슨 귀신이 쓰였는지 술만 퍼마시다가 만 30세가 되지도 못해 저세상으로 갔다. 납북되어 인민군 장교였던 형을 만났던 것이 아닐까?

경기도 파주, 포천, 연천, 가평, 화천, 인제, 춘천 산북면, 양양 현북면 등 38선 이북지역의 수복지역(修復地域) 사람들은 속초 사람들과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자유(自由)’라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현실을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옛날 분들은 알 것이다. 무엇이 좋은지를...

‘실향민의 도시! 속초’는 실향민의 도시이기 이전에 외세의 정치에 의해, 국내의 정치에 휘말린 비극(悲劇)이 존재하는 도시였다는 것을 지금의 속초시민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이 글의 목적이며, ‘국가대표 관광도시!’로, ‘희망복지 도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자성어이다.

옛것을 알고 나서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앞(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본다.



1969년 저축 공로로 국민훈장 받은 해녀 출신 선주 강춘화 여사

당시 대한뉴스에 ‘어느 보람’이란 제목으로 사연 소개

장재환 (설악신문 편집국장)

“되돌아보면 고생은 많이 했지만,
바르게 살았으니 후회는 안 해요”

강춘화(85) 여사가 집안 어딘가에 간직해 뒀던 사진을 꺼내와 보여 줬다. 속초시와 문화원이 기획한 도시변천사 수산업 분야 기록사업으로 해녀 출신의 선주로 한평생 바다와 살아온 강춘화 여사의 생애사를 정리하기 위해 두 번째 만났을 때였다.

보기에도 세월의 두께를 짐작할 수 있는, 만지면 바스르질 듯한 흑백사진이었다. 강 여사가 1969년 9월 25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

6회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다. 한복을 차려 입은 젊었을 적 강 여사가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다소곳이 서 있다. 그날 저축 공로로 훈장과 표창을 받은 이들 가운데 여성은 강 여사가 유일했다. <경향신문>은 69년 9월 25일자 저축의 날 기념식 기사에서 ‘1960년도초 국민저축이 50억원에 불과했지만, 69년 8월말 현재 1760억원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자립



1969년 제6회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강춘화 여사(가운데 한복 입은 여성)에게 국민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경제 건설을 목표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절약과 저축을 부추길 때다. 기사 하단 국민훈장 수상자 명단에 강춘화(가정주부·강원도 속초시)란 이름 석자가 뚜렷이 박혀있었다.

국민훈장을 받은 강 여사의 사연은 당시 ‘어느 보람’이란 제목으로 <대한뉴스>에 상영되기도 했다. 여성 내레이터는 강 여사가 1,000만원 모으기 5개년 계획으로 가장 많은 목돈을 모아 많은 찬사와 주목을 끌었다고 소개했다.

“동해 신흥도시 속초항. 세찬 바닷바람이 옷깃에 스며드는 이 곳 항구도시에는 한 여인의 애절한 사연이 퍼져 흐르고 있습니다. 속초시 중앙동 11반. 이름 없는 어부의 아내로서 일곱 아이를 알뜰히 보살피는 평범한 가정주부 강춘화 여사. 소금 두 가마니 먹고 15년만에 1,000만원을 모았다

는 전설 같은 얘기를 낳은 주인공의 얘기를 더듬어 봅니다.”

<KTV국가기록영상관 대한뉴스 ‘어느 보람’ 중에서>

소금집으로 불리게 된 사연

“아는 분이 사정을 해서 흥국생명에서 보험을 들었어요. 5년간 한 달에 12만3천원씩. 그 때 돈 12만3천원이면 컸지요. 1원짜리 쓸 때니. 그런데 어느 날 흥국생명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 훈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고 훈장을 받느냐고 싫다고, 바빠서 거기 갈 수도 없다고 했더니, 비행기표도 다 끊어냈고 했으니 가야지 안 가면 안 되네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하고 그날로 가서 훈장을 받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강 여사는 그 보험을 밀천으로 갚은 고생 끝에

장만해 운영하던 오징어배를 저인망 어선으로 바꿀 수 있었다.

〈대한뉴스〉에서 소금 두 가마니 먹고 1,000 만원을 모았다고 했는데, 그 얘기 좀 해달라고 했다.

“속초에 와가지고 우리 집 양반이 배 기관장을 했어요. 명태낚시는 소금에 절인 양미리를 미끼로 썼는데, 미끼를 썰면 소금을 잘 먹어서 바짝 서야 해요. 그래야 물에 가도 안 퍼져요. 선주가 양미리 5통인가 6통인가 하고, 소금 한 가마를 사줬는데, 그걸 절구고 한 동이 남은 소금을 부뚜막 위에 놓고 명태국 끓일 때 집어넣고 하다 보니 그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배를 한 척 샀는데, 아는 동생이 “배 샀으니 한잔 사 게 나” 하니, 우리 집 양반이 “야 이 사람아, 말 마라 우리 소금 먹고 돈 벌었다”고 했는데, 이게 소금집이 된 거예요. 생어호 사 가지고 전라도로 조기바리 가서 소금을 한 배 실어와 재워 낚다가 팔기도 하고 그래서 소금집이기도 해요.” 생어호는 강 여사 부부가 속초에 정착해 처음으로 장만한 오징어배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속초에 정착

강춘화 여사는 1933년 11월 20일 제주도 성산면 신흥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일본 요코하마를 오가는 유람선 기관장이었다. 6살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일본에 가 살다가 12살에 해방을 맞았다. 다시 제주도 성산면 신흥리로 돌아와 16살 때부터 해녀 일을 배웠고 17살에 동네 언니들하고 부산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포항 구룡포로 옮겨 물질을 하다 울릉도 독도까지 들어갔다. 해군이 후생사업으로 독도에서 전복, 소라,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해녀를 모집해 따라 갔지만, 벌이도 시원치 않

고 태풍 걱정도 돼 이내 그만두고 나왔다. 일행 중 일부는 구룡포로 가고 강 여사와 몇 사람은 낮선 강원도 땅 삼척 임원으로 올라왔다.

곧 이어 6.25전쟁이 났다. 전쟁이 끝나고 제주에 잠깐 가 있다가 부산으로 나와 제주 우도 출신의 남편(윤재모)을 만났다. 21살쯤 됐을 때였다. 남편은 기관장 일을 할 줄 알았다. 속초에 오징어가 많이 잡혀 사람들이 몰렸다. 남편이 먼저 오징어잡이를 하러 속초로 갔고, 얼마 있다가 강 여사도 아이들을 데리고 뒤따랐다. 전쟁의 포연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였다.

고단한 삶이었다. 노숙을 하다시피 하며 부부는 밤낮으로 일을 했다. 남편은 오징어 배를 타고 강 여사는 물질을 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생선도 팔고 덩장배에서 잡아온 쥐치 대가리를 자르러 다니기도 했다.

해녀가 얼마 없던 시절이었다. 전복이고 해삼이고 많이 잡혔다. 중앙동 산등성이에 직접 방한 칸 부엌 한 칸짜리 흙집도 지었다. 악착같이 번 돈을 모아 부부가 그토록 원했던 어선(생어호)을 한 척 장만했다. 오징어도 잡고 명태도 잡았다. 경북 강구로 계잡이도 나가고 전라도로 조기잡이도 나갔다. 강 여사는 산동네에 살면서 물을 길러다 먹으며 밤새 그물을 기웠다. 이리저리 뛰며 필요한 자금도 마련해 메꾸고, 배 기관방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외지까지 나가 구해 오기도 했다.

보험 들어 산 첫 저인망 어선 삼흥호

“씩었든 말았든 배를 하나 사니, 어떻게 한 게 잘 됐어요. 그 배 사 가지고 돈도 벌었어요.”

그 뒤 몇 년 사이에 조선소에서 명철2호, 명철3호란 오징어배를 새로 건조했다.

“그때는 오징어를 대화퇴 가서 잡았어요. 조



그만 배 가지고는 아이들 7남매와 먹고 살고 대화퇴까지 갔다 오는 경비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저인망을 사기로 했죠. 저인망은 그때 한번 나가면 도루묵이고 뭐고 막 퍼 잡아왔어요.”

강원도 소속의 저인망 배가 없을 때였다. 경북도청에서 허가를 내준 배들뿐이었다. 그 배들이 강원도 해역까지 올라 와 고기를 쓸어갔다.

마침 보험을 들었던 흥국생명에서 돈을 빌려 삼척에 있는 경북 포항 선적의 낡은 저인망 어선, 삼흥호를 1,000만원 조금 더 주고 구입했다.

“저인망을 계약한 날 조업을 나가 10만원어치 넘게 잡아왔어요. 그때 10만원이면 꽤 컸죠. 그러자 선주가 배를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대로 하라고 하고, 그 돈은 선원들에게 쓰라고 다 쥐버렸어요. 돈 없이 저인망을 샀으니. 적금 넣을래, 먹고 살래 정신없었죠. 어떻게 산지 몰라요. 돈은 벌었지만, 말도 못해요.

그 고생은.”

강 여사는 삼흥호 말고도 저인망 어선을 몇 척 더 들여와 조업을 했고, 지금은 아들이 저인망 어선 성일호를 운영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고생은 많이 했지만, 바르게 살았으니 후회는 안 해요. 남에게 주고 살았지 어디가 피해 준 것도 없고요. 세금이라면 굶어도 내고 밀린 적이 없어요.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전례 없이 길었던 지난 추석 연휴 속초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생존이 삶의 목적이었던 시절, 강 여사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오갔을 길들은 차들로 가득 찼다. 도시는 사방에 고층건물이 앞다퉈 오르고 있다. 한 평생 거친 바다를 터전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도시를 일으켜온 강 여사의 삶은 그 자체로 속초의 역사다. 이 도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기록으로 남겨 전해야 한다.

“ 문화예술현장 ”

아동선시(禪詩) 박용열 시인의 〈삶과 문학〉

- 이상국
- 이동순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 속초 신세계 영랑호리조트 대연회장에서 설악문화예술 포럼 주관으로 박용열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하는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박용열 시인은 1929년 함북 청진에서 태어나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에 월정사에 입산, 탄허 스님을 은사로 초연이란 법명으로 승려 생활을 했으며, 195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동시 '노을'이 당선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67년 의사고시에 합격한 시인은 고성 아야진에 신진의원을 개업해 인술을 펼치면서 작품활동을 했다. 1979년 한국 동시 문학상 수상, 1985년 동시집 '고요'로 한국불교 아동문학상 수상했으며 『고요 속에』, 『아가에게 엄마에게』, 『할아버지와 손자』 등의 동시집을 냈다.

이날 행사는 설악문화예술포럼 이반 회장의 인사말과 박용열 시인의 영상, 손주의 동시 낭독이 함께했다.

지역문인의 조명이라는 뜻깊은 행사 취지를 살리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시인 이상국의 <승려와 의사 그리고 시인이 함께 가는 길>, 문학평론가 이동순 조선대 교수의 강연 <동(童)과 선(仙)의 완숙한 극치, 고요 - 박용열론 -> 을 재수록한다.

僧侶(승려)와 醫師(의사) 그리고 詩人(시인)이 함께 가는 길

이상국 (시인)

1. 들어가며

이 글은 필자와 박용열 시인과의 개인적 관계 등은 필자의 개인적 소회의 형식으로 작성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비교적 객관적 서술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2. 내가 만난 박용열 시인

개인적인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박용열 시인을 처음 뵈는 것은 제 나이 30대 초반 속초의 문학 동인회인 설악문우회 회원으로 활동할 무렵으로 기억됩니다. 거구의 호남이셨고 문학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 그리고 특유의 대인다운 풍모와 거침없는 언설은 당시 회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문학적 윤리나 기준에 벗어났을 때의 엄격함에는 타협이 불가했고 작품에 대한 노력보다는 중앙 문단의 인사들을 향한 굴신이나 이른바 문단 정치에 대한 비판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설악문우회를 떠났지만 필자는 청학동 병원에 가 뵈기도 하고 설날이면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과 함께 금호동 언덕



의 선생님 댁에 세배도 다니고 했습니다. 필자가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할 때 선생님은 걱정이 되셨던지 술이나 마시고 술꾼들 집에 끌어들여 마누라 고생시키지 말라는 훈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럴 경우가 생기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는 합니다.

그 후 필자도 속초에서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십여 년간 다시 절집 일로 아침저녁 미시령을 넘



어 다니며 시인을 찾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가끔 제 시집을 보내드린다고 선생님이 시집을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선생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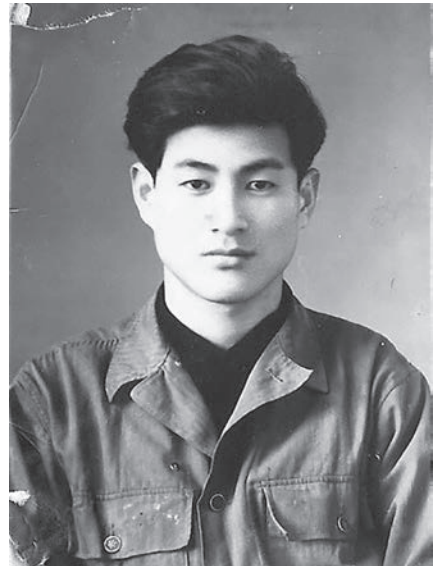
언젠가 현대불교사를 연구하는 동국대 교수와 함께 와병 이후 처음 뵈었는데 당시만 해도 선생님은 기력이 좋아보였고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 상원사 선재길 시비 제막 때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몰라보셨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정신과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지셨구나 하는 생각과, 저 또한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 이런 것들로 혼란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은 선생님에게 화랑은성무공훈장 하나를 드리고 그 외의 것은 모조리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정신적 거인으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는 한 번도 시인의 문학을 기리거나 기쁘게 헤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문단이라는 게

서울 중심이어서 시골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여간해서는 눈에 안 띄거나 잊히기 마련입니다. 문학관 역시 시 소설 등의 성인 중심이어서 아동문학은 주목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북 출신으로 이남에서의 학력이 전무한 시인에게 학연이나 지역을 연고로 하는 선후배가 있을 리 없으며 순전히 당신의 작품만으로 일가를 이루신 선생님의 문학적 고투와 노력이 어떠한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라는 이름하에 단순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당시 시단에 어머니라는 원초적 생명성과 그리움, 그리고 노을이라는 화두가 지닌 선적 세계는 그 본원성과 철학성에서 한국 아동문학의 깊이와 폭을 확대시킨 성취로 우리 문학사에 기록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악문화예술포럼에서 정부의 보조와 가족들의 정성어린 협조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문학과 삶을 말씀하는 기회가 조금 더 일찍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단후배이자 지역의 후배로서 무능하고 무력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



♣ 시인의 젊은 시절
♠ 시인과 세 아들들

록 늦기는 했으나 남달리 가족애가 깊으신 선생님의 가족 여러분과 문단 후배 그리고 평소 인연 있는 여러분과 함께 시인의 생애와 문학을 돌아보며 다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3. 박용열 시인의 삶과 문학

박용열 시인의 생애는 전쟁과 분단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하고 거인적인 삶을 살아 오셨다고 해도 지남침이 없습니다. 그 생과 삶을 주된 부분으로 나눠보면 승려로서의 삶과, 시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의사로서의 삶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약술한 연보를 토대로 박용열 선생의 삶을 소략하게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1) 승려로서의 삶

박용열 시인은 이북에서 장로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 의하면 선생은 집에서 가끔 찬

송가를 부르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 개신교의 뿌리는 북한의 교회와 그곳의 지도자들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쪽 폐와 발가락을 잃은 상이용사가 되어 명예제대를 한 후 갈데없는 천애고아로 오대산 월정사에 의탁하게 된 것은 민족적 재앙이 한 인간의 생의 행로를 뒤바꿔놓은 운명적 결과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좌표를 잃은 그의 발길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오대산을 향했고 거기서 만난 당대의 선지식인 탄허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됩니다. 시인의 자전적 술회에 의하면 성치 않은 몸으로 사고무친한 남한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처님에게 묻고 또 묻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탄허스님은 일제 강점기에 22세의 나이로 오대산 상원사(上院寺)로 출가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묵언(默言) 참선의 용맹정진 했으며, 15년간 오대산 동구 밖을 나오지 않았다는 전설적인



대덕이었습니다. 스님은 노장철학을 비롯한 동양철학에 정통했으며 유불선을 넘나드는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탄허스님의 상좌가 되어 10년을 수행하였습니다. 박용열 시인의 내면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철학적 배후와 문학세계를 일관하는 불교적 초월성은 그런 공부와 수행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박용열 시인이 숭회한 수행 일화 중에는 고무신이 다 떨어져 신을 수 없게 되어 신발짝을 벗어 들고, 신발 하나 사주지 못하는 처지에 무슨 공부냐고 대든 적이 있었는데 “이 멍청아 버리는 공부를 하려고 중이 되었으면서 고무신 하나 버리지 못하느냐”는 탄허스님의 호통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후 절집에서 수행자로서 구도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궁핍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잠시 환속했다가 다시 입산하는 등 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용열 시인의 일생을 통하여 시대의 스승인 탄허스님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팔만 장경을 한마디로 하면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불심은 선생의 의료 활동을 통하여 보살행으로 실천되었고, 무에 자재한 불교적 사유는 생애를 일관하는 구도적 작품 활동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속 49년 만인 2014년 오대산 상원사 가는 선재길에 박용열 시인의 시비가 세워집니다. 승속 간의 경계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대찰인 월정 가람의 한복판에 세속의 시인을 위하여 터를 내어준다는 것은 극히 드물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은사이신 탄허스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의 인연은 현생과 내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시인으로서의 삶

박용열 시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글을 잘 쓰고 그리기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는 배우고 익히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태어날 때 받은 예술적 감수성 등 천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시인의 시집에 직접 그려 넣은 삽화들을 보면 화가로서도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으며 그 길로 매진했어도 대성했을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추측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많은 예술장르 중 왜 문학을 택했으며 왜 동시를 쓰게 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수행자 시절인 1959년 박용열 시인은 경향신문 신춘문예 동시 부분에 「노을」이 당선되고 같은 해 동아일보에 「푸른 감」이 입선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춘문예라는 제도는 경쟁이 치열해서 당선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한 곳 당선만으로도 득세하여 앞날이 보장되는데 같은 해 두 개의 별을 따다는 것은 본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당시 문단의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이나 학연이 전혀 없는 오대산 골짜기 월정사에서 절밥을 먹는 무명 행자의 일이고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이러한 쾌거는 당시 박용열 시인이 얼마나 이 불합리한 세계에 대하여 사유했으며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에 대하여 고뇌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인은 「나의 동시 창작론」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잠시 하산하여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모은 돈으로 폐부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혼에 박힌 파편의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어느 인터뷰에서 “동시 쓰기는 어쩌면 영혼의 파편을 제거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

니다. 때론 누구를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정화의 욕구가 있습니다. 나의 동시 쓰기는 현실에서 이지러진 영혼을 정화하는 공간이며 불법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자 도구였습니다.”라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고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혈혈단신의 시인 자신도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과 동병상련의 처지로서 가엾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 그런 안팎의 상황이 시인을 문학의 세계로 이끌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고 가장 절제적인 형식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자신을 카타르시스 할 수 있는 문학적 방법으로 동시를 선택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시인이 부상으로 대구 육군병원에 있을 때 진주 고아원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고, 승려 생활 중에도 사찰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시인이 동시의 세계로 들어간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문학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환갑을 당하였을 때 잔칫상을 받기보다는 음식을 장만하여 고아원을 찾아가 원아들과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학과 그 인간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문단에서는 보기 힘든 작가와 문학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심은 무심이고 무심이 곧 부처다. 동심 없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동심은 천심이요 동심의 나라가 곧 천국이다. 불가에서는 본바탕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첫째가는 정진이라 한다. 그러므로 동심이 곧 불심인 것이다. 아무런 분별심이 없는 동심이야말로 불성이며 최고의 마음 경지이

다. 이것은 박용열 시인의 시론에 해당하는 언사들입니다. 이러한 동심과 천심, 불심의 세계가 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동시의 세계이며 그것으로 구현되는 문학성의 내용인 것입니다. 일괄하자면 그것은 모성을 찾아 헤매는 영혼이 불가에 귀의하여 자신을 정화해가는 구도적 정신의 세계가 동시의 세계였고 그것이 곧 자신의 구원의 세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는 미움이나 원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밝고 그립고 천진하고 희망만이 거기에 담깁니다. 특히 박용열 시인의 동시는 ‘어머니’와 ‘고요’를 화두로 일생의 그리움과 초월적 평화가 그 내면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동시의 몸을 취하여 단순 소박하나 그 세계의 저 깊은 곳에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한 영혼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절규와, 존재에 대한 의문이 아우성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과 결핍에 대한 분노나 고통마저도 끝없는 자비 수행과 보살행을 통하여 더 내려갈 수 없는 천진함으로 구현된 것이 박용열 시인의 동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용열 시인은 전쟁하는 조국과 열패하고 조약한 시대를 버티어 낸 정신의 거인으로 우리 시대의 선각이며 평화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경조부박하고 감각적이며 상업적인 문단 풍토에 비하면 ‘엄마’와 ‘고요’로 대변되는 그의 문학적 성취는 일생을 통한 전인적 사유의 결과이며 빛나는 고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어나는 손자들을 위하여 시집을 묶어 바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야말로 아이처럼 천진무구한 구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3)의사로서의 삶

박용열 시인이 졸업한 함경북도 성진의학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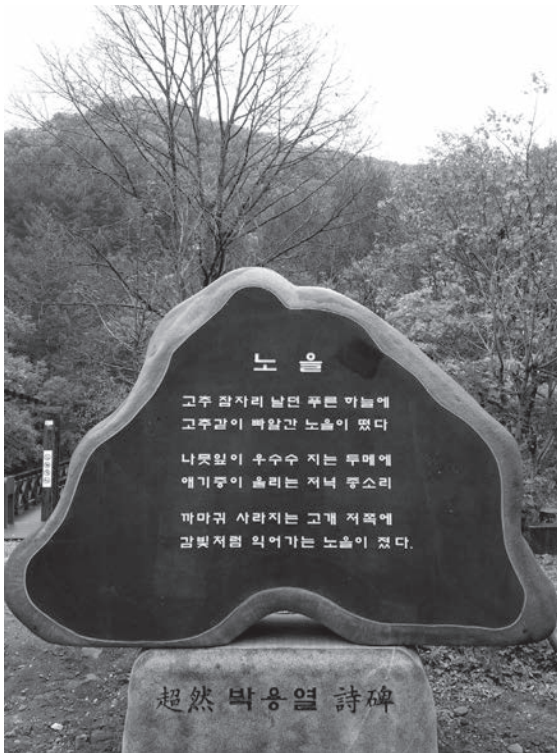
문학교의 졸업장은 남한사회에서는 거의 휴지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러나 전후 정부의 방침으로 귀순의 특별조치법(歸順醫 特別措置法)이 시행되고 거기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1967년 의사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생의 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그해 10년간의 승려 생활을 마치고 하산하게 됩니다. 철모를 때 울면서 들어갔던 그 산을 시인과 의사가 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인은 30여 년간 강원도 산간벽지와 농어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의료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그 길이 곧 불심을 전하는 길이자 도량이었고 부처를 통하여 얻은 자비와 은혜를 세간에 전하는 길이었다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늘 아프고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들은 의사의 손을 기다리지만 벽지와 어촌에는 그들을 만나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박용열 시인은 그들의 대부였던 것입니다. 밤중에도 애를 받으러 나가야 했고 어떤 때는 왕진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다 폭우로 물이 불어 바위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날이 밝기만 기다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진료비도 낼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은 진료비 대신 선생님이 폐를 잃었는지도 모르고

담배를 가져오는가 하면 어부들은 생선을 들고 오기도 했지만 시인은 그것들을 물리치지 않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박용열 시인의 이러한 특별한 삶과 의사로서의 활동은 몇몇 TV로 소개되어 국민적 감동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소략하게 박용열 시인의 문학과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개인적 이야기로 돌아와 속초 청학동 신진의원 개업 당시 병원에는 벽에 걸린 달력 외에 아무 치장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거구의 시인이 마치 장난감 같은 청진기를 목에 걸고 반가워하시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그리고 공책 종이를 대강 잘라서 벽에 걸어놓고 처방전으로 떼어 쓰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것은 가식과 꾸밈 없는, 절약과 절제가 몸에 밴 함경도 남자의 전형인지도 모릅니다. 한

편 그것은 형식 따위와는 상관없이 의사는 환자를 치료만 하는 된다는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수 년이 지나 필자가 세배를 다닐 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쯤 되었던 장남이 속초시 교통에 아버지 병원 이름과 같은 신진의원을 개업했을 때 마치 필자 가족의 일처럼 반가웠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게 다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결국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을 넘어 그 이면의 개인사와 가족사에 대한 먹먹함 때문이었습니다.

스물한 살에 남한 땅에 버려진 청년이 성치 않은 몸으로 온갖 역경과 시련을 겪어내면서 베푼 음덕과 보살행은 이렇게 의업으로 대를 이어 아픈 세상과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새삼 존경스럽고 기뻐던 것입니다.

언젠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박용열 시인의 생애와 문학을 좀 더 심도 있게 조명해 보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불비하고 늦은 자리를 주관하는 우리들의 변명일 수밖에 없으나 또한 진실한 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정성껏 지원해 주신 사모님을 비롯한 가족 친지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박용열 시인의 건강에 대하여 높고 한없는 서원을 드립니다.

5. 간추린 박용열 시인 연보

-1929년. 식민지 치하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1950년. 성진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던 해 6·25 전쟁 발발, 1·4 후퇴 때 21세의 나이로 단신 월남한다.

- 국군에 입대하여 3사단 23 연대 수색대 전

투 중에 적의 직사포를 맞고 눈 속에 파묻혀 있다가 구조되었는데 이때의 부상으로 나중 한쪽 폐를 절단하고 동상으로 양쪽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다.

-1952년. 전쟁 중 화랑은성무공훈장을 받는다.

-1953년. 이후 육군병원을 전전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4개월 전 대구 제27 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한다. 이후 폐를 하나 잃고 발가락을 잃은 이북 출신의 24살의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참담한 현실에 부딪친다.

-1954년. 대구 육군 병기창 식료창 화학연구소 식품분석관으로 근무한다.

-1955년. 26세에 오대산 월정사(오대산 수도원 입교)에 입산하여 대교과를 이수하고 당대의 석학인 탄허 스님을 은사로 초연(超然)이라는 법명으로 승려생활을 시작한다.

-1959년. 월정사에서 수행 중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동시 「노을」이 당선된다. 같은 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푸른 감」 입선되어 문단에 데뷔한다.

-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일시 하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해무청 목호지방 해운국에서 잠시 근무한다.

-1962년. 공무원 생활을 접고 오대산으로 재입산한다.

- 1967년. 귀순의 특별조치법(歸順醫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하산한다. 이후 30여 년간 강원도 산간벽지와 농어촌에서 의료 활동을 편다.

-1969년 일생의 귀인인 정명숙 여사와 결혼하여 평생을 의지한다.

- 1973년. 첫 동시집 『엄마』를 발간한다.

- 1979년. 한국동시 문학상을 수상한다.

- 1984년. 동시집 『고요』를 발간한다. 같은 해 한국불교 아동문학상을 수상한다.

- 1988년. 대한의약협회 <의협신보> 논설위원으로 위촉된다.

- 1989년. 동시집 『고요 속에』를 발간한다.

- 1996년. 소설가 김동리의 후임으로 제2대 한국아동불교문학회장장을 지내고 이후 한국불교 청소년문학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한 후 현재까지 명예고문으로 있다.

- 1997년. 첫 손자 돌 기념 동시집 『아가에게 엄마에게』를 발간한다.

- 2008년. 차남의 첫아들 첫돌 기념 동시집 『할아버지와 손자』를 발간한다.

- 2013년. 은사이신 김탄허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동시집 『오대산 가는 길』을 발간한다.

- 2014년. 오대산 상원사 가는 선재길에 시비가 건립된다. 전면에는 ‘노을’이 후면에는 ‘오대산 가는 길’을 새겼다.

- 현재 『아동문학 세상』 고문으로 있다.

推記 - 이 글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박용열 시인을 뵈던 때의 기억과 가족들의 조언, 그리고 기록의 대부분은 『열린 아동문학』, 2013년 가을 호 「박용열 선생님을 찾아서」의 김병규 선생의 인터뷰 글과 『아동문학 평론』, 2016년 겨울 호(161호) 「시인탐구」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동(童)과 선(仙)의 완숙한 극치, 고요

- 박용열론 -

이 동 순

1. 들어가며

아동문학이 탄생하여 전성기를 구가한 것은 식민담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기표로 내세웠던 일제치하였다. 그때는 어린 독자들이 창작자가 되는 특별한 문학적 현상이 일어났던 때다. 그 어린이들은 작가가 되어 한국아동문학을 이끌었고 ‘동심’에 기댄 작품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해방기에는 일제 침탈기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문학전집 발간이 활발하였다. 마찬가지로 동요·동시전집의 발간도 활발하였다. 당시 문학계는 새로운 문학단체를 조직해가면서 희망찬 미래의 문학을 설계하면서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비극이라는 이름으로는 부족한 한국전쟁 때도 창작활동은 지속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동문학작품들은 동심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바빴다. 생사를 넘나들다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로 마감한 분단은 희망이라는 고문을 가슴에 안고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이런 문학사와 함께한 작가가 바로 박용열 시인이다.

시인 박용열은 1929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성진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의사로 한국전쟁 때 자원입대하였다. 국군 수도사단 18연대 3대대(백골부대) 수색대로 들어가 국군 3사단 23연대 수색대에 복무하던 중 강원도 고성군 남강 전투에서 오른쪽 폐와 다리를 잃는 치명상을 입고 1953년 4월 대구 제27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했다. 그리고 선문으로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출가라는 고행 길에서 속세와 다시 조우한 것은 동시를 통해서였다.

박용열시인은 그동안 동시집 『엄마』(세종문화사, 1973), 『고요』(아동문예사, 1984), 『고요 속에』(아동문예, 1989), 『아가에게 엄마에게』(삶과 꿈, 1997), 『할아버지와 손자』(아동문예, 2008)를 냈다. 그리고 탄허스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집 『오대산 가는 길』(아동문예, 2013)을 냈다. 그는 시력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쉬 없이 동시를 썼다. 문학적 출발이었던 오대산 월정사의 탄허스님을 향한 기도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문학계에서 크게 조명되지 못했다. 박용열 시인의

고요와 함께한 성품 탓도 있으나 연구자들의 무관심 탓이 크다. 이 글에서는 본격 연구에 앞서 박용열 시인의 문학적 여정을 토대로 작품세계를 간략하게 논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게으름을 대신하고자 한다.

2. 동(童)과 선(仙), 그리고 어머니

많은 사람들은 등단한 이후 작품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흔하다. 준비되지 않은 등단이거나, 열정이 고갈되어서 생긴 문제다. 창작의 길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문학을 향한 열정이 지속되어야만 가능하다. 작가의 문학적 열정이 식었거나 작품에서 다른 욕망을 읽게 될 때 독자들은 문학에서 멀어진다. 그러므로 작가는 등단을 준비할 때의 간절한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가야만 한다. 그것이 작가정신이다. 그런 점에서 박용열 시인은 모범적이다. 1959년 등단 이후 지금까지도 창작을 게을리 하지 않는 현역 시인이기 때문이다. 평생 글쓰기를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생의 귀착점으로 삼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와 염원으로 이룬 성취들은 시인의 가슴에서 길러 올린 맑은 기도, 동심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일차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어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어른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쓴 아동문학 작품들은 자칫하면 교훈적이고 교조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박용열 시인의 동시는 오로지 '동심'에 기대고 있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195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첫 작품인 「노을」은 동심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고추잡자리 날으던 푸른 하늘에

고추 같이 빠알간 노을이 떴다.

나뭇잎이 우수수 지는 두메에
애기 중이 울리는 저녁 종소리

까마귀 사라지는 고개 저쪽에
감빛처럼 익어가는 노을이 졌다.

「노을」 전문(<경향신문>, 1959. 1. 2)

1연의 '푸른 하늘'과 '빠알간 노을'의 선명한 색채대비와 공간성, '고추잡자리'와 '고추'의 친연성과 '고추'와 '노을'의 색채 활용, 2연의 '나뭇잎 우수수'와 '저녁 종소리'의 청각적 심상의 부각, '애기 중'과 '종소리'의 일체감, 3연의 '까마귀 사라지는'과 '노을이 졌다'의 공간성, '감빛'과 '노을'의 색채감은 무거우면서도 무겁지 않고, 발랄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동시 「노을」은 “어린이가 서먹서먹해하고 정을 들일 수 없는 노래나 시는 참다운 동요·동시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린이의 생활을 파고들지 못한 동요나 어린이를 무슨 장난감이나 재롱둥이처럼 오해하는 어른들의 붓대에서 우러나온 동요”와 동시들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 아동문단에 “깊이가 있고 무게가 나가면서도 동심을 잃지 않은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동시”(윤석중, 「생활이 없다-신춘문에 동요부 선후감」, 경향신문, 1959. 1. 2)로 아동문단에 충격을 주었다. 동시이면서도 동시라고만 할 수 없는 직관과 관조, 공간과 색채의 대비, 잘 짜인 구조의 안정감은 동요의 품격을 한껏 높이고 있다. 특히 동심에 대한 철저함이 큰 미덕인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영육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을 때 굶주리고 절실한 영혼이 반영된 작품”(박용열 선생님을 찾아서, 「열린 아동문학」,

2013. 가을, 146-147쪽)이라는 점에서 동심의 미적 승화가 돋보인다.

「노을」에 이어서 <동아일보>에 「푸른 감」(동아일보, 1959. 2. 11)이 당선되면서 그는 아동문학계에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전쟁 후 피폐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동심에 활기를 불어 넣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아래는 「푸른 감」의 전문이다.

누구가 먹다 버린 푸른 감일까.

할아버지 잠든 틈에
몰래 따서는
담옆에 숨어서
혼자 먹다가
푸르른 생감이
하도 뚝어서
욕심 꾸러기 돌이도
그만 던졌지

골목길에 푸른감 한톨이 뒹굴고
「푸른감」 전문

시상의 전개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뛰어나다. 특히 1연과 3연의 1행 배치는 고도의 시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연의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길에 버려진 덜 익은 감에서 시작되고 있다. 길에 버려진 감 ‘누가 먹다 버린 것일까?’하는 궁금증은 ‘할아버지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욕심꾸러기 돌이’가 감을 따 먹었는데 ‘하도 뚝어서’ 먹지 못하고 버린 돌이의 호기심에 찻을 행동과 그 후의 표정을 상상하게 한다. 이처럼 그의 시적 상상력

은 동심의 움직임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포착하는데 있다. 길가에 버려져 나뒹굴고 있는 덜 익은 풋감, 그 ‘푸른 감’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장난질을 ‘돌이’를 통해 아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호기심, 그리고 어른들의 어린 시절을 동시에 호출해내고 있다. 이것이 그의 동심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가 ‘동심’을 어떻게 바라봤고, 바라보고 있는지, 「동시를 쓰면서」라는 글을 들여다보면 아주 잘 나타나있다.

하얀 수염을 휘날리는 그날의 마음가짐에서 동시를 쓰고 싶음이 나의 평생소원이요, 욕심입니다. 모든 것이 원점에서 출발하여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비단 종교나, 철학이나, 예술의 귀결뿐만 아니라 만물의 이치가 다 그러하옵거늘……

동심의 경계는 미숙한 단순일 수도 있고 완숙한 극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심은 그 모든 이전에 믿음이요, 향수요, 안식이요, 조국의 애착 같은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동시나 동화일수록 격조 높은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쓰여져야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동시나 동화는 늘 어린이들에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메마른 현대 생활에 방황하는 어른들에게도 읽혀져야만 되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추악된 현실 고발이나 그를 저항하는 힘보다도 더 강한 그의 순수함으로 인하여 그릇된 본질을 순화할 수 있고 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열, 「동시를 쓰면서」, 『엄마』, 세종문화사, 1973)

박용열 ‘동심’의 핵심은 “그 모든 이전에 믿음



이요, 향수요, 안식이요, 조국의 애착 같은 것”이며, “완숙함의 극치”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나 동화일수록 격조 높은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쓰여져야만 되는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메마른 현대 생활에 방황하는 어른들에게도 읽혀져야만 되”는 것이다. 그가 ‘원점에서 출발하여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동심이요, 그것이 인간 본연이며, 어린이와 어른 구별 없이 함께 읽는 격조 높은 동시, 동화여야 한다는 것이 그가 작품을 창작하는 자세다. 그래서 그의 동시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읽기에 충분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지금
어렴풋이 느껴오는
엄마와 같은
아빠와 같은
아지랑이 꿈속에
해님 같은 미소를 지어보자.

따사로운
햇별이 흐르는 날
철이 오면
서서히 익어가는
아이들은 아이답게
참되게 자라자고 타일러 볼테야

싱싱하게 자라나는
새싹들 같이
엄마와 아빠를 가진
시름모른 아이들보다도
더 튼튼하게 자라자고 타일러 볼테야
「봄이 오면」 부분(1959.4)

시인은 화자를 통해 따뜻한 ‘봄’에서 “엄마와 같은/아빠와 같은” 느낌을 보일 듯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아지랑이 꿈속’에서, 본다. 희망의 시간 ‘봄’에서 ‘익어가는’가을’까지 “햇별”처럼 “아이들은 아이답게/참되게 자라자”고, 엄마 아빠가 없어도 “시름모른 아이들보다도/더 튼튼하게 자라자”고 골고루 비춰주는 것, 그것이 시인이 추구하는 ‘동심’이며, 그것이 격조 높아야 하

는 ‘아동문학관’이다. 동시 「봄이 오면」에 언뜻 보이는 것처럼, 시인 또한 부모의 따사로움을 “아지랑이 꿈속”에서라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는 지도 모른다. 박용열의 첫 동시집 제목이 『엄마』인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을 반영한 것이리라.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가족을 북쪽에 두고 혼자 남아 그려낸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애착은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다. “어머니-일주일이 지나면 꼭 돌아오겠습니다.”(박용열, 「어머님에게 드리는 편지」, 『고요』, 세종문화사, 1973. 90쪽)라는 인사를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되돌아가기 위해 최전방 수색대”에서 근무한 것은 그의 이력이 말해주듯이,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며 절규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 나선 길이 오대산 월정사 탄허스님 문하에서 ‘초연(超然)’이란 법명의 수행자였다. “슬프고도 괴로웠던 지난 날, 육신의 어머니가 그리워 방황하던 끝에 스님이 되었고, 영의 어머니(부처님)”(박용열, 「어머님에게 드리는 편지」, 『고요』, 세종문화사, 1973. 90쪽)를 만났다. 그 수행의 과정에서 만난 것이 동심이며, 거기서 탄생한 것이 동시다. 속세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영혼의 어머니를 향한 기도가 ‘동심’으로 발현된 것이다. 그의 시가 동시이면서도 선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다음의 동시에서는 전쟁 중에 헤어진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심정을 그대로 형상화, 시적 자아를 대변하고 있다.

포소리에 놀래
집을 떠난
아기는 커서
아기를 낳고

도란
도란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잊을래도

아직도
철없는 엄마의 아가.

언제나 보고픈
어머니의 모습.

저 멀리
휴전선 너머
그 얼굴 더듬어

“어머-니”
“어머니”
가슴이 터지도록 목이 메이면

“그리운
내 악아-”
메아리쳐 오겠지.
「휴전선의 어머니」 전문

엄마의 ‘아가’인 ‘나’는 커서 ‘아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엄마에게 철이 들지 않은 ‘아가’로 남아 있고 싶다. 그래서 ‘나’는 건너갈 수 없는 휴전선 너머로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내 악아-’라고 메아리쳐 오는 엄마의 목소리를 간절히 바란다. 여기서 시적자아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아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에밀레-/에밀레-//엄마 그리운/종이 운다.”(「에밀레」) 그러나 엄마는 낳아주신 엄마

로 머무르지 않고 “소원으로 합장하는 /그 마음 보시고/그 마음 알으시고/말 없는 부처님//당신은/이 세상/모두의 /어머니시다”(『부처님』)로 승화, 그것은 우주 전체로 확장된다. “세상 사람 모두가 용서치 못하는 죄인이라도 그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어떤 힘의 저항보다도 더 큰 자비”(박용열, 『어머니는 안식처요 조국입니다』, 『고요 속에』, 아동문예, 1989. 42쪽)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처가 되고, ‘부처님은 ‘이 세상/모두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그가 동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내재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박용열 시인이 “말과 문자의 벽을 뛰어 넘어 체험과 사색에서 얻어지는 순수성을 위하여 정진”한 결과이며,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하는 일이 저절로 간소해”(박용열, 『시를 쓰는 마음』, 『고요』, 아동문예사. 1984)진다는 것을 안 깨달음이의 선적 표현이다. 그것은 동시의 간결함과 짝 찬 여백으로, 현상을 포착하는 세심한 관찰력과 따뜻하고 자애로운 마음이 스민 발상과 표현으로, 어린이의 마음과 눈을 가진 시인의 매이지 않은 자유로움과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으로 “동시나 동화는 늘 어린이들에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메마른 현대 생활에 방황하는 어른들에게도 읽혀”지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3. 그리움의 깊이, 고요

그의 시적 출발은 ‘엄마’였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 수행자가 되었고, 그 엄마를 찾아 동시를 썼는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엄마가 되어 병원을 “개업한 후 강원도 산간지방 몇 군데를 거쳐 휴전선 가까운 곳으로 병원을 옮겨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인술”을 펼쳤고, “시인이기도 한 그는 이웃의 상담원 역할까지 하”면서 “강원도 벽지무의촌에서 사랑의 인술”(〈경향신문〉, 1986.5.6.) 펼쳤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작품을 쓰고, 사랑으로 의술을 펼쳤으며, 사랑으로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그는 모든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엄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쓴 작품들이 동시집 『고요』와 『고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연을 멀리한 동심은 동심일 수 없고 때문에 선해질”(박용열, 『엄마와 아가의 이야기』, 세종문화사, 1973. 103쪽) 수도 없다는 믿음이 깊은 고요와 만났고, 그 후 그는 동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댕구렁”

처마 끝에
붕어가
울고

“댕구렁”

석탑
천년 묵은
방울소리에
가랑잎이 집니다.

「고요2」부분

이 시는 “동심(無心)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윤리나 도덕 이전의 참(道)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의 풍격이기도 하며 가장 아름다운”(박용열, 『고요』, 아동문예사. 1984. 56쪽) 기도였다. “댕구렁” 이 작은 풍경소리에 ‘붕어’가 울고, ‘가

랑있'진다니. '고요'를 너머 선(仙)의 경지에 다른 시적 자아가 '동(童)'에 닿아서 노래한다.

달밤
달이 밝아서
연잎 위에
청개구리

“풍당”

달 따라 가네.
「고요·6」 전문

그리하여 「고요·6」에서는 ‘달밤’에 ‘청개구리’가 연못에 뛰어든 모습을 ‘달 따라 가네.’ 한다. 시상이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다. 조용한 달밤 연못 풍경,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은 구도자의 그것처럼 힘든 일이다. 연못으로 뛰어드는 ‘개구리’를 본 그 순간을 포착, “달 따라 가네.”라고 아주 짧게 뽑은 한 마디, 이것은 계(偈)를 읊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의 동시는 ‘동(童)이요, 선(仙)이며, 선(仙)이며, ‘동(童)’이 된다. 사실 「고요」는 연작시로 「고요1」부터 시작해서 「고요 108」에 이른다. 백팔번뇌를 씻듯이 「고요」 연작을 통해 속세에서 살되 마음은 늘 부처를 향하여 있기에 “부처님 얼굴은 “웃음 띠/아가/의 천진한 얼굴”(「고요·72」)로 “부처님이 웃고”(「고요 108」)있다. 그래서 그의 동시는 그대로 기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교로 세련된 말과 문장으로 또는 아름다운 수식어로 오히려 순수(自然)를 더럽혀 온 일은 없었”(박용열, 「시와 자연」, 『고요』, 아동문예사. 1984. 86쪽)는 지

자문하며 고요와 함께 머문다. ‘고요’는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다. 우리들 모두도 늘 ‘고요’를 지향한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이리저리 휩쓸리고, 이것저것에 얽매이고, 위아래를 재고 살피기에 바쁘는데 고요가 머물 자리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박용열 시인은 늘 고요와 함께다. 시인의 마음자리에는 욕심이 없고, 휩쓸림이 업으며, 얽매임 없이, 위아래를 재지 않기 때문이리라. 마음을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동심으로 가는 길이며,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이었으니 “구름도/한점 없는/밤하늘에//초생달이/ 혼자/ 떠가고 있”(「고요·64」)는 것도 보인다.

미소 머금은 얼굴
티없는
마음

조용한
말 한마디
그윽한 향이어라.

묵은 나뭇가지에
매화꽃 피듯이
「고요·105」 전문

동시 「고요·105」는 동시와 선시의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동(童)이 선(仙)이며, 선(仙)이 동(童)인 세계다. 1연은 동(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2연은 선(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3연에 이르러서는 그 동(童)이 선(仙)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티 없는 마음’이 동(童)이 선(仙)이며, 동심이요, 불심이다. 그것은 ‘묵은 나뭇가지에/매화꽃 피듯이’ 아무도 모르게 두



손 모으는 일이다. ‘고요’에 닿는 일, ‘고요’의 일상을 사는 일이 동(童)과 선(仙)에 이르는 길이다. 시인은 연작『고요』시편으로, 우리들 마음에 죽비를 친다. 시집『오대산 가는 길』에 이르러 ‘탄허스님’과 재회 또한 그 연장에 있다.

찬바람 불고 서리 오기 전에
어디로 갈까
결망 메고 망설이다가

가부좌 틀어 눈 감으니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내 어찌하여 그렇게도 몰랐을까.
「오대산 가는 길」부분

시인이 오대산을 가는 이유, “은사 김탄허 대종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오대산에는 부처를 만나 업장을 풀어 적멸로 가는 도량 월정사가 있는 곳이며, 영혼의 엄마, ‘부처’를 만나도록 이끌었던 탄허스님이 계신 곳이다. 기도의 거처인 오대산은, 그러므로 그곳으로 향하는 모든

길은 기도요, 연작『오대산 가는 길』 54편이다 기도이며, “가부좌 틀어 눈 감으니/바로/이 자리가” 오대산이다.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요
“이 멍청아--”
호통치고 가르쳤던
스님은 어디가고 자취도 없네

돌부처
웃는 뜻을 그 누가 알까

왜
이렇게도 내 마음 캄캄해지는 것일까

스님-
한 말씀 하여 주십시오.
「오대산 가는 길 · 51」 전문

그 기도는 ‘탄허스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시인은 잊을 수 없는 ‘스님’을 무척이나 그리워

하고 있다. “있음이 곧 없음이요/없음이 곧 있음이요”라는 알뜰말뜰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자 “이 멍청아--”호통쳤던 소리가 그립다. 그 소리는 잠든 심연을 깨우는 소리였다. 스님의 호통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금, “내 마음 캄캄해”져 있고, 스님의 호통 소리, “이 멍청아--”가 그리워 “스님-”을 부른다. 이것이 시인의 본성이요, 불심이요, 동심으로, “기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순수의 극치는 무기교”이며, “마음이 삼라만상을 만들고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그는 무기교의 기교로 순수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시세계를 일관되게 관통하였다. 여기서 그의 동시는 동(童)과 선(仙)으로 이룬 완숙한 극치, 고요가 된다. 고요와 머물며, 고요와 살고, 고요를 통해 어린이가 되고 부처가 되어 고요를 노래하는 시인이다.

4. 나오며

시인의 시적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무기교의 기교인 마음, 순수의 극치, 부처의 마음이요 어린이의 마음이다. 그래서 시인은 『아가에게 엄마에게』는 큰며느리와 손주에게, 또한 『할아버지와 손자』는 둘째 며느리와 손자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썼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향해 두 손 모아 올린 기도다. “앞니가 돌아났네/팔개월째 접어든/우리 아기/손과 발로/걸어서/거북이걸음(...)우리 현이 용하다”(“우리 현이 용하다”)고 힘주어 응원하고, “병이 나면/주사 놓은/할아버지/미워 서//보는 체도 하지 않니”(“의사 할아버지”) 섭섭해 하기도 한다. 그것은 사랑이다. 한없는 사랑이다. 엄마가 아가에게 주는 사랑, 아가가 엄마를 향한 사랑, 부처가 중생에게 주는 사랑, 중생이 부처를 향한 사랑이요, 할아버지가 손

주에게 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는 “사회의 모든 추악한 현실고발이나 그를 정하는 힘보다도 더 강한 순수함으로 인하여 그릇된 본질을 순화할 수 있고 순화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학 중에 특히 아동문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박용열, 『고요속에』, 아동문예, 1989. 77쪽)이기에 “부처님과 아기가/티없이 마주보며”(“부처님과 아기”) 웃는다.

박용열의 동시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다. 그것이 동시 전체를 관통한 동(童)과 선(仙)의 조화는 완숙한 극치를 이룬다. 그는 동심으로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졌으며, 불심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인술로 몸을 치료하였다. 그에게 동심은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자, 부처를 향한 고요 속의 고운 기도였다. 1979년 한국동시문학상, 1984년 한국 불교문학상을 받았고, 김동리에 이어 2대 한국 불교아동문학회장장을 맡았지만 1959년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동시가 당선되어 아동문학계에 혜성으로 등장하였던 그의 문단 이력에 비해 크게 조명 받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 글에서나마 작지만 그의 작품을 들여다 본 것은 본격연구를 위한 준비라고 위안한다. 첫 시집에 쓴 것처럼 “하얀 수염을 휘날리는 그날의 마음가짐에서 동시를 쓰고 싶음이 나의 평생소원”이라는 그 소원대로 동심을 향해 걸어가면서 동시를 쓰고 있으니 소원을 이룬 셈이다.

“특 집”

자료를 통해 본 김용식

— 김만중 논문

자료를 통해 본 김용식

김 만 중 (속초시 학예연구사,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I. 머리말

한 개인의 생애와 활동, 업적 따위를 적은 기록을 통상 전기라고 한다. 전기는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형태로 쓰기도 하지만, 회고록 또는 자서전이라는 형식을 빌려 주관적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지역의 역사서인 시·군사의 경우에는 전기문이나 자서전은 아니지만 가족과 친지 등 특수관계인 또는 학연·지연 등으로 엮힌 주변 인물의 증언이나 족보 등 집안 문서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기술되는 내용의 객관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현대사의 경우 기술되는 인물 본인이나 자식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서술이 때로는 부담되기도 한다.

한 인물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모든 기록은 객관적이어서야 한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술하기만 하고 지어내지 않으며, 옛것을 믿고 좋아하므로 스스로 나를 노팽(老彭)과 비교하고 싶구나.¹

1 『논어(論語)』 「술이(述而)」,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대부분의 성경현전(聖經賢傳)²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은 경전을 기술할 때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태도를 취하였다고 한다. 이후 역사가들은 이것을 좀 더 부연하면서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전(傳)’의 양식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역사서술의 한 형식으로 정립된 것이다. 즉 전은 단순히 사건의 전달이 아닌 서술자의 의도가 개입된 역사서술의 한 양식이다.

각 지역마다 선현선양이라는 명목 아래 인물에 대한 숭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송덕비(탑)나 기념물 건립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지역신문 특집 기사를 통해 소개³되면서 인물에 대한 선양 사업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선양사업들이 좌초하거나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김용식은 이미 『속초

2 유학의 성현(聖賢)이 남긴 글을 통칭한다. 성인의 글을 ‘경(經)’이라고 하고, 현인의 글을 ‘전(傳)’이라고 한다. 줄여서 ‘경전(經傳)’이라 쓴다.

3 엄경선, 『설악의 근현대 인물사』, 마음살림, 2009. 저자가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4회에 걸쳐 지역언론인 <설악신문>에 기고한 글을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문화』에서 2번⁴이나 다루었던 우리 지역 출신의 현대사 인물이다. 그동안 자료의 부족으로 특정 시기의 내용이 주로 소개되어 김용식을 평가하여 왔다. 이 글은 김용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 인물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는 폭넓은 자료의 확보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용식은 대한제국 시대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시대를 살다 갔다.⁵ 김용식이라는 인물은 평범한 관료 생활과 변호사를 거쳐 판사를 역임했다. 판사를 역임하는 과정에서 집권세력에 배척을 받았으며, 불행한 말년을 맞았다. 이 글은 김용식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가 실려 있는 『속초시지』⁶와 『속초시사』⁷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근에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하겠다.

Ⅱ. 김용식의 초년과 관료생활

1. 김용식의 초년생활

김용식(金龍式)은 1896년 당시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584번지⁸에서 태어나, 1963년 대구에서 일생을 마쳤다.⁹ 그의 초년에 대해서 시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속초시 도문동(중도문리) 출신, 어렸을 때부터 한학

4 이건석, 「전 대구고등법원장 김용식」, 『속초문화』제5호, 1989.

엄경선, 「지역인물 / 김용식」, 『속초문화』 제22호, 2006.

5 김용식의 생애 동안 속초는 양양군의 일부였다. 그가 죽던 해인 1963년에 속초는 양양군에서 독립하여 ‘속초시’가 되었다.

6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1991.

7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상·하), 2006.

8 현재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868번지이다.

9 1986년 11월 21일 생, 1963년 5월 18일 사망.

을 수학하였다.¹⁰

현재까지 김용식의 초년 생활은 공식 기록이 거의 확인되지 못하였다. 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명석하였던 김용식은 학교 문턱에는 한 번 가본 일이 없으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순 독학으로 입신양명을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¹¹

대구고등법원의 존영관리 대장 자료에 김용식은 입쌍천중등학교(?) 졸업이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¹² 속초시 도문동과 양양군 북골, 강선리 등이 넓은 뜰을 기반으로 논농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설악산으로부터 발원하는 쌍천의 덕분인데, 이를 학교 이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기록에 속초 지역(당시 양양군 도천면)에는 2곳의 학교가 보이고 있다. 1926년 무렵에는 소학교와 보통학교가 각 1곳이 있었고, 개인 사숙이 15곳이 있었다.¹³ 1940년 무렵에는 도천면 대포리에 설악심상고등소학교와 대포심상소학교가 있었다.¹⁴

김용식의 학력은 그가 변호사 생활을 하던 1930년대에 남긴 자필이력서를 통해서 전모를

10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1991, 1305쪽.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하), 2006, 1838쪽.

11 이건석, 「전 대구고등법원장 김용식」, 『속초문화』제5호, 1989, 60쪽.

엄경선, 「지역인물 / 김용식」, 『속초문화』제22호, 2006, 135쪽 재인용.

12 이건석, 「전 대구고등법원장 김용식」, 『속초문화』제5호, 1989, 62쪽.

엄경선, 「지역인물 / 김용식」, 『속초문화』제22호, 2006, 135쪽 재인용.

13 속초문화원, 「면세일반」, 『옛 문헌으로 본 속초 II』, 2008, 19쪽.

14 강원도, 『국역 강원도지』 상, 2005, 913쪽.

확인할 수 있고, 대구고등법원장을 마치면서 남긴 퇴임편을 통해서도 일부 알 수 있다.¹⁵ 8세인 1903년부터 15세인 1910년까지 중도문리의 한문서당에서 수학하였다¹⁶고 하는데, 이는 「면세일반」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 사숙¹⁷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문서당에서 수학하고, 쌍천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8세인 1913년에 학업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김용식은 그동안 알려져 있던 것처럼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것이 아니라, 개인 사숙을 통해 기본 학습을 하였으며 정식 학교에 입학하여 제대로 된 수업을 한 것으로 스스로 기록하고 있다.

2. 김용식의 관료생활

김용식의 일생 중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변호사 이전의 생활이다. 시사에는 어린 시절에 한학을 배운 다음에 바로 1932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¹⁸

15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4.10.22.)」, 「(소화9년)변호사인가급명부등록환철」, 1934. “강원 양양군 쌍천보통학교 수업(1910.10. ~ 1913. 3.)”

「경향신문」 1958. 12. 16. “나는 법대로 했다 / 대구고법원장 김용식씨의 퇴임편”에서 김용식은 스스로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면립 중등학교 3년을 졸업하고 1년 반 가량 수학을 독학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그는 당시 정규 교육과정을 적절한 시기에 이수한 것이다.

16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강원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의 한문서당에서 수학(1903.7. ~ 1910. 9.)”

17 속초문화원, 「면세일반」, 「옛 문헌으로 본 속초 II」, 2008, 19쪽.

18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1991, 1305쪽.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 (하), 2006, 1838쪽.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수학하였다. 1929년 32세 나이에 순 독학으로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의지를 지닌 학구파로, 변호사업을 개설하여 민족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¹⁹

그동안 알려진 이 시기 김용식의 행적은 조선 총독부의 직원록을 통해 김용식이 1923년부터 1928년까지 5년간 강원도경과 원주, 양양, 철원경찰서에서 경부²⁰라는 직위로 근무한 것이다. 그의 유일한 혈육인 외손자는 김용식이 직업을 경찰로 선택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라고 증언하였다.²¹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의 김용식의 삶은 외손자의 증언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김용식은 어린 나이에 고향집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김용식이 하루는 소를 끌고 들판에 나와 누워 있는데, 파리를 쫓느라 철썩거리는 소꼬리에 얼굴을 맞고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소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김용식은 이후 가축을 해 만주로 갔다고 한다.²²

고향인 도문동에서 농사와 학업을 하던 중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만주로 갔다는 것이다. 이후 무슨 생각이나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주에서 돌아오게 된다. 1920년대 중·후반에 강원도 지역에서 경찰 생활을 하였다. 1932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19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1991, 1305쪽.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 (하), 2006, 1838쪽.

20 일제강점기 경찰 직급의 하나로 판임관(判任官)이다. 을지서(乙地署)의 서장, 갑지서(甲地署)의 주임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21 엄경선, 「지역인물 / 김용식」, 「속초문화」 제22호, 2006, 135쪽.

22 엄경선, 「지역인물 / 김용식」, 「속초문화」 제22호, 2006, 135쪽.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용식의 20대 생활은 그가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남긴 자필 이력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용식은 뜻을 품고 만주로 갔다고 하나 실제로 그는 21세가 되던 1916년에 함경북도 경흥의 헌병분대에서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³ 즉 김용식은 고향을 떠나 북쪽으로 간 것은 맞으나 그가 간 곳은 그동안 알려져 있던 것과 같이 만주가 아니라 함경도 경흥이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김용식은 일제강점세력의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헌병보조원으로는 1918년 4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 이후 23세이던 1918년에 헌병보조원을 그만두고 고향인 양양군으로 되돌아왔다. 헌병보조원의 경력을 인정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고향인 양양군 도천면사무소에서 서기로 근무하면서 공직생활을 이어가게 된다.²⁴

3. 김용식의 경찰생활

23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함경북도 경흥헌병분대 헌병보조원(1916.05.31.~1918.04.01.)”

헌병보조원은 헌병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헌병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찰 근무에 협조하도록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광복될 때까지 일제는 수많은 한국인을 헌병보조원으로 대거 채용해 3:1 운동 등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고, 항일운동가들을 색출하고, 무자비하게 고문하는 등 같은 동족을 진압하고 탄압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방법으로 악용해왔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항일운동가들이 한국인 출신으로 이루어진 헌병보조원들에 의해 온갖 심문과 고문을 겪어야만 했다. 또 한국인 순사, 순사보는 헌병보조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김용식은 함경도에서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행정관청의 직원을 거쳐 경찰에 들어가 순사보로 근무하였다.

24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강원 양양군 도천면 서기(1918.04.25.~1919.04.24.)”

김용식은 면서기로 근무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경찰로 전직을 하게 된다. 1919년에 조선총독부 순사보²⁵를 시작으로 1922년까지 양양경찰서 순사로 근무하였다.²⁶ 1923년부터 1928년까지 경찰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²⁷, 이미 그 이전에 하위직으로 경찰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용식은 경찰생활 그 자체는 만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인이 경찰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용식은 더 높은 직위로 오르기를 바란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양양경찰서에서 순사로 재직하며 1922년에 고위관료로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통로였던 보통문관시험²⁸을 치러 합격한 것이다.²⁹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한 김용식은 합격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험에 합격한 1922년에 춘천경찰서의 순사부장으로 승진

25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조선총독부 순사보(1919.04.24.~08.20)”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4.10.22.)」, 「(소화9년)변호사인가급명부등록환급철」, 1934. “조선총독부 순사보(1919.04.24.~08.20)”

26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강원 양양경찰서 순사(1919.8.20.~1922.10.05.)”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4.10.22.)」, 「(소화9년)변호사인가급명부등록환급철」, 1934. “강원 양양경찰서 순사(1919.8.20.~1922.10.05.)”

27 엄경선, 「지역인물 / 김용식」, 『속초문화』 제22호, 2006, 135쪽.

28 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 임용과 보통문관 시험」, 『역사문제연구』 제8호, 2002, 45~78쪽.

29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조선총독부 시행 보통시험 급제(1922.9.)”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4.10.22.)」, 「(소화9년)변호사인가급명부등록환급철」, 1934. “조선총독부 시행 보통시험 합격(1922.9.)”

한 것이 그런 대우의 일환일 것이다.³⁰ 그리고 얼마 뒤 조선인이 오르기 쉽지 않았던 경찰서의 간부직인 경부보로 승진하게 되며, 강원도 경찰부에서 경부보로 근무하였다.³¹ 곧이어 경부로 승진하게 된다. 일선경찰서인 원주경찰서³²,

양양경찰서³³, 철원경찰서³⁴에서 차례로 경부로 근무하였다.

통상적으로 경부가 되면 읍지서에서는 서장을 맡아야 하지만,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에 김용식과 같은 경부 계급이지만 김용식에 앞서 일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서장은 일본인이 맡고, 김용식은 주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용식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지배하던 식민지 시기 정책의 하나였을 것이다.

경찰로 근무하면서 김용식의 이력 중에서 주

30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부장(1922.10.05~1923.04.05)”

31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강원 경찰부 경부보(1923.04.05~10.23)”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4.10.22.)」, 「(소화9년)변호사인가급명부등록환철」, 1934. “강원 경찰부 경부보(1923.04.05~10.23)”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1924년), “강원 경찰부 보안과 경부보(1923.04.05~10.23)”

32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1924년), “강원 원주 경찰서 경부(1923.10.23~1924)”
<매일신보>, 1924년 7월 20일자 6면, ‘강원도경찰관 정기승급, 도경부 김용식(원주) 給八級棒’

33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1925년), “강원 강원 양양경찰서 경부(1925)”

34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강원 철원경찰서 경부(1923.10.23~1928.10.18. 의면)”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4.10.22.)」, 「(소화9년)변호사인가급명부등록환철」, 1934. “강원 철원경찰서 경부(1923.10.23~1928.10.18. 의면)”

주 32표

조사시기	이름	소속	관직	관등	공훈	참고사항
1924	吉田祐四郎	지방관서>강원도>경무부>원주경찰서	警部	6		
1924	金龍式	지방관서>강원도>경무부>원주경찰서	警部	9		

주 33표

조사시기	이름	소속	관직	관등	공훈	참고사항
1925	川島卯之助	지방관서>강원도>경무부>양양경찰서	警部	(월70)		
1925	金龍式	지방관서>강원도>경무부>양양경찰서	警部	8		

주 34표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1926년), “강원 철원경찰서 경부”

조사시기	이름	소속	관직	관등	공훈	참고사항
1926	羽場富雄	지방관서>강원도>경무부>철원경찰서	警部	6		
1926	金龍式	지방관서>강원도>경무부>철원경찰서	警部	6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1927년), “강원 철원경찰서 경부”

조사시기	이름	소속	관직	관등	공훈	참고사항
1927	吉田祐四郎	지방관서>강원도>경찰부>철원경찰서	警部	5		
1927	金龍式	지방관서>강원도>경찰부>철원경찰서	警部	(월60)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1928년), “강원 철원경찰서 경부”

조사시기	이름	소속	관직	관등	공훈	참고사항
1928	鹽谷武夫	지방관서>강원도>경찰부>철원경찰서	警部	6		
1928	金龍式	지방관서>강원도>경찰부>철원경찰서	警部	7		

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다. 철원경찰서 경부로 근무하던 1927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이른바 독직사건으로 유명해진 사건이다.³⁵ 철원군 소재 신문지국의 기자이던 정의식, 원기식 등을 강도로 몬 사건이었다. 어떠한 개인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용식은 그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하게 된다. 나중에 고문이 밝혀지게 되고 결국 검사가 공소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정의식과 원기식은 김용식을 독직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 김용식은 자신의 이력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렇게 경찰로서 생활을 이어오던 김용식은 다른 뜻을 품고 경찰을 그만 두게 된다.³⁶

Ⅲ. 김용식의 일제강점기 변호사 생활

1. 변호사 생활

김용식은 경찰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좀 더 큰 직위로 상승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고등문관시험을 보거나 변호사 시험을 치렀다. 김용식도 입신양명을 위하여 변호사시험을 치르면서 전형적인 길을 갔다.

1929년 32세 나이에 순 독학으로 조선 변호사 시험

35 중외일보, 1927.6.12일자

“拷問으로 罪를 만들었다는 疑問의 強盜傷人事件 / 塲소에 그들을 몹시 미워하든 철원경찰서 경부보 김모가 죄를 만들었다는 증인이 있다 / 被告는 思想運動者”

36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강원 철원경찰서 경부(1923.10.23.~1928.10.18. 의면)”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4.10.22.)」, 「(소화9년)변호사인가급명부등록환급」, 1934. “강원 철원경찰서 경부(1923.10.23.~1928.10.18. 의면)”

에 합격한 의지를 지닌 학구파로, 변호사업을 개설하여 민족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³⁷

김용식은 1929년에 치러진 조선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이 시험에는 모두 424명(조선인 201명, 일본인 223명)이 지원을 하였으며, 이 중 9명(조선인 4명, 일본인 5명)이 최종합격자가 되었다. 김용식은 4명의 조선인 중 한 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³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용식은 1929년 11월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신청하여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³⁹ 본격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1929년 11월에는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에 변호사로 등록한 후 그가 마지막으로 경찰생활을 하였던 철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⁴⁰

37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1991, 1305쪽.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 (하), 2006, 1838쪽.

3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관보」 제810호(1929.09.11.),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소화4년 9월 9일), 올해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과 같다. ~ 金龍式 ~」

<중외일보>1929. 9. 12일자 2면, ‘8월 24일에 시행한 예비시험에서 일본인 68명, 조선인 50명이 합격하였다. 예비시험을 면제받은 일본인 6명, 조선인 16명을 합하여 모두 140명이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이 중 일본인 6명, 조선인 6명이 합격하였다. 9월 8일에 구술시험을 치러 최종 9명이 합격하였다. ~ 金龍式 ~」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1929.)”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4.10.22.)」, 「(소화9년)변호사인가급명부등록환급」, 1934.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1929.)”

39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관보」 제884호(1929.12.12.), 「변호사명부 등록,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584번지 김용식이 1929년 11월 30일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신청하다.’

40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무과, 「이력서(1931.01.09.)」, 「(소화6년)변호사명부등록환급인가신청서류」, 1931. “1929년 11월 27일에 변호사 인가를 받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월하리 88번지에서 사무소를 설치하고 개업중이다.”

이후 김용식은 철원을 떠나 삼남지역으로 내려간다. 1931년 3월에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⁴¹ 3년 뒤인 1934년 12월에는 전라도로 근거지를 옮겼다.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며,⁴² 순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생활하였다.

순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김용식은 ‘금본화구(金本化久)’⁴³라는 창씨명을 사용하여 변호사 생활을 한 것으로 나온다.

2. 항일운동가의 변호

김용식의 변호사생활은 그간 알려진 바가 없었다. 시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변호사업을 개설하여 민족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⁴⁴

김용식은 변호사로 개업한 뒤 강원도 철원, 경상도 대구, 전라도 순천에서 차례로 개업하였다. 그의 변호사 시절도 현재까지 알려진 기록이 많지 않아 정확한 행적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로 근무할 당시 일부 오점이 있

41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관보>제1257호(1931.03.17.), ‘변호사명부 등록환,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인 김용식이 1931년 3월 9일에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명부 등록을 바꿔주기를 신청하여 그렇게 되다.’

42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관보>제2380호(1934.12.15.), ‘변호사명부 등록환, 대구지방법원 소속 변호사인 김용식이 1934년 12월 7일에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명부 등록을 바꿔주기를 신청하여 그렇게 되다.’

43 『사법협회잡지』 제19권 제6호, 1940. 6.

44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1991, 1305쪽.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 (하), 2006, 1838쪽.

는 경력이 있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력을 상쇄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소위 철원 격문사건으로 체포된 사상운동가인 박용기 및 김순만⁴⁵ 등의 재판에 무료로 변호를 한 것이다.⁴⁶ 철원청년동맹원이었던 박용기와 김순만 등이 1930년 2월 18일에 철원군 철원면 월하리, 중리, 관전리 일원에서 항일만세시위 및 배일전단을 배포하였다. 이때 전단을 배포한 집에는 김용식의 집도 포함되어 있었다.⁴⁷ 김용식은 이 전단을 보게 되었고, 전단의 내용 때문에 철원격문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용식의 이 변호가 지난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예비명단 중 경찰 부문 친일인사에 당초 포함되었다가, 2008년 간행된 최종명단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되었다.⁴⁸

IV. 광복 이후 김용식

1. 판사생활

김용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일제강점

45 적색노조운동 관련자로서,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보통학교 2학년을 수료한 후 철원노동야학교에서 공부했다. 1924년 무렵부터 철원경찰서 급사로 근무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때 격문을 붙이다가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30년 4월 경성지법에서 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철원, 서울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철원지청에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35년 7월 이후 서울 전매지국, 용산공작주식회사 영등포 공장, 대창직물 등에서 좌익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동지들을 획득하고 공장의 상태를 조사했다. 그해 말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어 1937년 7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6 중외일보, 1930년 2월 9일자 2면.

4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3권, 항일만세시위 및 배일전단 배포사건 신문조사·공판조서

48 엄경선, 『실악의 근현대 인물사』, 마음살림, 2009, 186쪽.

기에는 변호사만 하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는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기도 하였지만, 김용식은 변호사만 한 것이다.

1945년 광복이 된 후 미군정청에 의하여 김용식은 판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판사의 길을 걷게 되는 그는 변호사와 4·19 혁명 후 특검 부장을 역임하기도 한다.

8·15광복 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장(1951), 부산지방법원장(1952), 대구고등법원장(1954)을 역임하였다.⁴⁹

김용식의 판사생활은 미군정청 관보와 법원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식이 판사로 처음 임명된 곳은 일제강점기에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던 순천이다. 그는 미군정청에 의하여 1945년 11월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로 임명되었다.⁵⁰ 1946년 5월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장으로 임명된다.⁵¹ 이후 김용식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1948. 12. ~ 1949. 5.),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1949. 5. ~ 1951. 2.), 대구지방법원장(1951. 2. ~ 1952. 2.), 부산지방법원장(1952. 2. ~ 1954. 10.), 겸임 부산포획심판소장(1954. 9.), 대구고등법원장(1954. 10. ~ 1958. 12.) 등 법원의 고위직을 고루 역임한 뒤에 법원을 그만두고 1958년 12월에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49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1991, 1305쪽.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하), 2006, 1838쪽.

50 <미군정청관보>(1945.11.19.)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임명사령 제36호

51 <미군정청관보>(1946.06.0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사법부임명사령 제3호

평탄하게 판사생활을 하던 김용식이 변호사를 그만 둔 이유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접하게 되면서이다. 이 사건으로 김용식은 독재에 저항했던 의인으로 비추지게 되었다. 이는 후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조사하던 특검부장에 임명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김용식은 이승만 정권과 대척점에서 서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한때 이승만 정권에 부합하는 판결도 내렸다.

6·25전쟁이 교착기에 들어서 있던 1952년 6월은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 비리사건 중 하나인 중석 불사건이 일어난다. 중석을 수출해 번 달러를 민간에 불하하여 밀가루와 비료를 수입하게 하고 이를 농민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그런 와중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부산정치파동과 발취개헌의 시도로 드러난다. 6·25전쟁으로 부산에 피난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전쟁 발발 및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학살 사건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권은 이승만의 연임이 어려워지자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을 통하여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6월 25일에 발생한 이승만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⁵²일 것이다. 암살미수 사건은 임시수도인 부산의 충무로 광장에서 거행된 '6·25 멸공통일의 날' 기념대회에서 발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훈시 도

52 <경향신문> 2011. 6. 25. 1952년 이승만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정진호기자)

<경향신문> 2015. 5. 5.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이승만 저격 사건

중 단상 뒤 VIP석에 앉아있던 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승만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겼으나, 탄환 불발로 저격은 실패하였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핵심단체였던 의열단⁵³ 출신의 유시태⁵⁴였다. 유시태와 함께 암살 사주 혐의로 체포된 이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시현⁵⁵이다. 김시현은 2016년에 상영된 영화 “밀정”에서 배우 공유가 맡아 열연했던 ‘김우진’의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은 더욱 일인 독재화로 접어들게 된다. 주범으로 체포된 김시현과 유시태 외에도 이승만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인물들이 함께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부산지법을 거쳐 부산고법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당시에 재판장이 부산고법원장이던 김

용식이었다. 의열단의 정신을 새기고 있던 김시현과 유시태는 해외에 있을 때부터 파벌을 조성하고 사육에 치우친 행보를 보인 이승만 대통령을 처단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용식 재판장은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⁵⁶ 평생을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광복이 되어서도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김용식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였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면서 식민지배세력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으며 온갖 핍박을 이겨냈던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킨 대가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 당시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던 인물 중에서 특기할 만한 인물이 당시 서울고검장이던 김익진이다. 김익진은 검찰총장을 역임하다 이승만 정권의 눈 밖에 나 서울고검장으로 좌천된 인물이다. 당시 이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 중의 일부⁵⁷는 김시현과 유시태의 사형선고보다 서울고검장 김익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방점을 두기도 한다. 김용식이 이승만 정권에서 소신재판을 한 사례로 다른 재판과 더불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법리에 충실하며 소신재판을 해오던 김용식은 결국 이승만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법원을 그만두게 된다. 1958년 5월 2일에 치러졌던 제4대 총선이 그 발단이 되었다. 여춘야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 총선은 부정으로 얼룩졌다. 총선 당시 김용식은 대구고등법원장

53 1919년 만주에서 결성된 항일운동단체로 단장은 김원봉이다. 의열단에는 ‘7가살(七可殺)’이라는 맹세가 있었다. 의열단을 창단할 때 처치해야 할 일곱 부류의 인간들을 규정했다. 총독부고관, 군 수뇌, 대만총독, 매국노, 친일파, 밀정, 반민족적 토호를 대상으로 삼았다.

54 1890년 ~ 1965년, 이상준(李相俊), 유시창(柳時昌) 등으로 불리던 독립운동가로서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다. 1919년 3·1운동 때부터 독립투쟁에 뛰어들었다. 1921년 항일운동체인 의열단에 들어가 군자금 모집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23년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호들의 집을 찾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혀 7년형을 받았다. 1931년 시국비방죄로 다시 1년간 복역하였다. 광복 후에는 이승만 정권에 불만을 품고 대통령을 저격하였으나 실패하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하던 중 1960년 4·19혁명으로 석방되었다.

55 1883년 ~ 1966년. 29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다니기도 하였다. 1919년 경북 상주에서 상주헌병대에 만세운동으로 체포되었다가 탈옥한 후 상하이로 망명했다. 길림으로 가 의열단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광복 활동을 펼쳤다. 자금과 단원 모집을 위해 국내외를 드나들며 거사를 벌이고 체포 투옥되는 일을 광복 때까지 반복했다. 1944년 체포되어 복역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여 출옥하였다. 출옥하면서 고려동지회 회장으로 활동하여 1950년 2대 민의원(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1952년 백범 암살 배후로 이승만을 지목하여 저격을 시도했다. 유시태와 함께 이승만 암살미수사건으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1960년 4·19혁명으로 석방되었다.

56 <동아일보> 1952. 9. 16.

“어제 이대통령저격사건 언도 / 김시현 유시태에 사형 / 김익진 등 4씨 무죄, 8피고는 유죄”

57 <한겨레> 2016. 3. 1.

곽병찬의 항원익청(香遠益清)‘매화는 평생 추위에 떨어도 향기 팔지 않고...’

으로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투표 당일 월성군(현 경주시) 안강읍에서 자유당의 부정투표가 발각되자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에 김용식은 안강으로 달려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 결과 이듬해 6월 월성군에선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다고 한다.⁵⁸ 대구을 개표부정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투표함을 내 생명처럼 지킬 테니 돌아가십시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법원만은 살아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불법으로 얼룩진 경북지방의 선거에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장인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하급 선거위원들의 항의와 욕설도 받아가며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당시 한 언론은 대구는 ‘판사’가 지켰다는 평을 내렸다.⁵⁹ 결국 대구을 선거구는 물론 갑과 병 선거구까지 모두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1958년 4대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사건에 대한 김용식의 판단과 결정은 이승만 정권에 커다란 짐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당시 정부 수립 이후 10년이 되어가는 법관임용시기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법원에 대한 이승만정권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승만정권은 1958년 6월에 법관의 만기를 기산해 공표하였다.⁶⁰ 그동안

58 <한겨레> 2016. 3. 1.

곽병찬의 향원익청(香遠益清)‘매화는 평생 추위에 떨어도 향기 팔지 않고...’

59 <경향신문> 1958. 5. 12.

“비밀을 알고 있는 듯 / 김도선위장”

60 <동아일보> 1958. 6. 9.

“임명일을 만기로 / 연임법 11월 6일까지 불공포면 57명 자연해임 / 법무부, 법관 만기 기산해 공표” <경향신문> 1958. 6. 9.

“법무부, 법관 만기 기산해 공표 / 임명일을 만기일로 / 연임법 불공포면 57명 자연해임”

사법부(대법원)와 행정부(법무부) 간의 법관의 만기 기산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하면서 대립이 있었으나, 행정부가 사법부가 제시한 법관임명일을 만기일로 하자는 안을 따르면서 결정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임기만기된 법관의 명단을 보면 대구고등법원장 김용식은 12월 13일이 임기만료일이었다.

한편 법관 만기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지만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법관연임법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였다.⁶¹ 사법부는 임기가 끝난 법관에 대하여 대통령의 해임통고가 없는 한 연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행정부는 연임되는 것은 찬성하나 해임에 대한 대법원의 제청은 반대의견이었다. 결국 해고에 대한 내용은 없이 법관연임법안은 국회에서 무수정 통과되었다.⁶² 이에 대법원은 10월 14일 대법

61 <동아일보> 1958. 6. 9.

“임명일을 만기로 / 연임법 11월 6일까지 불공포면 57명 자연해임 / 법무부, 법관 만기 기산해 공표” <경향신문> 1958. 6. 9.

“법무부, 법관 만기 기산해 공표 / 임명일을 만기일로 / 연임법 불공포면 57명 자연해임”

62 법관연임법[시행 1958.10.16.] [법률 제499호, 1958.10.16.,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헌법 제79조에 의한 법관의 연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임발령)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법원조직법 제38조에 규정된 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한 대통령의 연임발령으로써 연임한다.

제3조 (제청기일, 임기도과의 경우) ① 전조의 제청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②전항의 기일까지 전조의 제청이 된 법관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연임여부의 발령을 받을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4조 (제청절차) 제2조의 제청에 있어서는 그 절차와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499호, 1958.10.16.>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하여서는 제3조제1항의 기일을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관회의를 열고 연임 제청을 하기 위한 절차 및 제청할 법관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해당 법관의 심사에 착수하였다.⁶³ 이 회의에서는 첫째 법관의 품위를 실추시키며, 둘째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셋째 신체이상으로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있는 법관은 제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정하고 해당 법관 57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법원장들에 대하여 연임을 제청했지만 이승만정권은 그들의 눈밖에 있던 김용식 대구고등법원장과 문기선 전주지법원장의 연임을 거부하였다.⁶⁴ 두 법원장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전에 이승만정권은 판사 7명에 대해서도 연임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총 9명이 판사 재임용에서 거부를 당한 것인데, 김용식과 문기선, 2명의 법원장급이 연임 거부를 당한 것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조용순은 ‘임명권자의 하는 일이니 할 수 없다’고 체념의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사법부가 느끼는 감정은 엄청났다. 사법부가 사실상 행정부에 예속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법원 운영에 적지 않은 동요가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것이다.⁶⁵ 김용식이 거부권 행사된 이유는 3대 정·부통령선거와 5·2 총선거를 통해 경상북도선관위원장으로 말썽 많았던

개표 중단의 파란을 겪으면서, ‘모든 것은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여 이승만정권의 미움을 산 것이다. 문기선의 경우는 재직 중에 유명한 정읍환표사건⁶⁶이 일어났고,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것⁶⁷과 이철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⁶⁸. 결국 김용식과 문기선은 정부인사에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⁶⁹ 정권에 협력하지 않는 사법부 인사에게 이승만정권이 보복한 것이다. 조용순 대법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 거부권에 대하여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임명권자의 권한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지만 정부의 연임 거부 조치는 사법부의 실정을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였다.⁷⁰

김용식의 퇴임에 대하여 같은 법관이었던 광주고등법원장 오필선은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

66 1956년 8월 13일 도의회 선거시 정읍 제2선거구인 소성면 제1·2·3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사건을 말한다. 정읍 제2선거구 투표함 호송차가 선거위원들도 동승하지 않은 채 예정된 경로가 아닌 곳을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이 바뀌치기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개표가 그대로 진행되어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정읍경찰서 소속 순경의 언론사 제보로 이 사건은 다시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는 환표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관련자들의 직무유기만을 유죄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 이후 계속적인 선거부정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는데 함평 환표사건, 보성 환표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67 <경향신문> 1958. 12. 14.

“대구고법·전주지법 원장연임도 거부 / 사법운영에 중대 위기 / 연임문제 재검토론이 비등 / 나머지 법관 23명도 불안의 빛 / 김고등법원장 대구사건때 명성 / 문지방법원장은 재직중 정읍환표사건”

68 <한겨레> 2016. 3. 1.

곽병찬의 향원익청(香遠益清)‘매화는 평생 추위에 떨어도 향기 팔지 않고...’

69 <동아일보> 1958. 12. 15.

“정부인사 / ▲ 판사 김용식 ▲ 판사 문기선 법관에 연임하지 아니함”

70 <경향신문> 1958. 12. 14.

“조대법원장담 / 실정 모르는 처사 / 모두 법관 자격 구비된 사람들”

63 <동아일보> 1958. 10. 16.

“연임법관의 심사착수 / 來22일경에 제청 / 품위실추자 등 실격원칙 세우고”

64 <동아일보> 1958. 12. 13.

“법원장 2명도 연임을 비토 / 사법부 예속감으로 동요 심각” <경향신문> 1958. 12. 14.

“대구고법·전주지법 원장연임도 거부 / 사법운영에 중대 위기 / 연임문제 재검토론이 비등 / 나머지 법관 23명도 불안의 빛 / 김고등법원장 대구사건때 명성 / 문지방법원장은 재직중 정읍환표사건”

65 <동아일보> 1958. 12. 13.

“법원장 2명도 연임을 비토 / 사법부 예속감으로 동요 심각”

이 없으며 심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였다. 김용식뿐만 아니라 문기선, 추진수 판사 3명에 대하여 모두 법관으로서 역량이 풍부하며 청렴결백한 법관 생활을 해 왔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한 일이니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⁷¹

김용식은 판사직에서 물러난 뒤에 한적한 골방에서 바둑을 두며 언론을 통하여 퇴임변을 남겼다.⁷²

그는 지나간 날에 대하여 몇 가지 일을 회고하였다. 법관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통하여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빨갱이들이 준동하던 대구에서 재판으로써 치안을 수습하라는 지시에 많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사건으로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판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한다. 제2의 모스크바로 불리던 대구에서 수백 통의 협박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을 통하여 치안확보를 가져왔으며 나라에 최대한의 이바지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느낌도 소회하였다. 당시 몸소 현장에 뛰어들어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시민들을 달래고 모든 것은 대법원이 밝혀 줄 것이라는 확약을 통해 민심을 달랬다고 하였다.

그렇게 야인이 되어 사생활을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후련하다고 하면서, 법관생활을 하면서 친구도 놓치고 누구에게든 생활걱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서 토

71 <경향신문> 1958. 12. 16.

“심히 가슴 아픈 일 / 오광주교법원장 연임 비토 문제에 언급”

72 <경향신문> 1958. 12. 16.

“나는 법대로 했다 / 대구고법원장 김용식씨의 퇴임변 / 30년간 소신 굽힘 일 없어 / 친구도 놓치고 보니 ‘토막칸’열을 것이 급해 /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밝힌다”

막간이라도 얻어서 지켜오던 소신을 굽힘 없이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하였다. 이것은 오직 법전에 충실하며 원리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소회일 것이다.

2. 변호사생활과 특검부장 임명

김용식은 이승만정권의 법관 연임 거부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렇게 변호사로 생활하던 그에게 다시 공직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의 판사생활을 그만두게 하였던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고등검찰청장(1960. 9~1961. 6) 등을 역임하고, 4·19후 3·15부정을 다루는 특검부장에 임명되어 크게 활약하였다.⁷³

4·19혁명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새 정부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대법원의 경우 전임 정권에서 행정부수반에 의하여 연임이 거부된 전 대구고등법원장 김용식을 비롯한 20명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기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⁷⁴

그러나 법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던 김용식은 검사로 임용이 되었다. 1960년 9월 검찰 인사에서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부정선거의 책임을 묻는 인사가 이루어졌다. 사표를 제출한 14명의 검사장급 간부들

73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1991, 1305쪽.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사』(하), 2006, 1838쪽.

74 <동아일보> 1960. 5. 18.

“법관 곧 다시 기용 / 연임 비토된 20명”

<경향신문> 1960. 5. 25.

“재등용 문제 논의 / 이정권 눈에 났던 법관”

중 3·15 당시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8명을 비롯한 10명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그 자리는 김용식을 비롯한 변호사 2명의 발탁과 전보·승진으로 채웠다. 이 인사에서 김용식은 대구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맡게 된 것이다.⁷⁵ 비록 자신의 원래 자리였던 법원은 아니었지만 일단 김용식은 법조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4·19혁명 후 집권을 하게 된 민주당 정권은 이승만정권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그중에서 중요한 일은 3·15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일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하게 된다.⁷⁶ 그리고 곧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조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⁷⁷ 대검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모여 특검 검찰관 인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고, 대한변협에서는 검찰관이 될 변호사 인선 기준으로 첫째 자유당치하에서 고관을 지내지 않았고, 둘째 원흉을 변호하지 않았던 변호사, 셋째 호헌선언에 서명하지 않은 자 등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감찰부의 수장 역할을 담당할 특검부장의 선출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식이 바로 특검부장에 임명된 것이 아니었다. 법무부에서는 처음에 장후영을 특검부장으로 내락한 것으로 보인다.⁷⁸ 이후 민의원에

서 협의를 통하여 오완수를 특검부장으로 임명하였으나, 오완수는 취임을 거부한다. 이에 민의원은 1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오완수의 사퇴를 만장일치로 수리하고, 각 계파 간 협의 끝에 내정한 김용식을 특검부장으로 선출하였다.⁷⁹ 이 투표 결과 처음에 각 계파 간 협의를 통하여 특검부장에 내정되었지만 직을 거부한 윤원상이 2표, 당초 법무부에서 내락한 장후영이 1표를 득표하였다. 이런 결과는 특검부장 자리를 놓고 며칠 사이에 정치권에서 술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김용식을 특검부장으로 선출한 특별검찰부는 1월 16일부터 집무를 개시하였다.⁸⁰ 그런데 특별검찰부의 활동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⁸¹ 정부측의 무성의한 대처 및 청사를 제공하기로 한 국방부의 변심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확보부터 문제가 되어 집무를 개시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다. 특검의 활동은 조사기간의 절대적인 부족, 조사 당사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는 김용식 특검부장도 스스로 인정하였다.⁸² 이

후 부정선거 수사 담당자로 / 원흉변호인 등 제외 / 호헌선언 서명자도 / 변협인선 기준”

79 <동아일보> 1961. 1. 13.

“특검부장에 김용식씨 / 가 143표로 선출 / 공소기간은 2월 말까지”

80 <경향신문> 1961. 1. 15.

“특별검찰부 16일부터 집무개시 / 11명은 정식위촉 / 19명은 변협측과 회합 후 결정”

<동아일보> 1961. 1. 15.

“16일부터 특검활동 개시 / 검찰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할 터 / 김특검부장 담”

81 <동아일보> 1961. 1. 16.

“푸대접받는 특별검찰부 / 지정된 청사 들연 변경 / 16일 집무 시작하려할 때 정부서 통고 / 조속해결 노력 / 국무원사무처 장차장 담”

82 <동아일보> 1961. 3. 2.

“수사 미흡은 죄송 / 김특검부장 시효 완성 후 회견”

<경향신문> 1961. 3. 3. <전단광고>

75 <경향신문> 1960. 9. 24.

“검사장급 발령”

<동아일보> 1960. 9. 25.

“대구고검장에 김용식씨 등 / 검찰간부 후임을 발령”

76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시행 1960.12.30.] [법률 제567호, 1960.12.30., 제정]

77 <경향신문> 1961. 1. 10.

“대검 「특검」 인선에 착수 / 현직 검사 중에서 5명 / 4·19 후 부정선거 수사 담당자로 / 원흉변호인 등 제외 / 호헌선언 서명자도 / 변협인선 기준”

78 <경향신문> 1961. 1. 10.

“대검 「특검」 인선에 착수 / 현직 검사 중에서 5명 / 4·19

후에도 특검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간다.

특검의 활동에 큰 변화가 온 것은 5·16군사쿠데타였다.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모든 공판은 정지되고 군사혁명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검의 사무도 마비되었다.⁸³ 이에 특재는 혁명위의 통고를 기다리고, 특검은 통고가 있을 때까지 종전처럼 계속 집무할 것이라는 방침을 유지하였다.⁸⁴ 그리고 곧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김용식 특검부장을 비롯한 특별검찰관들을 예산낭비 및 수뢰혐의로 구속한다.⁸⁵ 그 후 김용식은 정부인사에서 원에 의하여 면직되었다.⁸⁶ 군사정부에 의하여 구속된 김용식은 1961년 9월에 직무집행에 불성실한 점은 있었으나 관대히 처분한다는 혁명검찰부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석방되었다.⁸⁷

“친애하는 국민에게 보고함 / 특별검찰부장 김용식 백”

<경향신문> 1961. 3. 3.

“잠적했던 피의자들 거리를 활보 / 특검이 활동 멈춘 직후 / 다시 불잡힐 걱정 없다는 듯이 / 시경서 체포명령 / 명단 만들어 일선서에 배부 / 특검도 경찰에 강력 지시”

<경향신문> 1961. 3. 4.

“장총리에 보고 / 김특검부장”

83 <동아일보> 1961. 5. 16.

“공판 모두 정지 / 대법원 / 대법관 선거도 무기 연기 / 특재 특검 / 도심에선 휴교”

<경향신문> 1961. 5. 17.

“서성거리는 특재와 특검”

84 <경향신문> 1961. 5. 18.

“특재업무를 정지 / 문소장 담 / 혁명위 통고 있을 때까지”

<동아일보> 1961. 5. 18.

“특검 계속 집무 / 김부장, 혁명엔 언급 회피”

85 <경향신문> 1961. 5. 22.

“특별검찰관 구속 / 국가재건최고회의 발표 / 기대에 배반 수회혐의로”

<동아일보> 1961. 5. 23.

“특별검찰부 검찰관 17명 구속 / 국민기대에 배반·수회혐의 도”

86 <경향신문> 1961. 6. 23.

“~ 검사 김용식 ~ 의원면본직”

87 <경향신문> 1961. 9. 26.

“특검 김용식씨 등 8명 / 불기소 석방키로 / 박속희·최하영

그렇게 법조계를 떠난 김용식은 대구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하였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청빈과 고독 속에 스스로 음독자살을 택하면서 생을 마감하였다.⁸⁸

V. 김용식에 대한 평가

지역에서 김용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래의 서술처럼 주로 해방 이후 판사와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집중되어 있다.

공은 평소 공명정대하여 청렴강직한 법조인의 표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퇴임 후는 다시 변호사 개업을 했으나 평생을 오직 참된 법조인의 신성한 공직에 초연하고 겸허한 자세로 세정에 물들지 않았으며 청빈한 생활로 셋방을 전전하다 여생을 마친 고매한 인격자였다.⁸⁹

그동안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의 한계로 인하여 생애 전체를 살피지 못하고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광복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살폈기 때문이다.

씨는 공소취하 / 박혁검부장 발표”

<동아일보> 1961. 9. 27.

“전특검검찰관 / 8명 불기소 / 박속희·최하영씨는 공소취하 / 박혁검부장 담”

88 <동아일보> 1963. 5. 20.

“전특검부장 김용식씨 자살 / 애꿎은 유서 여섯통 남기고 / 18일 대구서”

“오늘의 화제 / 청빈 35년의 자판 / 고적 속에 스스로 간 김용식씨 일대 / 못내 빛 걱정 / 독학입신...비참한 만년을 시음 속에 / 유산은 손목시계 하나”

<경향신문> 1963. 5. 20.

“전 특검부장 김용식용 음독자살 / 위롭고 빛 쫓들려 / 18일 상오 대구에서 / 청렴의 유산 팔뚝시계 하나”

<국민보> 1963. 6. 12.

89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1991, 1305쪽.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사』(하), 2006, 1838쪽.

김용식의 평가는 현재까지 확인된 기록만으로 살펴봤을 때는 1929년 변호사를 개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을 그만두기 전까지 공직에 근무하면서 김용식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는 일제강점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보통문관시험을 봐 합격하여 경찰 고위간부를 지냈다. 경찰로 근무하면서 사건을 일부러 조작하고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김용식은 경찰을 그만두던 1929년 이전까지는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일제강점세력의 식민지 지배기구에 근무하였고 강점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강점세력으로부터 독립을 갈구하던 당시 우리 민족사적 흐름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1929년에 김용식은 변호사시험을 보면서 일제강점세력의 지배기구에서 떠나게 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부귀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던지는 아직 기록을 찾지 못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변호사를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무료변호를 하게 된다. 독립운동가들의 전담배포대상에 있던 김용식은 이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광복 이후의 삶은 법치의 생활화였다. 지배권력과 대척점에서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던 그도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사람들의 행적이나 동기의 해석보다는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독립운동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김용식이 실제로 재판에 참여하여 선고하였던 사건을 분석하여 그가 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의 사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정권과 대척점에서 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행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정의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사회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주권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 제도를 흔탁하게 하고 부정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엄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는 점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의 실권자였던 박창암의 회고를 통하여 그의 성품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

내가 박정희한테 가서 ‘불기소 처분합시다. 곧은 사람을 처분하면 민정의 씨를 말립니다’ 고 주장했다.⁹⁰

김용식의 이러한 성품은 그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였을 때 소지하고 있던 회종시계를 팔아 장례식을 치르라고 한 점에서도 드러난다.⁹¹ 그가 청빈한 삶을 유지하였고 부정을 멀리하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것이다.

Ⅵ. 맺음말

도문동에서 태어난 김용식은 일제강점기 변호사를 거쳐 광복 후 판·검사를 역임한 것으로 시사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사의 기록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에 헌병보조원을 거쳐 면서기, 순사보 등 일제강점

90 김유경, <인터넷언론 프레시안> 2003. 12. 12., 박창암 회고.

91 김유경, <인터넷언론 프레시안> 2003. 12. 12., 박창암 회고.

세력 지배수단의 말단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경찰 간부로 진입하게 된다. 경찰로 근무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겪었지만, 그는 다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신분 상승을 위한 꿈을 이어가게 된다. 광복 후 판사가 되어서는 이승만정권과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는 데 부합하는 판결도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김용식은 어느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인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그에 대한 자료가 좀 더 모아졌을 때, 특히 그의 사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었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모든 기록은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공자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고 하였고, 대부분의 「성경현전(聖經賢傳)」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현대와 맞닿아 있는 시기의 인물 평가는 현재진행형이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공과 과에 대한 것이 공평하게 들어가야 한다. ‘술이부작’의 태도를 취해야지 ‘전(傳)’의 형식을 취한다면 선현 선양이 아닌 숭모나 우상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군사는 2차 사료가 되어야 한다. 한 인물이 생활하던 시대의 기록 등인 1차 사료를 충실히 모아 정리하기 때문이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인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모두 수집하여 정리해야 한다. 남아 있는 기록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군사는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실의 기록이어야 한다. 여러 자료의 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평가는 각 지역의 향토연구자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즉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집(2차 사료집)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자료(고서, 고문서, 신문 등)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 다양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한다면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도움을 분명히 줄 것이다. 그러기에 일시에 모든 자료를 정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를 찾아 정리·보완하는 작업이 앞으로 시·군사 편찬을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동향

2017 속초 문화예술 해적이

‘2017 속초문화예술 해적이’는 설악신문의 문화면을 요약하여
지난 1년간 속초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속초문화 365와 함께 지역문화예술계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속초문화원 문화자원봉사 문체부장관상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지난달 30일 서울시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열린 2016 문화자원봉사 자대회에서 최우수 문화자원봉사 시군구지원센터로 선정돼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속초문화원은 지난 2014년 10월 속초시지원센터로 인가받아 문화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사업홍보, 회원관리, 매칭등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설악 드림친구들 7일 창단연주회

설악 드림친구들(총감독 장근영) 창단연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설악 드림친구들은 6개월 전 속초·고성·양양지역 40~50대 직장인 8명이 결성했다.

원 기타 트리오 신년음악회

원영백 한국기타협회 강릉지부장의 3남매 원경화·원수빈·원승식 씨가 트리오로 첫 공연을 한다. 한국기타협회 속초지부(지부장 원경화)가 주최하는 원 기타 트리오 신년음악회가 오는 7일 오후 4시 속초

“속초는 아름답고 시적인 도시”

소설은 속초가 아닌 부산을 배경으로 쓰일 뻔 했다. 지난달 27일 6시 30분 설악문화센터에서 열린 <속초에서의 겨울>(북레시피)의 저자 엘리자 수아 뒤 사팽 초청 북 콘서트에서 작가는 처음 소설의 배경으로 항구도시를 찾다가 부산을 배경으로 하려고 했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속초시립박물관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속초시립박물관이 2017년 겨울방학 어린이 문화학교를 오는 19~21일 2박3일 동안 개최한다. 어린이문화학교는 초등학교 3~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구석구석 박물관 여행기, 박물관 퀴즈 탐험대 OX를 맞춰라!, 조선왕실-왕과 왕비를 만나다, 복주머니 만들기, 떡국 만들어 먹어보기, 국립산악박물관과 석봉도자기 미술관 방문, 영화 관람, 쿠키 클레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속초문화원 ‘속초문화 32호’ 발간

속초문화원이 지역문화의 한 해 소식을 담은 ‘속초

문화 32호'를 발간했다. 이번 '속초문화'에는 속초 문화원의 한 해 사업을 정리하는 '속초문화 365'를 비롯해 도시변천사기록사업 전시회 '기억을 잇다, 미래를 상상하다' 작품들과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의 연구논문 '속초사자놀음의 전승과 정착양상', 속초 근대역사의 문화자원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결과가 실렸다.

2월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오는 14일부터 향토문화학교 25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문화학교는 고전무용(15명), 노래교실(40명), 민요교실(20명), 서예교실(25명), 장구교실(15명), 사물중급(장구 1년 수료생 20명, 사물고급(사물중급 1년 수료생 15명), 한지공예(20명), 통소교실(15명) 등 9개 강좌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단체 공모

속초시가 오는 24일까지 '2017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연예술단체를 공모한다. 올해는 모두 1,520만원이 지원된다. 모집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 분야로 지원규모는 공연 1회당 300만 400만원 이내이다.

속초문화원 3월 7일 원장 이·취임식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오는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제13대·14대 원장 이·취임식을 연다. 속초문화원은 지난달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계남 부원장을 제14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4년간이다.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발간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향토사안내서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이하 명산설악)를 발간했다. <명산 설악>은 낮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우리와 소통해 온 설악산을 문화콘텐츠의 관점으로 바라본 책이다.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설악산 글을 모아 그의 제자인 연선에 씨가 편집했다.

'꿈꾸는 사자, 속초를 거닐다' 공연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으로 제작한 창작놀이극 '꿈꾸는 사자, 속초를 거닐다'가 새로운 구성으로 속초와 강릉 무대에 오른다.

2017 팬 아시아 해시대회 국비 확보

속초시가 오는 10월 26~29일 설악동 일원에서 개최하는 '2017 팬 아시아 해시(PAN ASIA HASH)대회'의 국비를 확보해 대회준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수 나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사라진 뒤 최근 미국에서 발견된 속초신흥사 '영산회상도'의 환수 운동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속초·고성·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계, 봉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속초시 문화재 찾기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6일 발족됐다.

정성수 아사모 회장 '시민상' 수상

아사모(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성수 회장이 (재)아름다운맵이 수여하는 시민상을 수상했다. 정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2016 마을미술 성과보고회'에서 속초시의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물

심양면으로 지원한 공로로 시민상을 수상했다.

속초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추진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2017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속초문화원은 올해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할 예정이다. 기존의 주제별 변천사 발굴 및 전시와 함께 ‘속초시민 생애사 쓰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속초 도시변천사 잡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속초문화원 독립원사’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52회 설악문화제 먹거리·볼거리 강화

올해 제52회 설악문화제는 9월 23~24일 산악페스티벌이, 10월 13~15일 거리페스티벌이 열린다. 속초축제위원회(이사장 백영철, 이하 축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속초예총 27일-속초민예총 28일 정기총회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은 오는 27일 오후 4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2017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수석부지회장을 선임하고 감사 2인을 선출한다. 또 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을 추인하고, 속초예술상 규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3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학부모동아리 회원 모집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학부모교육지원단 운영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분야별 학부모 동아리 신규회원을 모집한다. 교육지원청 학부모동아리는 학부

모소식지 제작과 도교육청 학부모기자단 활동을 하는 ‘학부모기자단(글쓰기동아리)’과 학교 토론수업 연계 및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하는 ‘학부모토론지원단(독서 토론동아리)’, 학교놀이활동 지원 및 놀이문화확산을 위한 활동을 하는 ‘학부모 놀이지원단(놀이동아리)’이 운영된다.

속초시립박물관 소장품 정보 구축

속초시립박물관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한다. 시립박물관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17 전국 공사립(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에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선정돼 소장품 등록인력 인건비와 촬영팀 파견 등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속초예총 정기총회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속초예총은 올해 제28회 종합예술제를 비롯해 제34회 강원연극제 참가, 제3회 훈춘청소년 문예대회, 2017 송년예술제, 제3회 굿모닝 바다사랑 전국사진촬영대회, 2017 거리 버스킹 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민예총 정기총회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효)이 지난달 28일 속초시문화회관 문화사랑방에서 2017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세권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적은 예산으로 속초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창의적인 사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3회 갯배예술제는 아바이마을축제답게 마을주민과 민예총이 협력해 마을축제로 이끌었

다”고 평가했다.

김계남 제14대 속초문화원장 취임

김계남 제14대 속초문화원장이 지난 7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속초문화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이병선 속초시장과 김종희 시의회 의장, 김성근 도의회 부의장, 김시성 도의원, 류종수 강원도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도내 문화원장, 정봉재 속초예총 회장, 박민호 속초민예총 회장, 문화원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원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제2회 전국 이북실향민문화축제 준비 돌입

속초시가 ‘제2회 전국 이북실향민문화축제’를 통일부와 공동으로 광복절과 연계해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또 효율적인 축제의 운영·홍보 등을 위해 축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이북실향민문화축제는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청호동 아바이마을에서 열린다.

속초문화원 지역아동센터서 향토사교육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향토사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속초시의 지원으로 오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하나로아동센터에서,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다솜아동센터에서 진행된다.

광개토대왕릉비 탁본자료 상설 전시

속초시립박물관은 고구려 최전성기의 왕인 광개토대왕릉비 탁본자료를 상설 전시한다. 전시되는 탁본자료는 실물탁본 1세트(4장)와 축소탁본(전체 이미지 스캔), 주요부분 탁본 1세트(3장)다.

속초문화원 직제 개편 · 조직 확대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이 직제 개편과 조직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사무국을 ‘문화사업’, ‘문화경영’, ‘문화콘텐츠’ 3개 팀으로 개편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속초문화원 풀묶음문화나눔봉사단 운영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의 ‘신바람 나는 풀묶음문화나눔봉사단’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어른신문화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으로 만나는 베트남 오지마을

속초·양양지역의 사진작가들이 창작활동을 위해 지난해 10월 창립한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사사모)’이 오는 4월 1~7일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첫 작품전을 개최한다.

4월

‘어르신 생애사 쓰기’ 참가자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이 속초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노인들이 자서전을 쓰는 ‘나의 이야기가 속초의 역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3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2017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추진

속초시와 문화원이 올해 다양한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근현대 생활사와 도시변화상 등을 사진, 영상, 자료집, 구술사 등으로 기록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 준비 박차

속초시가 오는 10월 26~29일 개최되는 ‘2017 팬 아시아 해쉬(PAN ASIA HASH)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장을 단장으로 하는 15개 지원반을 편성해 부서별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분야별 기관·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속초시 2017 팬아시아 해쉬대회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주요현안사항 협의 및 시민들과 함께 대회 ‘봄’ 조성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설악동 벚꽃터널서 ‘속초 봄!’ 이벤트

속초시가 오는 15일 설악동 벚꽃터널에서 봄 나들이객을 위한 ‘속초, 봄!’ 이벤트를 연다.

시는 이날 ‘봄을 여는 소소한 이벤트’를 주제로 어쿠스틱밴드를 비롯해 비트박스·탭댄스·퍼커션과 인디밴드공연, 저글링, 마술쇼, 마임공연 등을 선보인다.

“제52회 설악문화제에 참가하세요”

(사)속초축제위원회(이사장 백영철)가 제52회 설악문화제 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설악문화제는 9월 23~24일 산악페스티벌이, 10월 13~15일 거리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속초문화원 속초8경 안내봉사 활동가 배치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은 지난달 14일부터 6개 주요관광지에 속초8경 안내봉사 활동가들을 배치했다.

런 갯마당, 봄을 노래한다

런 갯마당이 다양한 봄 공연을 선보인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하는 ‘강원도 관광상품 상설공연’은 5월 20일부터 엑스포공원과

먹거리촌 등에서 25회에 걸쳐 속초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작품 <속초의 꿈>을 공연한다.

상도문 문화자원 활용 상생문화재 추진

속초시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속초도문농요 등 상도문마을이 문화자원을 활용해 상생문화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동진 제5대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장

주동진(50, 사진) 신임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장은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 온 국악의 대중화와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는 지난달 18일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주동진 부지부장을 제5대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속초시 ‘2017 찾아가는 문화활동’ 시작

속초시의 ‘2017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지난 19일 성암노인복지센터에서(유)런갯마당의 ‘가지가지’ 공연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유)런갯마당, 두두몽컬쳐, 극단 청봉 등 8개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참여한다.

유쾌한 오페라타 ‘박쥐’ 속초 공연

서울예술가극연구회(회장 안정희)가 역사상 최고의 오페라타로 꼽히는 ‘박쥐’를 속초 무대에 올린다. 영북 서울대동문회(회장 조윤호)와 함께 마련한 ‘박쥐’는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관객들을 만난다.

제8회 영랑호 화전문화제 개최

제8회 영랑호 화전문화제(대회장 박재호 중앙초교 교장)가 오는 29일 오전 9시 보광사 경내에서 열린다. 영랑호화전문화제제전위원회(대표이사 김외

길)가 주최하는 화전문화제는 글짓기, 그림그리기, 모바일 3행시 짓기, 스마트폰 사진촬영대회가 진행된다.

5월

제28회 속초종합예술제 18일 개막식

제28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오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다채롭게 진행된다. 올해 속초종합예술제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속초예총(회장 정봉재) 8개 협회(문인·미술·연극·음악·국악·사진작가·무용·연예예술인)가 주관하는 공연, 경연, 전시 등 12개의 행사가 펼쳐진다.

속초8경 사진일기 20일까지 공모

속초민예총 사진협회(회장 양양수)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속초8경 사진일기를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후산 최명길 시인 3주기 문학제

물소리詩낭송회(대표 이선국)가 후산 최명길 시인 3주기 문학제 및 제155회 물소리詩낭송회를 오는 20일 오후 3시 설악문화센터 1층 북카페에서 개최한다.

속초문화원 '속초농악대' 단원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속초농악대 단원을 모집한다. 속초농악대는 속초시립풍물단, 런갸마당 등 지역예술인들과 지역민이 함께 만들며, 관내 다양한 행사에서 속초농악을 선보일 계획이다.

경동대·속초민예총, 문화예술행사 협력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와 민예총 속초지부(회장 박민효)가 지난 10일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문화예술행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및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속초시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개강

속초시립박물관이 지난 12일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2017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사립박물관협회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행하고 있다.

2017 예술축전-속초8경 페스티벌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효)이 오는 27~28일 이틀간 엑스포장 분수광장과 상도문 학무정에서 '2017 예술축전-속초8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 준비 속도

속초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28회 속초종합예술제 국제교류행사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의 제28회 속초종합예술제가 한창인 가운데 사진과 미술, 무용분야의 국제교류행사가 이어진다. 이번 국제교류전에는 속초사진작가협회 회원 작품 50점과 야생동북호랑이, 사냥 등 훈춘시사진작가협회 회원 작품 30점 등 모두 80점이 전시된다.

장애인의 날 기념 그림그리기대회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 속초엑스포장에서

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학교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2년연속 선정

속초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재)아름다운맵이 주관한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6월

속초북청사자놀이 연희반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이 속초북청사자놀이 연희(무용)반 여름특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특강은 7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2개 강좌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애원성춤과 승무를, 오후에는 뉘트리춤과 곱추춤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실향민문화 다양한 콘텐츠로 조명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이 실향민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하고 있다. 속초문화원은 그동안 ‘북청사자놀이’, ‘돈돌라리’ 등 실향민문화를 속초의 대표 콘텐츠로 만들어 ‘설악문화제’ 등 속초 축제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축제에 초청을 받았다.

길태주 선생 기증유물 상설 전시

속초시립박물관이 오는 15일부터 길태주 선생의 기증유물을 상설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상평통보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현행화폐와 세계의 화폐, 우리나라의 우표와 북한 우표, 엽서, 기념주화와 수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300여점이 선보인다.

“실향민문화에 예술가 상상력 더한다”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효)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청호동 신수로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2017 갯배예술제를 개최한다. 갯배예술제는 아바이마을과 실향민문화를 예술로 표현하는 축제로 올해 4회째이다.

런 갯마당, 28일 하우스콘서트

런 갯마당이 오는 28일 저녁 7시 30분 연습실에서 하우스콘서트 런&톡 두 번째 이야기 <‘L’-너나들이>를 연다.

주현미와 재즈의 특별한 만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오는 28일 속초에서 ‘주현미와 만나는 K-JAZZ 러브레터’와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청춘마이크 버스킹’ 공연이 각각 열린다.

예술크루 양성 ‘문화시민학교’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은 문화올림픽 콘텐츠 공연사업의 일환으로 예술크루 양성을 위한 ‘문화시민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동아서점-소설가 성석제 ‘속초 맛 향연’ / 문우당서림-엄상빈 사진집 ‘북 콘서트’

속초 ‘동아서점’과 ‘문우당서림’에서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음식과 사진을 주제로 한 이야기 마당이 각각 펼쳐진다. 동아서점에서는 이날 2017 문화가 있는 날 ‘문학식당’ 속초편 ‘성석제와 함께 하는 속초 맛의 향연’이 진행된다.

7월

2017 속초문예대학 수료식 열려

2017 속초문예대학 수료식이 지난달 27일 속초평생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상국 시인을 비롯해 수료생과 강사진이 참석해 문예대학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초등생 여름방학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문화강좌 수강생을 오는 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여름방학 강좌는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 대상 2개의 문화강좌가 8월 7일부터 18일까지 각 9회 진행한다.

“속초 과거 · 현재 · 미래, 함께 걸을래요”

속초시립도서관이 ‘2017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속초의 과거·현재·미래, 함께 걸을래요?’ 프로그램을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참가자가 인상 깊었던 장소와 이야기를 인문지도로 표현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 D-100일 기념 영랑호서 ‘해쉬 이벤트 런’ 개최

속초시가 오는 10월 26~29일 열리는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의 성공 개최와 봄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영랑호 일원에서 D-100일 기념 ‘해쉬 이벤트 런’ 행사를 개최한다. 대한해쉬협회와 속초설악해쉬클럽이 공동주최하고 속초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영랑호 잔디광장을 출발, 영랑호 주변 코스를 달리며 해쉬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상도문서 ‘내 멋대로 농가밥상’ 체험

속초시와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가 지난 8일, 500년 전통의 한옥마을인 속초 상도문마을에서 ‘내 멋

대로 농가밥상’이라는 주제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내 멋대로 농가밥상’은 오는 22일에도 열리며, 상도문마을의 풍경과 한옥의 미, 인심을 체험하는 ‘시골동네놀이’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과서 속 유물 보고 만지는 전시회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나라 대표 유물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전시회가 속초에서 열린다.

속초 ‘만지는 박물관(대표 황자정)’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강원진로교육원 갤러리에서 여름방학 기획전 ‘백문이불여일타치전-교과서 유물’을 연다.

8월

속초문화원 제례위원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속초시 제례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속초시 제례위원회는 설악제례와 정월대보름 제례 등 속초문화원이 주최하는 지역 제례행사의 진행을 맡는다. 모집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연습에 따른 역할을 지정한 후 제52회 설악문화제 산악제부터 참여할 계획이다.

런 갯마당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선정

런 갯마당(대표 최종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호동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공연을 펼친다. 런 갯마당은 희망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작품 ‘축제’를 응모해 선정됐으며, 4,0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9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0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 이용하세요”

속초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

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을 확대하고 발급 및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속초시에서는 전체 대상자 4,431명 중 3,579(80.8%)명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중으로 대상자 중 850여 명이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은 57.7%로 나타났다.

“설악산과 백두산 사진으로 만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설악과 백두가 사진으로 만난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김성학)와 중국 훈춘시사진작가협회(주석 허선행)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한중 국제 자매도시 사진 문화예술 교류 ‘백두에서 설악까지’를 진행 중이다.

장규호 속초예총 국제교류단장 ‘옹고집전’ 출연

장규호 속초예총 국제교류단장이 오는 24일 오후 3시와 7시 춘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무대에 오르는 <옹고집전>(연출 용선중)에 출연한다. (사)문화커뮤니티 금토가 기획한 <옹고집전>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원로예술인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해에는 속초를 비롯해 도내 5개지역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2017 속초국제장애인영화제 25일 개막

속초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재균, 장애인자립센터)가 오는 25~26일 이틀간 엑스포광장 특설무대에서 ‘2017 속초국제장애인영화제’를 개최한다. 장애인자립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열었던 ‘속초 전국장애인 영화제’를 올해부터 인권과 문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단위 참여형 축제로 연다.

속초문화원 ‘문화다양성’ 연수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속초도문농요전수관에서 문화다양성 연수를 진행한다. 문화다양성 연수는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과 다양한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사업이다. 이번 연수는 ‘문화, 다양성으로 건다’를 주제로 ‘문화다양성을 말하다’(강의), ‘문화다양성으로 놀다’(활동), ‘문화다양성을 마주하다’(토크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9월

풀이음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속초시 풀이음작은도서관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풀이음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17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시 관광객 맞이 거리공연

속초시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업과 관광객 맞이 거리공연을 오는 9월부터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속초예총(회장 정봉재) 주관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로데오거리, 엑스포광장, 척산죽육공원 등지에서 국악, 서양음악, 대중가요, 성악, 퓨전음악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제52회 설악문화제 ‘시민 퍼레이드단’ 모집

사)속초축제위원회(이사장 백영철)가 제52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메인행사인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할 ‘시민 퍼레이드단’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다. 시민 퍼레이드단 모집 대상은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공연팀, 취미 및 봉사동아리, 각종 기관단체 등이며, 청소년동아리는 2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설악문화제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되며, 선정 단체에는 출연료와 소품제작비가 지급된다.

“K-POP 콘테스트에 참가하세요”

속초시가 오는 10월 26일 청초호 유원지 일원에서 ‘2017 한-뉴(韓-NEW)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7 한-뉴 페스티벌은 속초시가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한류문화 열풍의 킬러콘텐츠인 드라마 OST 콘서트와 국내 최정상급의 K-POP 아티스트들의 축하공연으로 꾸미는 음악공연 행사이다.

서양화가 김도연 네 번째 개인전

대한민국공무원미술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김도연씨가 지난 1일부터 아트플랫폼 갯배 갤러리에서 네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개인전은 ‘갯배 그리고 그 리움’이라는 주제로 ‘갯배’를 비롯해 ‘동백’ ‘능소화’ ‘해바라기’ ‘양귀비’ ‘갯벌의 여인들’ ‘모자를 쓴 소녀’ ‘세월’ 등 꽃과 인물 그림 35점이 전시됐다.

한·중·일 시인들 속초서 시낭송

한국과 중국, 일본 시인들이 함께하는 시낭송회가 속초에서 열린다. 물소리詩낭송회(대표 이선국)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설악문화센터 1층 북카페에서 ‘2017 평창 한·중·일 시인 축제 - 속초 시낭송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중·일 시인 시낭송 콘서트는 속초를 비롯해 강릉, 평창, 정선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속초민예총 2017통일문학제 20일 개최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효)이 오는 20일 오후 7시 공간소극장에서 ‘2017통일문학제’를 개최한다. 올해 통일문학제는 성공회대학교 김창남(사진) 교수가 ‘나의 문화편력기-산업화시대의 대중문화’를 주제로 강연과 음악을 들려준다.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속초 도리원농악 공로상 수상

속초 도리원농악이 지난 7~8일 이틀간 평창군 용평체육관에서 열린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은 지난 5월부터 단원들을 모집해 이번 민속예술축제를 준비해 왔다. 농악대는 속초시립풍물단, 런갯마당 등 지역예술인들과 일반 시민 56명으로 구성됐다. 속초도리원농악은 100년 전통의 서낭굿에서 시작됐으며, 강릉문화원 농악에 경기농악이 가미된 점이 특이하다.

‘실향을 딛고 세운 속초’ 공동기획전

속초시립박물관(관장 박동희)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제2전시실에서 ‘실향을 딛고 세운 도시, 속초’ 공동기획전을 열고 있다.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6·25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사의 커다란 아픔을 딛고 속초를 일군 지역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배’, ‘명태낚시’, ‘물지게와 물통’ 등 유물과 사진, 동영상 등 140여점을 선보인다.

“단풍 물드는 가을, 제52회 설악문화제와 함께 해요”

제52회 설악문화제가 오는 9월 23~24일(산악페스티벌)과 10월 13~15일(거리페스티벌) 설악산 일원과 설악로데오거리 등지에서 개최된다. 속초의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설악문화제는 올해도 ‘50년 설

악의 매력으로, 100년 축제의 설렘으로'란 슬로건 아래 (사)속초축제위원회(이사장 백영철)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평창동계올림픽 봄 업 조성 버스킹 공연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은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지역의 주요 관광거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봄 업 조성 버스킹 공연'을 연다. 10월 1일과 2일 오후 3시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는 제목으로 황소광장, 엑스포공원 분수광장에서 댄스, 포크, 락, 팝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속초문화원 어울당 동상 수상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 어울당(반장 이상준)이 지난 20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2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개최한 이번 경연대회에는 도내 12개 사물놀이단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속초문화원 어울당은 2012년 창단해 그해 사물놀이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트플랫폼 갯배서 전통문화 상설공연

런 갯마당(대표 최종현)이 추석과 가을 단풍 관광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아트플랫폼 갯배 앞에서 '2017년 전통문화 지역 브랜드 상설공연'을 펼친다. 런 갯마당은 실향민문화의 대표콘텐츠인 북청사자놀음을 전통연희로 각색해 무대에 올린다.

10월

속초시립박물관 5일 민속체험행사

속초시립박물관은 추석 다음날인 오는 5일 온 가

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색송편 빚기, 제기 만들고 차기, 꼬마 장승 만들기, 속초북청사자탈 만들기, 가족 투호 대회, 민속놀이가 진행되고, 시립풍물단의 상모판굿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설악수채화 열 번째 정기 작품전

그림 동아리 설악수채화(회장 박귀례)가 오는 25~29일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 번째 정기 작품전을 개최한다. 작품전에는 15명 회원이 그린 설악의 풍경과 꽃, 인물 등 40여점이 전시된다. 올해는 전시 10주년을 기념해 '재능기부전'도 마련했다. 회원들 각자가 2점의 소품을 따로 그려 기부하고 판매한 기금으로 속초지역 소외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임흥빈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임흥빈 속초시 기획감사실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개최한 제16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9월 29일 대상(환경부장관상)인 임흥빈 실장의 설악산 '공룡능선 노을 빛' 등 사진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서울독립영화제 작품, 속초 순회상영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 2017 in 속초'가 오는 27~28일 이틀간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문화공간에서 열린다. 강릉씨네마떼끄가 마련한 순회상영회는 단편 <꿈의 대화> <시대를 비행하는 카메라>와 장편 <노후 대책 없다> <분장> <꿈의 제인>이 상영된다.

제52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성황

제52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이 지난 13~14일 설악로데오거리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거리페스티벌은 메인 행사인 거리퍼레이드를 비롯해 속초시민한마당, 각종 공연, 전시,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다. 연계행사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과학 싹 잔치’와 속초시보건소의 ‘시민건강 대 체험’, 속초관광수산시장 먹거리축제, 생명사랑 연합 캠페인이 진행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속초문화원 ‘돈돌라리요’ 공연단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 ‘돈돌라리요’ 공연단이 지난 17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7 강원 어르신문화 대추전에서 재능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시군 문화원에서 실버세대 어르신들로 구성된 16개 팀이 참가했다.

천연기념물 설악동 소나무 당제 재현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이 오는 28일 오전 7시 설악동 소나무(천연기념물 351호) 앞에서 설악산 개발로 사라진 당제를 재현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이 발간한 <한국의 마을제당>에 의하면 지난 1967년 마을제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악동 소나무’는 과거에 서낭나무로 보호됐고 나무 밑에 돌을 쌓아 만든 제단에서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당제를 올려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수 시사회

(사)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이사장 이상집)는 지난 18일 오후 속초시 문화회관 사랑방에서 설악산 신흥사 영산회상도 영상기록물 시사회를 열었다. 이날 시사회에는 국외문화재단, 속초시, 문화재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시사회에서는 영산

회상도의 역사적 유래와 문화적 가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1950년대 초반까지 신흥사에 소장된 사실들이 소개됐다.

‘DMZ 철조망 녹이다’ 초청 사진전

전태극(사진) 속초민예총 고문이 ‘평화의 올림 DMZ의 철조망을 녹이다’ 행사에 초청돼 강릉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사진전을 연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기념으로 강원민예총이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하는 전 고문의 초청사진전은 오는 11월 5일 임진각에서, 6일에는 강릉시 올림픽파크 내 잔디광장에서 각각 열린다.

2017 빛담 여성사진가 5인전

‘2017 빛담 여성사진가 5인전’이 휴먼스토리(사람 이야기)를 주제로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속초 청호동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열린다. ‘빛담’은 빛에 담는다는 뜻으로 속초 청봉사진회 회원인 이영숙·윤영미·문은자·이순재·서경숙 씨가 2015년에 만든 여성사진가 모임이다.

11월

천연기념물 ‘설악동 소나무’ 당제 재현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이 지난달 28일 오전 7시 설악동 소나무(천연기념물 351호) 앞에서 설악산 개발로 사라진 당제를 재현했다. 이날 당제는 이상호 속초제례위원의 사회로, 김계남 속초문화원장이 축관을, 전병식 설악여행자센터 대표가 제주이자 초헌관을, 이병선 시장이 아헌관을 맡았고, 허우린 속초제례위원장이 소지를 진행했다. 엄산호 설악동번영회장과 탁종빈 화채마를 위원장, 최식경 설악동 노인회장, 속초제례위원 등이 참관했다. 김원장은 축문을 통해 설악동과 속초시의 발전을 기

원했다.

속초예총 · 민예총, 러시아 · 중국과 문화교류

속초예총(회장 정봉재)과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호)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훈춘에서 각각 해외문화교류 사업을 펼친다.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은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한다.

속초문화원 16일 서울 도시재생 공간 탐방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은 오는 16일 향토사연구소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재생 공간을 탐방한다. 탐방장소는 마포 문화비축기지와 서울로 7017이다. 문화비축기지는 41년간 보안시설로 지정돼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됐던 비밀장소였다. 서울로 7017은 폐쇄위기의 고가도로를 개조해 만든 시민들의 문화산책 공간이다. 기존 구 서울역에서 출발해 남대문 시장으로 이어지는 도보 공간이 매력적이다.

속초북청사자 통일전망대서 길놀이

속초 북청사자가 통일전망대에서 평화기원 길놀이를 한다.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과 속초시번영회(회장 윤광훈),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회장 김성하), 속초시립풍물단(악장 전성호)은 오는 18일 오후 3시 통일전망대에서 북청사자놀이 길놀이를 벌인다. 이날 공연 전후로 속초시번영회 청년봉사단이 동서고속철도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전단을 관광객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속초시립박물관 ‘해정서에 동행전’

속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문서예가 이덕우(65) 해정서예연구원 원장과 회원들이 지난 14일부터 속

초시립박물관에서 ‘해정서에 동행전’을 열고 있다. 시립박물관의 지역작가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서예전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서예전에는 이 원장과 회원 17명이 옛 성현의 말과 시를 다양한 서체로 표현한 한문서예작품 28점이 전시됐다.

시로 속초 노래 ‘제156회 물소리詩낭송회’

제156회 물소리詩낭송회가 오는 25일 오후 3시 설악문화센터 1층 북카페에서 열린다. 물소리詩낭송회(대표 이선국)가 마련한 이번 시낭송회는 ‘속초, 詩로 노래하다’를 주제로 속초·고성·양양을 소재로 쓴 시 낭송과 박호영 상임 시인의 ‘후산 최명길 시인 정신’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아듀~ 2017년’ 속초예총 12월 송년예술제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이 올 한 해를 보내며 12월에 송년의 밤 행사와 문인협회와 미술협회의 송년 미술제와 문학축제를 개최한다.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송년미술전(부제 사랑나눔 자선미술전)을 연다. 미협은 전시회에 회원 및 미술 동호인들의 작품 40여점을 전시하고, 작품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과 지역 미술 꿈나무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국악으로 만나는 ‘7번국도 여정’

RUN 갯마당이 오는 29일 저녁 7시 거진 고성문화복지센터에서 2017년 전문예술 창작지원 사업으로 ‘7번국도, 나로미터’를 공연한다. ‘7번국도, 나로미터’는 RUN갯마당이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창작 공연물로 부산에서 시작해 고성까지 513km의 7번 국도를 따라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철조망으로 단절된 남한의 종점인 고성에서 다시 함경도 온성(1196km)까지 온전한 7번국도가

열리길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설악바다 일요화가회’ 11회 전시회

서양화 동호회 ‘설악바다 일요화가회’(회장 황경휘)가 오는 27~30일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제 11회 정기 전시회를 연다. ‘설악바다 일요화가회’는 2007년 속초교육도서관 유화강좌 이동수 화가의 지도를 받은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매년 정기 작품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13명의 회원이 정물화, 풍경화 등 30점을 선보인다.

설악문우회 갈매동인(회장 김종헌)은 오는 9일 오후 4시 속초문화회관 2층 소강당에서 갈매 제47집 출판기념회 및 송년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갈매 47집에는 ‘고 박명자 회원 추모특집’으로 박명자 회원의 대표작 13편과 작품해설, 갈매 동인들의 추모시가 실렸다.

12월

속초민예총 제22회 민족예술제 6일 개막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효) 제22회 민족예술제가 ‘문학의 향기를 흠날리다’라는 주제로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열린다. 먼저 국악협회가 6일 오후 6시 30분 개막공연 ‘속초아리랑 속으로’를 연다. 문학협회는 시민들의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해 이상국 시인의 시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아트플랫폼 갯배에 전시할 예정이다.

속초시 · 일본 요나고시 국제 사진교류전

청봉사진회(회장 장창근)가 오는 9~13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속초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요나고시 ‘요나고 사교회(寫交會)’와 국제사진교류전을 연다. 제34회 청봉 사진 전시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국제교류전에는 청봉사진회 회원 작품 35점과 요나고 사교회 회원 작품 15점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9일 오후 4시 30분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갈매 47집 출판기념회 · 송년 문학의 밤

제29회 속초시문화상 수상자

2017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로 주동진(1969년생, 남자), 이건형(1951년생, 남자), 백한진(1956년생, 남자), 조명수(1961년생, 남자)님이 선정됐다. 속초시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속초시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접수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에 2명,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분야에 1명, 교육학술분야에 2명, 체육분야에 1명 등 모두 6명이 추천됐다.

문화예술

주 동 진

한국국악협회 속초시지부장

- 국악전승과 활성화에 기여
- 속초북청사자놀이, 도리원농악 등 지역 문화진흥에 기여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이 건 형

조양동 주민자치위원장

-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 저소득층, 소년 소녀 가장 지원 등 나눔과 배려의 기부문화 확산

교육학술

백 한 진

청대초등학교 교장

- 교실수업 및 교육환경 개선, 속초 인재 양성
- 학교문집, 인터넷 카페 운영 등 인성교육 민주시민 의식 함양

체 육

조 명 수

속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 전국대회 유치 성공 개최
-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 및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2017년 속초문화원 임원명단

구분	성명	경 력	비고
원장	김계남	속초문화원장	
부원장	이영순	민주평통자문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이사	김은미	검찰청 법사랑위원회 위원	
이사	문은희	속초시상공회회의소 부회장	
이사	박민효	속초민예총 회장	
이사	박호근	속초고 운영위원	
이사	백영철	속초축제위원회 이사장	
이사	양용석	전)강원도교직원수련원 원장	
이사	유수경	전)국제로타리 3730지구 은솔로타리 회장	
이사	유종완	설악봉사회 회장	
이사	장용근	축제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사	정봉재	속초예총 회장	
이사	정성수	아사모 회장	
이사	지태수	갯마당 대표	
이사	최용석	보배이에스씨 대표이사	
이사	최춘미	생활한복 연구가	
이사	탁명원	평통자문위원, 시인	
이사	탁홍순	전)영랑동장	
이사	한명옥	전통타악연구원	
이사	박재일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장	
이사	주경범	(주)삼정수산 대표	
감사	허우린	속초시사회복지협회장	
감사	이상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재)속초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박충근

(주) 현대 REF

(Real Estate Foundation)

대표이사 **강 광 원**

Cell : 010-8710-8809
E-mail : hayan8877@naver.com

HYUNDAI REAL ESTATE FOUNDATION

RENT. DEVELOPMENT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Tel. 033 632 1231, 639 2439 Fax. 033 632 1241
www.sokcho-culture.com